

경기마을기록사업 ⑦

파주시 마을기록화사업 보고서 5

파주의 동맥

조리 마을지



경기마을기록사업 ⑪

파주시 마을기록화사업 보고서 5

파주의 동맥

조리 마을지



조리 마을지

차례

여는글 .. 05

01 조리읍의 지명유래와 마을 이야기 .. 07

02 지도로 본 조리읍의 어제와 오늘 .. 45

03 인구구성의 변화 .. 65

04 경제 및 직업의 변화 .. 99

05 정주환경과 주변경관의 변화 .. 115

06 지역민속의 변화 .. 123

07 조리읍의 문화재와 보호수 .. 133

08 사진으로 담은 조리읍의 풍경 .. 153

09 조리사람들 이야기 .. 195

여는글



이 보고서는 2019년 실시한 파주 조리·탄현 마을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의 연차사업인 ‘파주시 마을 기록화 사업’과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사업’을 네트워크한 공동사업으로 기획되어, 파주문화원 주관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은 조사기획, 편집안 제시, 조사단구성 및 원고료 부담 등은 경기문화재단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파주문화원은 주민대상 구술조사와 보고서 발간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내부)

조사단장: **이지훈**(경기학연구센터장)

책임조사원: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외부)

이윤희(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스토리텔러)

고영창(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원, 문화인류학 전공)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강사, 문화역사지리학 전공)

파주문화원

구술조사 :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동조사보다는 개별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에 있어서 중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소개에서는 그러합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한편, 이 조사와 함께 탄현면의 마을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2017년에는 파주 금촌을 대상으로, 2018년에는 월롱면과 교하읍을 대상으로 면지(面誌) 성격의 마을기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조사는 『파주 금촌마을의 회상과 기록』, 『풍요와 천도의 땅, 교하마을지』, 『희망과 도약의 땅, 월롱마을지』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조리읍의 지명유래와 마을 이야기

이윤희(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1. 조리읍의 연혁

조리읍은 조선시대 말에 파주군 조리동면(條里洞面)으로 면내(面內)에 노곡리(弩谷里), 조산리(造山里), 봉일천장기(奉日川場基), 죽원리(竹院里), 산리(山里), 기곡리(基谷里), 전지리(田地里), 오리동(梧里洞), 신촌리(新村里), 화산리(花山里) 등 10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는 파주군 조리면(條里面)으로 뇌조리(弩條里), 봉일천(奉日川), 죽원리(竹院里), 장산리(獐山里), 기곡리(基谷里), 오리동(梧里洞), 화산리(花山里)가 포함되어 있었다.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교하군(交河郡) 아동면(衙洞面)의 등원리(登院里), 아동리(衙洞里)의 일부와 지석면(支石面)의 상지석리(上支石里) 일부, 고양군 사리대면의 설문리, 지영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죽원, 뇌조, 오산, 장곡, 봉일천, 등원 등 6개 리로 개편, 조리면이라 하였다.*

이후 1989년 1월 1일 군조례 제1251호로 교하면 상지석리 일부가 조리면에 편입되어 능안리(陵案里)가 설치되어 모두 7개 리를 관장하게 되었다.

1996년 3월 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파주시 조리면이 되었다.

2000년 6월 12일 죽원리를 대원리로 개칭하였고 2001년 6월 7일 대원4리와 대원5리가 신설되었다.

2002년 4월 1일자로 인구증가에 따라 조리면에서 조리읍으로 승격되었다.

2004년에 봉일천10리, 2006년에 능안2리, 2012년에 대원6리가 추가로 신설되어 7개 법정리와 28개의 행정리를 갖추고 있다.

조리읍의 2019년 7월 현재 인구 현황은 12,880세대에 30,782명(남 15,670명, 여 15,112명)이며 1,28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기관으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으며 535개소의 기업체에 6천여

* 趙智唯七, 『朝鮮全道府郡面洞名稱一覽』, 1917. 1917년 전후의 조리면은 고양군(高陽郡) 사리대면(沙里大面) 설문리(雪門里), 영태리(英太李) 일부와 교하군(交河郡) 지석면(支石面) 상지석리(上支石里), 현내면(縣內面) 금릉리(金陵里) 일부가 죽원리(竹院里)에, 교하군 아동면(衙洞面) 등원리(登院里) 일부가 뇌조리(弩造里), 봉일천리(奉日川里), 등원리(登院里)에, 교하군 아동면 아동리(衙洞里) 일부가 등원리에 편입됨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조리읍의 명칭은 공릉산(恭陵山) 정상에서 사면으로 뻗은 가지(條) 모양의 산줄기를 따라 골짜기마다 마을(里)이 형성되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조리읍은 파주시의 남쪽에 위치하며 국도 1호인 통일로, 자유로와 연결되는 국지도 56번, 국지도 78, 98호선, 지방도 363호선 등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이다.

또한, 읍의 장곡리로부터 봉일천리를 통과하는 국가하천 공릉천이 흐르고 장곡리에 위치한 공능저수지 등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파주시의 대표적 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파주삼릉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읍 소재지인 봉일천(奉日川)은 공릉천의 전 구간 중 조리지역의 구간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공릉천은 2008년까지 곡릉천(曲陵川)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왜곡된 지명으로 확인돼 본래의 이름인 공릉천(恭陵川)을 되찾았다.

공릉천(恭陵川) 이야기

공릉천은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에 걸쳐 흐르는 하천으로 한강 권역의 한강 수계에 속하며, 한강의 제1지류이다. 국가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가하천은 유로연장(流路延



조리읍 중심을 흐르는 공릉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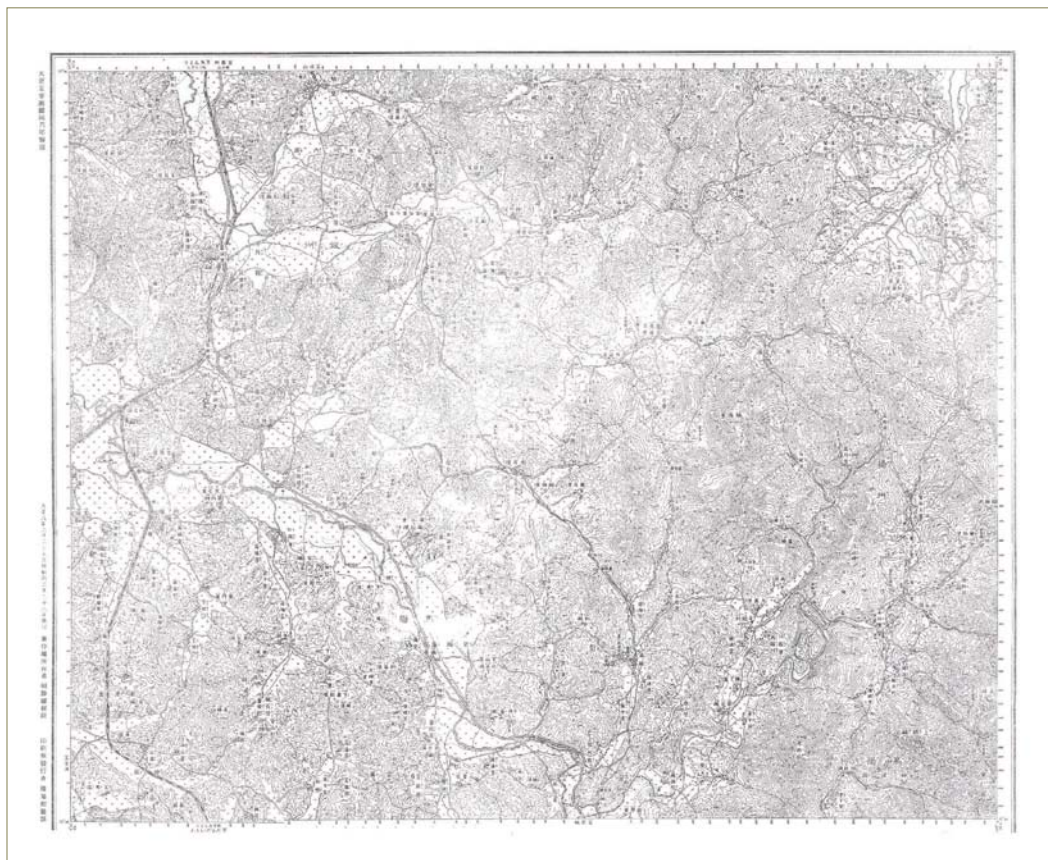
長) 45.7km, 하천연장 16.05km, 유역면적 261.41km²이며, 지방2급 하천은 유로연장 29.65km, 하천연장 28.95km, 유역면적 125.6km²이다. 가둔천(佳頓川) 또는 가둔천이라고 불리어왔으며, 예부터 중류 지역인 고양시 부근은 심천(深川)이라 부르고, 파주시 조리읍(條里邑) 부근에서는 봉일천(奉日川), 금촌동(金村洞) 남쪽에서는 금성진(金城津), 하류의 교하동(交河洞) 부근에서는 방천(防川)으로 구간별 명칭을 사용했다.

양주시 철봉(516m)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장흥면(長興面) 부곡리에서 지방2급 하천이 시작되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仙遊洞), 내유동(奈遊洞)을 거쳐, 일산동구 지영동(芝英洞), 파주시 조리읍의 경계 지점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고, 파주시 교하동 오도리 북쪽에서 서쪽을 향해 흘러 한강으로 합류한다.

공릉천은 지난 2008년 이전까지 국가하천 ‘곡릉천(曲陵川)’으로 불리어왔다.

그러나 곡릉천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 명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주시가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곡릉천 명칭을 본래의 공릉천(恭陵川)으로 명칭 변경해줄 것을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지난 2008년 12월 1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 원래의 공릉천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공릉천의 지명 왜곡은 대정 8년(1919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제작된 〈高陽 測圖〉에 고양~파주 구간에 흐르는 하천명을 ‘곡릉천(曲陵川)’으로 표기하고 있어 원래의 공릉천이 일제강점기에 곡릉천으로 왜곡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정 8년(1919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高陽測圖〉

1920년대 이전의 고지도를 보면 공릉천은 고양 구간을 심천(深川), 파주 조리 구간은 봉일천(奉日川), 또는 공릉천(恭陵川)으로 표기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보관 중인, 조선 영조 때인 1750년대 초에 간행된 《해동지도》에 공릉천(恭陵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중국 지도인 《광여도(廣輿圖)》상의 〈교하현(交河縣)〉 구역도에도 공릉하류(恭陵下流)라는 표기가 있어 역시 〈공릉천〉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72년에 간행된 지방지도 〈파주도〉에는 공릉천 표기 대신 현재의 조리읍 소재지 지명인 봉일천(奉日川)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1936년 4월 9일자 『동아일보』에 ‘공릉천제방축조(恭陵川堤防築造)’기사가 확인되고 있다. 〈문산〉발 기사의 제목은 ‘六萬餘圓 工費로 恭陵川 堤防築造’라 하고 소제목으로 ‘철도국 공사와 아울러 도(道) 직영으로 착공이 멀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 <교하군> 지도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광여도》〈교하현〉지도



1936년 4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

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매년 하절기면 공릉천이 범람해 봉일천장의 피해가 심해 철도국 공사와 아울러 제방 축조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1920년대 이후 불린 국가하천 곡릉천 명칭은 일제강점기 지도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일제의 지명 왜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릉천 명칭은 고양시 서오릉에 들어선 창릉(昌陵)의 이름을 따 창릉천(昌陵川)으로 불린 것처럼 조선 예종, 성종 때 공릉과 순릉이 조리읍 봉일천에 조성되면서 공릉천(恭陵川)으로 명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 회자되는 발원지로부터 하류까지 굴곡이 심한 지형적 형태로 인한 ‘곡(曲)’자의 유래는 뒤에 따라붙는 ‘릉(陵)’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칭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공릉’에 대한 발음상의 불편이 ‘곡능’이라는 오기(誤記)를 낳았고 우리나라의 지명을 멋대로 한자화한 일제의 무자비한 지명 왜곡 표기가 낳은 산물로밖에 볼 수 없다.

2. 마을별 지명유래

1) 뇌조리(弩造里)

조선시대 말 조리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뇌조리와 오리동 일부,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뇌조리라 하였다.

뇌조리의 마을 이름은 마을 뒷산에 나뭇가지를 잘라 활(弩) 모양의 텃을 만들어 노루, 토끼, 산돼지 등을 잡았다 하여 유래된 지명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뇌조리는 조선 말 조리동면에 포함된 노곡리(弩谷里)의 ‘노(弩)’자와 조산리(造山里)의 ‘조(造)’자가 합쳐진 이름으로 한자 표기를 보면 ‘弩(쇠뇌 노)’자 인데 한글로는 ‘뇌’자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뇌조리’의 한자 명칭은 한글 ‘노조리’로 읽어야 맞는 표현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뇌조리’명칭을 그대로 쓴다.

뇌조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고창말/고창동/곶창말/우렁굴

3리에 있는 마을. 이 마을에 있는 공릉고개에서 창포가 많이 나온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 화살과 창을 만드는 군납창고가 있던 지역이라 하여, 또는 옛날 곶집(창고)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뇌곡동/소뇌울/소뉴월/쇠뉴월/쇠유월/노곡/선유동

2리에 있는 마을. 이 마을 뒷산에 나뭇가지로 활 모양의 덩굴을 만들어 노루, 토끼, 산돼지 등을 잡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곳에 큰 절이 있었는데 산짐승들이 많이 와 활 모양의 덩굴을 만들어 이를 잡았다고 하며, 또 뒷박같이 생긴 덕암산의 봉우리가 너무 아름다워 옛날 선인들이 놀았다 하여 선유동이라고도 불린다.

덕암동

2리에 있는 마을. 덕암산에 덕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뇌조2리 마을회관

전지미

2리에 있는 마을. 언덕에 당집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 밭 가운데 연못이 있었고 연못 풍경이 아름다워 전지미(田池美)라 하였다고 한다.

조문이(造文洞)/갯배기

2리에 있는 마을. 옛날 선유동에 연원부원군 이광정이 살고 있어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고 교훈을 받았다 하여 조문동(朝問洞)이라고 하였고, 선비들이 모여 작시도 하였다 하여 조문동(造文洞)이라고도 한다. 갯박(야생 박)이 많아 갯배기라고도 한다.

조산/조산말/조산동/조산리

1리 조산 앞에 있는 마을



뇌조1리 조산말 전경



2) 능안리(陵案里)

조선시대 말까지 교하군(交河郡) 상지석리(上支石里)였다.

1989년 1월 1일 군조례 제1251호로 교하면 상지석리 일부가 조리면에 편입되어 능안리(陵案里)가 설치되었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봉일천리에 있는 공릉(恭陵), 순릉(順陵), 영릉(永陵) 가운데 순릉이 마주 건너다 보이는 마을로 능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안말 또는 안능안이라고도 한다.

능안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바깥능안

안능안 북쪽에 있는 마을. 공순영릉이 생기면서 능안이란 이름이 붙었다. 파주삼릉 가운데 영릉을 밖에서 바라다볼 수 있는 곳으로 바깥능안 또는 외릉동(外陵洞)이라고도 한다.

새말

바깥능안과 안능안 사이에 있는 마을.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새로 조성된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안능안/능안말

바깥능안 남쪽에 있는 마을. 조리면에 있는 공순영릉 가운데 순릉이 마주 건너다보이는 곳이다.

탐산골/탐싼골

탐산 서쪽에 있는 마을. 탐산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해방 후에 생긴 마을이다. 옛날 평지암이란 암자가 있었고 이곳에 7층의 탑이 있었다고 한다. 탑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건넌마을 처녀들이 바람이 난다 하여 올려놓았다 내려놓았다 하며 서로 싸움을 하였다고 전한다.



능안리 마을 입구 능안교와 마을 표석



능안초등학교

3) 대원리(大院里)

조선시대 말 조리면 지역으로 대원(大院) 또는 대원리(大院里)라 하였는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군호(君號)와 같다 하여 ‘大’자를 ‘대’를 뜻하는 ‘죽(竹)’으로 고쳐 죽원리(竹院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죽원리, 장산리 일부와 고양군 사리대면의 설문리, 지영리의 각 일부, 교하군 지석면의 상지석리 일부, 현내면의 금릉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죽원리라 하였다. 그러나 ‘죽원리’에 대한 발음상의 문제로 주민들이 본래의 마을 이름인 대원리로 명칭을 바꿔줄 것을 건의하여 2000년 6월 12일 다시 ‘대원리’로 개칭하였다.

대원리는 조리읍의 소재지인 봉일천리와 공릉천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한라비발디, 동문그린시티 등 아파트단지와 농촌마을이 혼재되어 있다.

대원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대원리 마을 전경



대원리 동문그린시티아파트 단지



대원리 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



바위재

3리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인 용문산에 단단한 바위가 많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수작골/윗대원리

3리에 있는 마을. 물이 흘러들어와 모이는 동네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대원리 윗마을로 윗대원리라고도 불린다.

천안동

1리에 있는 마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이름이나 지금은 마을은 남아 있지만 명칭은 없어졌다.

혜시골

2리에 있던 마을. 은혜를 널리 베풀자 하여 붙은 이름이다.

4) 등원리(登院里)

조선시대 말 파주군 조리면, 교하군 아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파주군 조리면의 봉일천, 뇌조리 일부와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 아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등원리라 하고 조리면에 편입하였다. 등원이라고도 한다.

등원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고산골/고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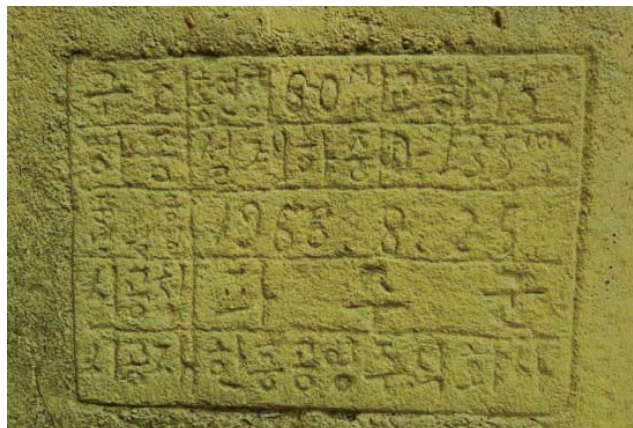
2리에 있는 마을. 높은 산 밑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말레이시아교

2리 마을 앞으로 흐르는 지방하천 고산천 위에 1968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원조자금으로 건설되어 붙여진 다리 이름이다.



말레이시아교



말레이시아교의 준공기

낙머리/낙모래이/낙모래/낙모랭이(洛隅洞)

2리에 있는 마을. 오산리와 장곡리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합류한 고산천 곁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고 낭떠러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민발동(玃拔洞)/민바리

2리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 뒷산에서 옥돌을 캐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산부리 밑에 자리하고 있다.

선고개(船峴洞)/배리고개

2리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 밑까지 작은 배들이 들어와 정박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행랑말(杏樂洞)/아랫말

1리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에 이조참판 신태동의 묘가 있고 그 아래 행락정자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등원리 낙머리 마을

5) 봉일천리(奉日川里)

조선시대 말 조리면 지역으로 봉일천 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 일부를 병합하였다. 이 지역은 공릉천 하상보다 낮은 지역으로 매년 홍수로 물난리를 겪게 되자 ‘비는 적게 오고 해가 뜨게 해달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의 공릉천의 옛 이름은 보신천(寶信川)이라고 했으며 조선조에는 봉일천으로 불렸다.

봉일천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공릉장터

1리에 있던 마을. 옛날 공릉장으로 규모가 큰 우시장과 생활용품 시장이 7일마다 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봉일천리 아파트단지



봉일천 시가지

능거리

5리에 있는 마을. 파주삼릉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바깥산말/외산동

3리에 있는 마을. 산 바깥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삼태골/삼태기말

4리에 있던 마을. 마을 뒷산의 형태가 삼태기 같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미군 부대가 들어섰으나 현재는 미군들은 모두 철수하고 미군 공여지로 남아 있다.

소골[沼谷洞]

3리에 있는 마을. 마을 골짜기에 웅덩이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며 이곳에서 용이 나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930년대 초 조리면 봉일천4리 송암동 앞 벌판을 경지정리하는 모습



현재의 봉일천4리 송암동 마을 모습



송암동/솔바윗골/동기/동구

4리에 있는 마을. 조병학이라는 부자가 이곳 땅을 사게 되어 그의 호 송암(松岩)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주위에 있는 보시산과 능산의 바위에 송림이 우거져 있었는데, 봉일천에 살던 윤대경이 빼어난 경관의 마을을 보고 '수동림 보시동'이라는 비석을 동네 입구에 세워 보시동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비석이 동구 밖에 있다 하여 동구 또는 동기로도 불린다.

순비골

3리에 있는 마을. 3.1운동 당시 순국한 애국지사들을 추모하는 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안산말/내산동/내산말

2리에 있는 마을. 산 안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마을 뒷산의 형태가 마치 말안장 같다 하여 안산(鞍山)이라 한다.

잔디머리

횃대부리 북동쪽 4리에 있는 마을. 잔디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전나무골/전나무거리/회목동

5리에 있는 마을. 전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팔학골/팔학골/팔학동/파라골

5리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중종 때 김정국(金正國)을 비롯한 민순(閔純), 남효온(南孝溫), 기준(奇遵), 정지운(鄭之雲), 홍이상(洪履祥), 이신의(李愼儀), 이유겸(李有謙) 등 8현이 이곳에서 수학하였다 하여 팔학골[八學谷]이라고 한다. 영의정 한명회가 공릉·순릉에 묻힌 두 딸을 가엽게 여겨 이곳에 암자를 짓고 파라승으로 하여금 영혼을 달래며 축원하였다 하여 '파라골'이라고도 한다. '팔학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주춧돌이 남아 있다고 전한다.

6) 오산리(梧山里)

조선시대 말 조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리동(梧里洞)과 뇌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오산리라 하였다. 오리동의 ‘오(梧)’자와 전지산(田地山)의 ‘산(山)’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오산리는 광탄면 신산리와 경계로 1970년대 초에 들어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금식기도원이 있으며 오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오산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망골/망굴/막은골

1리에 있는 마을. 마을 언덕 위에 장수바위가 있어 옛날 이곳에서 망을 보며 적을 막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막은굴이었는데 망굴로 발음이 변한 것이다.

매봉재

1리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의 봉우리가 마치 매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졌다.

사근절이/속은절이/씨근자리/사근자리

2리에 있는 마을. 옛날 이 마을 골짜기에 여승이 속은절[俗隱寺]이라는 절을 지었는데 이것이 ‘속은절이’ ‘사근절이’ 등으로 음이 바뀐 것이라고 한다. 절이 있던 자리라고 하여 절터골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절터골, 연못재 등으로 불리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마을에 아담한 절이 있었고 그 앞에 연못이 있었다. 4대 독자인 박첨지의 아들이 장가들어서 3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다. 부인이 이 절에서 100일 불공을 드리고 피곤에 못 이겨 부처님 앞에서 잠에 빠지자 욕정을 참지 못한 중이 부인을 겁탈하려 하였다. 마침 남편이 이를 보고 중을 도끼로 내려쳐 죽이니 절은 폐허가 되어 ‘삭은절’이 되었고 부인은 절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새골(鳥谷洞)/조곡동

2리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에 나무가 울창하여 많은 새들이 날아왔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새말 또는 간촌이라고도 불린다.

연당말/연당촌/연당리

2리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 연못에 연꽃이 많이 피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오릿굴/오릿골/오리동

1·2리에 연이어 있는 마을. 2리 끝에서 상촌까지의 거리가 약 5리 정도 된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오산리 전체를 오릿골이라고도 한다. 오동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오산1리 오릿굴



오산리 최자실금식기도원 입구

전진말

1리에 있는 마을. 군인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생긴 마을이다. 이 군인들의 부대 이름이 전진부대라서 붙은 이름이다.

황새말

2리에 있는 마을. 송장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옛날 오리나무가 많아 황새들이 이곳에 새끼를 치고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장곡리(獐谷里)

조선시대 말 조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곡리(基谷里) 전부와 장산리(獐山里) 일부를 병합하여 장산(獐山)의 '장(獐)'자와 기곡(基谷)의 '곡(谷)'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장곡리는 조선왕릉인 파주삼릉과 연결해 있으며 12만 평 규모의 공릉저수지와 함께 경기북부 수도권 최대의 휴양 레저 시설인 하니랜드가 위치하고 있다.

장곡리 마을에 유래되는 지명들은 다음과 같다.

노루뿔/놀미/파주놀미/장산동(獐山洞)

2리에 있는 마을. 마을 뒷산에 노루바위가 있어, 또는 뒷산의 형상이 노루 모양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수용말/수용소말/염시/여무시

3리에 있는 마을. 한국전쟁 당시 장단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계명산 중턱으로 광탄면 용미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있다. 수목이 울창하여 들짐승들이 많았다고 한다.

안골

1리에 있는 마을. 능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골짜기 안쪽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장곡리 공룡저수지



장곡2리 놀이마을 표석

은굴/은골[隱谷]

1리에 있는 마을. 은이 많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병자호란 당시 마을 사람 1,000여 명이 피난한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은굴/은골[隱谷]

1리에 있는 마을. 은이 많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병자호란 당시 마을 사람 1,000여 명이 피난한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텃골/텃골/기곡동

1리에 있는 마을. 공릉의 지세를 보하려고 동맥이굴을 높여 턱이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장곡1리 텃골마을 전경



3. 조리읍의 문화적 특성

1) 조리읍의 문화유산

● 파주삼릉(坡州三陵)

- 사적 제205호
- 조리읍 봉일천리 산 4-1, 15-1

공릉(恭陵)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비 장순왕후(章順王后) 한씨(韓氏)의 능이다. 장순왕후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韓明澮)의 큰딸로 1460년(세조 6) 열여섯 살 때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며, 인성대군을 낳고 이듬해 열일곱 살의 나이로 승하했다. 1462년 세조는 죽은 왕세자빈에게 온순하고 너그러우며 아름답다고 장(章), 어질며 자애롭다고 순(順)의 '장순(章順)'이란 시호를 내렸다. 1472년(성종 3)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공릉은 처음에 왕후의 능이 아니라 세자빈의 묘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소박하다. 곡장을 두른 봉분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생략되어 있고, 석호와 석양도 각각 두 마리만 능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봉분 앞에 망주석은 없고 혼유석과 팔각의 장명등만 세웠으며, 좌우 양쪽에는 무인석은 없고 손에 홀(笏)을 쥔 문인석과 석마를 두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공릉의 참도는 다른 능과 달리 꺾여 있다.

순릉(順陵)

조선 제9대 왕 성종 비인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의 능이다. 공혜왕후는 한명회의 넷째 딸로 공릉의 장순왕후와는 자매지간이며, 성종은 예종의 조카다. 그러나 이들 자매는 궁에서 함께 지낸 적은 없다. 공혜왕후는 언니 장순왕후가 죽은 지 6년 뒤인 1467년(세조 13) 열두 살의 나이에 자을산군(者乙山君)과 가례를 올렸고 자을산군이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더불어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5년 후인 1474년 4월 열아홉의 나이에 자식 없이 승하하였다.

순릉은 화려하지 않지만 왕비의 예에 맞추어 만들어졌다. 병풍석만 생략되었을 뿐 왕릉에 있어야 할 석물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우선 궁궐의 담장을 본떠서 만든 곡담이 봉분을 보호하고 있고, 단순하고 소박한 형식의 석난간이 둘러쳐져 있다. 그리고 석호 네 마리와 석양 네 마리가 무덤을 호위하고 있다.



공릉



순릉

봉분 앞에는 귀신 얼굴 모양을 새긴 북 모양의 고석(鼓石)을 괴고 있는 혼유석과 양옆에 불쑥 솟은 망주석이 있다. 돌로 만든 단을 하나 내려오면 장명등과 석마를 뒤에 거느린 문인석이 양쪽에 서 있고, 그 아래 단에는 조선시대에 문인보다 서열이 낮았던 무인석이 석마를 곁에 두고 서 있다. 그리고 홍살문, 정자각, 비각이 격식에 맞추어 자리하고 있다.

영릉(永陵)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 진종(眞宗, 추존)과 비 효순왕후(孝純王后) 조씨의 능이다.

진종은 1719년(숙종 45)에 태어났으며, 이름은 행이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한 이듬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728년 춘추 열 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자 시호를 효장이라 했다. 영조는 둘째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를 폐위한 뒤 사도세자의 아들인 왕세손(훗날 정조)을 효장의 아들로 입적시켰다. 효장세자는 정조 즉위 후 영조의 유언에 따라 진종으로 추존되었고 능호도 올려 영릉이라 했다.

효순왕후 조씨는 좌의정을 지낸 조문명(趙文命)의 딸로 1715년에 태어나 열세 살에 세자빈에 책봉



영릉

되었으나 그다음 해 세자의 죽음으로 홀로 되었다가 1751년 서른일곱의 나이로 승하였다. 후에 효장 세자와 함께 왕후로 추존되었다.

영릉은 세자와 세자빈의 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간소하고 아담하다. 영릉을 만들 때 영조가 석물들을 옛 방식을 따르되, 일반 가정의 석물에 비해 조금 풍후(豐厚)한 정도로 할 것을 명하여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영릉은 진종과 효순왕후의 봉분을 나란히 한 쌍릉으로 곡장을 둘렀을 뿐 병풍석과 난간석은 없고 석호와 석양이 각각 한 쌍씩 호위하고 있다. 봉분 앞에 각각 혼유석을 두고, 양옆에 망주석을 세웠다. 그 아래 단에 장명등과 문인석 두 기를 두었다.

●익양군이회신도비(益陽君李懷神道碑)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1호

- 조리읍 장곡리 산 20-1

익양군이회신도비는 성종의 제8왕자로 1488년 7월 1일 숙의홍씨(淑儀洪氏) 몸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익양군에 봉해진 이회(李懷, 1488~1552)의 행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이회는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가 계속되자 문밖 출입을 하지 않다가,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원종공신이 되었다. 중부시 제조, 종친부 유사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특히 충효덕행의 으뜸으로 명성이 높았다.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는 비는 널찍하고 네모진 받침 위에 비몸과 머릿돌을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워 놓았다. 비몸의 앞면 윗부분에 머리글(篆額)을 새기고, 그 아래와 뒷면에 비문을 새겼다. 머릿돌에는 두 마리의 용을 대칭적으로 조각했는데 용 비늘과 구름 등의 묘사가 매우 섬세하다.

이회가 사망한 지 35년 후인 선조 20년(1587)에 세운 이 비의 비문은 좌의정 김귀영이 짓고 명필 석봉 한호가 글씨를 썼으며 도승지 김응남이 머릿글을 썼다.



익양군 이회 신도비

◎이주, 이광정 묘 및 신도비(李澍, 李光庭 墓 및 神道碑)

- 파주시향토문화유산 제12호
- 조리읍 뇌조리 산 1-20

조선 중기 문신인 이주(李澍, 1534~1584)와 그의 아들 이광정(李光庭, 1552~1627)의 묘와 신도비이다.

이주의 자는 언림(彦霖), 호는 분봉(盆峯), 본관은 연안(延安), 시호는 정목(靖穆)이다. 1558년(명종 13)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경성판관, 사간원 정언에 이르렀다. 이주는 1584년 가산 군수에 임명되었는데, 백성을 널리 아껴 그 덕을 칭송하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 강직한 성품을 가진 이주는 예법에 따라 처신하여 평소 생활에서도 반드시 갓을 쓰고 띠를 했고 아무리 더운 날에도 옷매무새를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이광정의 자는 덕휘(德輝), 호는 해고(海皐)이다. 1573년(선조 6) 진사시에 합격하고 1590년 동몽교관으로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임진왜란이 나자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했고 1601년에는 지증추 부사로서 청백리에 뽑혔으며, 이후 예조판서, 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1627년 정묘호란



이주·이광정 묘



이주·이광정 신도비

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이주와 이광정의 묘는 10m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주의 묘에는 봉분 앞으로 묘비 2기, 상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등이 있고, 바로 아래 있는 이광정의 묘에는 2개의 봉분에 묘비, 동자석 1쌍,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상석 등이 있다. 묘역 아래쪽에 있는 비각에는 신도비가 있다.

2) 조리읍에 전해지는 마을 이야기

[탐산골의 달걀귀신 이야기 ①]

조리면 봉일천에서 서북쪽으로 샛길을 따라 1km 정도 걸어 들어가면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이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도깨비 촌으로 탐산골이라고 불리어왔다. 옛날 이 탐산골 능선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던 젊은이가 있었다. 공릉 장터에서 산 물건을 잔뜩 지게에 짊어지고 걷다 보니 귀



가 시간이 늦어버렸던 것이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구나” 하며 젊은이는 투덜투덜 지껄이며 이 탑산골의 능선까지 걸어왔다. 눈앞에 울창한 숲속이 더욱 거무죽죽하게 보여 밤의 풍치를 흠뻑 머금고 있는 듯했다. 젊은이는 눈동자를 굴렸다. 마을 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난 달갈도깨비를 봤다네, 직접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봤는걸” 하며 그 내력을 이야기해주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평소엔 답이 크다고 자부해온 그였건만 웬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기분 나쁘리만치 시커먼 숲속은 조용했다. 벌레들 우는 소리마저 괴괴하여 정막만이 감돌아 흐를 뿐이었다. “에이 저놈의 곳을 어떻게 간담, 어서 빨리 가야 할 텐데” 혼자 중얼거리며 터덜터덜 걸었다. 어쩐 일인지 이상하게도 걸음걸이가 빨라지지 않는 것같이 생각되었다. 음산한 숲 주위에 바람이 휘몰다가 멈추고 스르르 다시 불어 나뭇잎들을 건드렸다. “에이 빌어 먹을.” 젊은이 머릿속에는 달갈도깨비를 만나면 그에 홀려 밤새도록 고생하다 진흙탕 속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전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숲은 더욱 시커멓게 어둠 속으로 젖어들었고 바람은 차츰 거세지기 시작했다. ‘좌-좌르르 좌아-스스르.’ 여기저기서 갈잎 나무들이 함성을 터뜨리며 가지를 흔들었다. 젊은이의 무서움과 공포심은 갈수록 심해졌다. 시간은 자꾸 지나는데도 걸음은 황소처럼 느리기만 한 것 같았다. 음산하게 가라앉은 주위가 점점 그의 몸을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젊은이는 뛰었다. 무거운 지계를 자꾸 추수거리면서 쉬어갈 엄두도 못 내고 헐레벌떡 뛰었다. 목이 바짝바짝 탔다. 땀방울이 옷에 배어 후줄근하였다. 이상하다? 다른 때는 이 탑산골을 아무리 지나다녀도 오늘처럼 이렇게 걸음이 느린 적이 없을뿐더러 별로 무서웠던 기억도 없는데 웬일일까? 요괴라도 나타나려는 기미인가? 의구심은 자꾸 젊은이를 괴롭혔다. ‘좌-소르르-좌악...’ 바람이 불었다. 자라 모양으로 목을 움츠리고 살그머니 나무 위를 쳐다보고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귀신들의 괴성이 허허거리고 들려올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젊은이는 시선을 못 박은 채 꼼짝할 수 없었다. 젊은이가 얼굴을 돌린 저만치서 웬 사람들이 괴나리봇짐을 등에 지고 천천히 걸어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옷을 입었는데 둘 다 노인인 듯싶게 허리가 꼬부라져 보였다. 먼발치라 잘 분별하기가 힘들었으나 젊은이는 눈을 비비고 주시했다. 웬지 머리끝이 쭈뼛했다. 탑산골 능선을 거의 벗어날 무렵이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숲도 거진 지난 셈이다. 땀이 쭉 흘렀다. 조금만 더 가면 흰히 뚫린 들판이고 인가가 보일 것이다. 한 편으론 의아스럽기도 했지만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운 마음도 들어 걸음을 빨리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앞에서 걸어오던 두 늙은이가 옆길로 새서 탑산골 숲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 저 사람들은 겁도 없나? 저리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사람을 홀린다는데...’ 젊은이는 꼬부랑 두 늙은이를 무턱대고 불렀다.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친 것이다. ‘여보시오! 두분네들 거기로 가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 목소리는 비명처럼 숲속으로 길게 울려 퍼졌다. ‘여보세요. 그 길은 도깨비가 나오는 길이었답니다. 빨리 나오세요!’ 몇 번이나 소릴 질렀는지 모른다. 잠시 후 두 노인은 들었는지 다시 이쪽으로 걸어오

기 시작했다. 가까이 오는 두 사람 옷차림으로 보아 한 사람은 할머니인 걸로 봐서 양주가 아닌가 했다. ‘어디로 가시려고 그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들을 살렸다는 만족감에 반갑게 물어볼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젊은이보다 걸음이 빠른 듯 두 늙은이는 서로 마주 보며 차츰 가까이 왔다. 그런데 어찌 된 셈인가 젊은이가 입을 열려고 우물거리는 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늙은이들은 어느 사이에 젊은이 곁을 지나쳐 쑥 뒤쪽으로 걸어가버렸다. 바람을 타고 가는지 빠르기가 비호같았다.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여보시오!’ 다시 돌아선 젊은이가 저만치 걸어가는 노인들을 불러 세웠을 때, 그들은 똑같이 멈추었다. 그리고는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 찰나, 아악! 젊은이의 목에서 비명이 터졌다. 그리고는 기절초풍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하얀 베옷에 하얀 머리털, 하얀 얼굴, 쑥 돌아다보는 그 면상은 깎아지른 듯 절벽뿐이었다. 눈, 코, 입이라곤 애당초부터 타고나지 않았는지 전혀 그 형태조차 없는 달걀 모양이 웃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들어가면 죽어 나온다는 그 숲속으로 하얀 안개가 사라지듯 슬그머니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혼비백산. 젊은이는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왔는지 모른다. 집에 돌아와 짜리짜문을 박았을 때는 지게 위에 잔뜩 엎었던 짐들은 온데간데없이 빈털터리뿐. 젊은이는 넋을 잃고 말았다. 얼굴 없는 달걀 모양을 발견해서가 아니다. 하얀 베옷 차림으로 숲속을 향해 들어가는 두 늙은 영감 마누라 눈에 띄었을 때부터 젊은이의 혼은 이미 흘러버렸던 것이다. 그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젊은이는 그달을 넘기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탐산골의 달걀귀신 이야기 ②]

몇 해 전 초겨울 이 마을에 잔치가 있었다. 선조대대로 이 탐산골에 뿌리 박았던 양부자택 외동딸이 시집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신랑이 하루 종일 먹은 음식이 체해서 설사병이 난 것이다. 배 속이 하루 종일 와글거려 숲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마치고 말 위에 올라 옆을 보았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분명히 말 위에 타고 있어야 할 신부가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앗! 신부가 사라졌다!’ 그제야 신랑의 비명에 따라 수행원들이 황급히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자취 없이 사라진 신부가 나타날 리 만무였다. 신랑은 목이 터져라 신부를 찾아다녔으나 끝끝내 헛수고였다. 빈 말 한 필만 이끌고 신부 없는 신랑이 풀이 죽은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선 것은 새벽 4시였다. 3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이웃 마을 길을 자그마치 8시간을 흘러 다닌 것이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다녔는지 모른다. 밤새도록 동녘이 환히 뜰 때까지 휘돌아다녔던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을 부르튼 발이 증명해주었다. 달걀도깨비는 항상 두 늙은 양주로 변신하여 나타나 이 탐산골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이 마을에 장례가 겹치는 것이다.

[탐산골의 달갈귀신 이야기 ③]

언제부터인가 이 동네에 한 늙은 영감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으나 그의 인격을 대해본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고 불렀다. 조그만 초막 호롱 불도 없이 밤낮 앉아서 무슨 책인지 매일 읽는다는 것이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낭랑했던지 소리를 들은 사람은 가슴의 체증까지 확 뚫릴 정도로 맑았다. 그 도사에 대한 구구한 억측이 떠돌아다녔는데 풍문에 의하면 그는 일찍 처를 여의고 홀아비 신세로 아들 하나를 고이 키워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행실이 고약하여 시아버지와 간통했다는 무고한 소문이 퍼져서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쫓겨 나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바르지 못한 세상인심에 회의를 품고 이 탐산골에 들어와 능선 바로 위쪽 숲속에 초막을 짓고 도를 닦았던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아무도 돌보아주는 이 없이 몇 해를 그 초막에서 지내던 도사는 어느 날 아침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도사님이 승천하신 게야.’ ‘아니 어찌면 그분이 한을 품었기 때문에 귀신이 된 건지도 모르지.’ 마을 사람들은 평소 그를 존경하던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건은 그다음 해부터 번갈아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마다 그 도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날 그때 쯤 되면 맑던 하늘도 컴컴하게 흐리고 음산하여져서 탐산골 능선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 언젠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올라갔던 청년 하나가 혈레벌떡 달려 내려오더니 ‘그 위엔 얼굴 없는 달갈귀신이 도사리고 앉아 있다’는 말을 마치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죽어버렸던 것이다. 그 후로 달갈도깨비, 달갈귀신에 홀린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 죽어갔으나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달갈귀신이 반드시 마누라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귀신이 된 도사가 생전에 부인을 몹시 그리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여튼 그 도사라고 불리던 노인이 사라진 후로 이 탐산골에 달갈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달갈귀신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지를 못하게 되자 탐산골 사람들은 날이 궂어 음산한 날이나 해가 진 후에는 아예 이 숲속을 지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루봉 황새명당 이야기]

조리읍 대원리 소재 용문산 최북단 북맥 별판 가운데로 우뚝 솟은 봉우리는 마치 큰 배 형체의 닷 같으며 뱃머리가 별판을 향하여 떠나가려는 형상이다. 옛날 이곳은 송림이 우거져 많은 학들이 깃들어 있었다 한다. 이 마을에 거주하던 김수로왕 후손 김태은 선조(先祖)는 어느 날 아침 학들이 소란을 피우며 왔다 갔다 날아드는 것을 유심히 살피니 큰 구렁이가 노송 위의 학 둥지에 있는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지라 이를 가련히 생각한 끝에 활을 급히 가지고 나와 구렁이를 쏘아 맞히니 워낙 대들보같이 크나 큰 구렁이는 소나무 가지가 찢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졌다. 순간 구렁이가 활을 쏜 사람에게 독을 뱉으

니 갑자기 몸 전신이 통통 부어 죽게 되었다. 학들이 날아와 이쪽저쪽 몸뚱이를 쪼며 독기를 뽑아내었으나 그는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되어 죽고 말았다. 그런데 발인할 즈음에 별안간 황새들이 몰려와 눈물을 흘리며 상여를 인도하고자 날아가다 앓고 날아가다 앓고 하여 기이하게 여긴 동리 사람들은 이들 학에 발을 맞춰 인도하는 데로 따라가니 바로 공능산 북맥 최단 두류봉 하서향의 아늑한 곳이었다. 이 지역은 한 마을에 사는 흥해 배씨의 종산으로서 문중에 논의 끝에 할 수 없이 이분의 묘를 쓰도록 양여하게 되었다 한다. 이리하여 그 자리에 땅을 파니 커다란 반석이 나와 그대로 묘를 쓰려 하였으나 너무나 광중 구덩이 심고가 얕아 이 반석을 곡괭이로 쪼아 헤치니 갑자기 주위에 안개가 자욱해지며 금붕어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장례를 지냈으나 그 후 현재까지 연달아 대대 자손들이 선천적으로 애꾸눈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자리를 학이 잡아준 무덤 또는 황새명당이라 부르고 있다.

[덕암산 가재골의 채동지 이야기]

조리면 덕암산 아래 가재골에 옛날 떠돌이 신세 채동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9척 장신으로 폭심이 많고 힘이 센 장사로서 미련하기가 소 같은 성품이며 한 끼에 한 말의 쌀을 먹어야 한다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처자식도 없고 재산과 집도 없어 여러 동리를 다니면서 걸식을 하며 힘든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다가 가재골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움푹이를 하며 살고 있었다 한다. 힘이 워낙 세고 미련하여 사람들이 밧줄로 머리를 동여매고 가운데다가 뼈기를 틀어넣어 비틀어도 심지어 인두로 지쳐도 화를 내는 일이 없으며 아픈 표정 없이 손으로 슬그머니 밀어제치며 웃어버리는 위인이었다. 그리하여 인근 사람들은 춘하추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덕암산 기슭 가재골에서 살다가 소식 없이 사라진 채동지를 정체를 알 수 없는 도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겨울에 눈이 올 때면 채동지가 살고 있던 주위는 눈이 내리는 즉시 녹아 없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 지역 조리면 오산리(梧山里) 명골에서는 지금도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있는데 이곳 산신은 특히 영험하여, 어느 날 백정 한 사람이 망태기 속에 산신제에 쓸 고기를 훔쳐 넣고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 도망할 수가 없어서 가진 애를 쓰다가 훔친 고기를 놓으니 발이 저절로 떨어졌다고 한다. 또 나무꾼이 이 산신당 근처에서 나무를 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역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갇은 고생 끝에 그 나무를 내려놓았더니 발이 그제야 떨어졌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사근절에 얽힌 이야기]

조리면 오산리 안동 권씨 종산 아래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아늑한 구릉지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곳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고려말 건립하였다는 아담한 절이 있었다는 절터이다. 이 골짜기를 절터골 또는 연못이 있어 연못제라 칭하기도 하였다 한다. 조선조 중엽 이 부락에 4대 독자인 박첨지(朴僉知)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5대 독자가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그의 며느리는 여자로 태어나 남의 가문의 대를 끊게 될 뿐 아니라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범하게 되었다며 자나 깨나 근심에 젖어 있었다. 그리하여 득남하기 위하여 절에서 백일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시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가사전폐하고 염불에 전념하였으나 못내 마땅치 않은 시부모님께 불효만을 가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어느덧 100일을 맞게 되었다. 지성껏 불공을 올리던 부인이 그간의 누적된 피로로 말미암아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이때 정숙한 몸가짐과 아름답게 빼어난 미모에 도취한 스님은 향시 연정을 느껴왔으나 불자의 몸으로 유부녀를 흠모하는 마음 자체도 커다란 죄악 인지라 감정을 억제하고 오던 중 오늘따라 곤하게 잠에 빠진 부인의 모습을 보니 선녀와도 같고 측은해 보이기도 하여 욕정에 복받친 중은 부인 곁으로 다가가서 겁탈하려고 하였다. 남편인 박씨가 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부인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염려가 되어 횃불을 들고 호신용으로 도끼를 가지고 절에 가서 보니 사찰 문에 비친 한 쌍의 그림자가 자기 부인과 중이 다정하게 열애를 하는 장면 같아 격분을 못 참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도끼를 마구 휘두르니 혼비백산 뒷산으로 도망치는 중놈을 쫓아가 도끼로 내려치니 바위 위에 피를 흘리면서 즉사하였다. 그 광경을 목격한 부인은 비록 남편의 오해로 인한 참사 일지라도 자기로 인하여 저질러진 비극으로 설상가상으로 불륜의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100일 치성도 물거품이 된 채 그 길로 절을 빠져나와 사찰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시체를 거두어보니 부인은 이미 임신 중이었고 남편의 순간적 오해에 의한 경거망동에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박씨 가문은 영원히 대가 끊어졌으며 박씨 일가족도 이 부락을 떠나고 말았다 한다. 당시 중이 참살당했다는 넓은 바위에는 검붉은 얼룩진 핏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부인이 몸을 던진 연못 주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은 날에는 한 많은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밤늦게는 다니지 못하였다 하며 사찰은 흉가로 변하여 방치된 채 풍우로 삭아 없어져버리니 그 후 이 마을을 사근절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방문에 검은 천이나 발 또는 병풍을 가리고 잠자는 습관이 생기어 전래되고 있는데 이는 문에 비친 그림자로 인하여 오해를 일으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절터 주변에서 기왓조각, 불기 등이 종종 출토되고 있으며 불상과 비석은 일제강점기 때 일병들이 발굴해서 가져갔다 하며 절터와 연못에는 잡초만이 우거져 있다.

[팔학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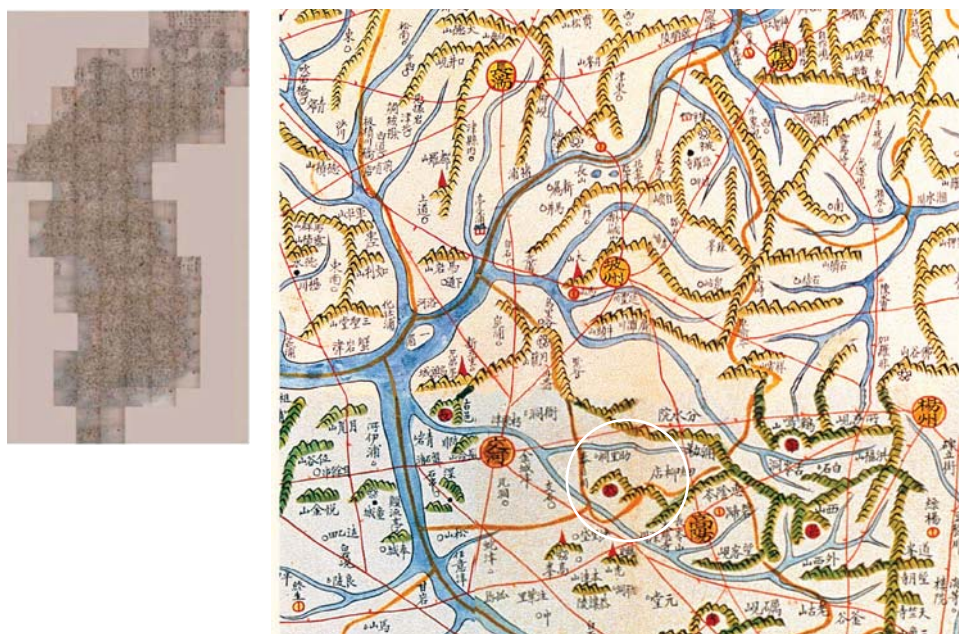
옛날 조리면 봉일천4리 산21번지 맑고 맑은 공능천이 흘러 고기배가 오르내리는 명봉산 서북맥 언덕 벼랑 위 산림이 우거진 한적한 산골짜기 산정에 김정국(金正國)이란 사람이 초당을 짓고 공부를 하였다. 선생의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 또는 팔여거사(八餘居士), 본관은 의성(義城), 연(璉)의 아들이며 안국(安國)의 아우이다.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서 1509년(중종 4) 별시문과에 급제 사가독서를 한 후 이조정랑, 사관, 승지 등을 거쳐 1518년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이듬해 중종 14년 홍경주, 남곤, 심정 등이 조광조가 경빈 박씨 후궁들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들과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케 한다는 무고를 퍼뜨려 능주로 유배 훈구파의 끈덕진 공격으로 성균관 유생들이 봉기 조광조를 신면할 것을 항소하는 기묘사화를 일으킬 당시 선생도 이에 연루되어 삭직 고향인 현 고양시 관산동 지영리로 내려와 학문에만 전념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선비들이 몰려들자 이곳 팔학골에 서당을 짓고 많은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그 후 1537년(중종 32) 복관되어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편민거폐(便民去弊)라는 시정책을 건의해 대부분 시행케 했으며 2년 후 병조, 공조, 참의를 역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자자하였다 한다. 이어 예조, 병조, 형조 참판을 지내고 중종 36년에 죽으니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에 안장 후 좌찬성에 추증 문목(文穆)으로 시호되었으며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 역대수승통지도(歷代授受承統之圖),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사제척언, 기묘당적(己卯黨籍)등을 편집한 유명한 문인이시다. 당시 김정국(金正國)을 비롯한 민순(閔純), 기준(奇遵), 남효온(南孝溫), 정지운(鄭之雲), 홍이상(洪履祥), 이신의(李愼儀), 이유겸(李有謙) 등 8현들이 이곳에서 수학을 하였으며 현 고양시 관산동 문봉리에 1688년(숙종 14) 후생들이 문봉서원을 세우고 1709년(숙종 35) 사액을 받아 이분들을 배향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을 지금까지 팔학곡(八學谷)이라 전하고 있다.

지도로 본 조리읍의 어제와 오늘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강사)

1. 조리(助里)에서 ‘조리(條里)’로

경기도 파주시의 남쪽에 위치한 조리읍(條里邑)은 동쪽으로는 광탄면, 북쪽으로는 월롱면, 서쪽으로 금촌동, 그리고 남쪽으로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과 접하고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보유편에 수록되어 있는 파주목의 방리(坊里)조에는 읍치로부터 남쪽으로 30리에 조리동면(條里洞面)이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동지지(大東地誌)』에도 “파주목 소속의 조리동면(助里洞面)은 남쪽으로 처음이 13리, 끝이 30리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리동면’ 지명은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철종 연간에 제작된 필사본 《동여도(東輿圖)》는 고산자 김정호(金



《동여도_奎10340》 전체 모습(좌)과 <파주목> 부분 확대(우)(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正浩)가 제작한 목판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유사한 내용이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여도》는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제작한 지도이거나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이후에 지리정보를 보충한 필사본일 가능성이 있다. 《대동여지도》와 같이 분첩절첩식으로 제작된 《동여도》는 총 23첩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는 세로 약 7m 정도의 전도이다. 12개의 지도표(地圖標)를 사용하여 지도에는 주현(州縣) 간의 도로와 산천 표시를 하고 주현, 파수(把守), 진보(鎭堡), 역도(驛道), 영진(營鎭), 목소(牧所), 봉수(烽燧), 능침(陵寢), 성(城), 창고,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각 군현의 방면(枋面)이 표시되어 있는데, 파주목 부분에 ‘조리동(助里洞)’이 표시되어 있다.

파주목의 방면인 ‘조리(助里)’ 지명은 《동여도》 이외에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양한 지도에서도 보인다. 그 가운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조선지도(朝鮮地圖)》는 조선후기 전라도를 제외한 7개 도(道)의 군현을 20리(里) 방안 위에 그린 채색 필사본의 군현지도집이다. 지도첩 1면에 1개 군현을 그리는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일부 고을은 한 면의 부분만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함경도 함흥, 충청도 충주, 경상도 안동의 경우와 같이 면적이 넓거나 비월지(飛越地)가 있는 고을은 두 면에 걸쳐 그리기도 하였다. 3책의 강원도와 7책의 경상도 목차 부분에 ‘비변사(備邊司)’라는 인기가 찍혀 있어, 조선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했던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이었던 비변사에서 이 지도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에 반영된 지리정보와 그 표현 방법은 모든 군현의 지도에서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산지는 八 표시를 중첩하여 그리고 그 위에 청록색으로 채색하였고, 하천은 겹선으로 표현되었으며 규모에 따라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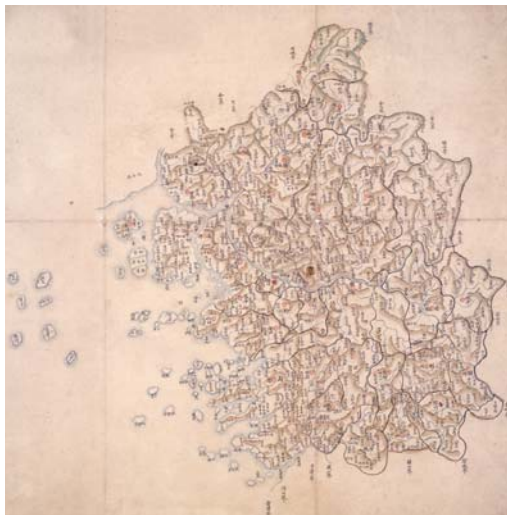


《조선지도_奎16030》의 〈파주〉 지도(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을 달리하여 본류와 지류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군현의 읍치와 감영·병영·수영, 찰방역, 진보(鎭堡), 봉수, 창고, 도로망 등을 중심으로 지리정보가 체계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읍치의 위치는 적색의 원으로 표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이웃 고을과 연결되는 주 도로망이 적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감영, 병영, 수영 등은 겹선의 사각형으로 표현하였고 일부 감영의 경우 청색으로 칠하고 여장(女牆) 표현도 하였다. 진보는 ‘◇’로, 찰방역은 읍치보다 작은 적색 원으로 표현하였다. 창고는 건물 모양으로, 봉수는 적색의 불꽃 모습으로 표시하였다. 비변사 인기 이외에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보았을 때 《조선지도》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에 반영된 지명을 바탕으로 《조선지도》는 1746년(영조 22)~1768년(영조 44)의 조선 사회의 지리정보 모습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목 지도에 반영된 조리읍은 ‘조리면(助里面)’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에는 조리읍의 한자가 ‘助里’가 아닌 ‘條里’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는 1776~1785년 사이에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필사본으로 제작되었으며, 조선후기 지리학자인 농포자 정상기(鄭尙驥)가 제작한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수정본 계열의 지도이다. 경기도-충청도-황해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평안도-강계-폐사군-함경남도-함경북도 총 10장의 지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도 지도는 세로 62.8cm, 가로 63.8cm로 10장의 지도를 모두 연결하면 약 350cm 안팎에 이르는 대형지도가 된다. 지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각 군현의 방면과 군현의 경계선까지 아주 자세하게 반영되어 있다.



《조선팔도지도_古4709-54》의 〈경기도〉 전체 모습(좌)과 파주목 부분 확대(우)(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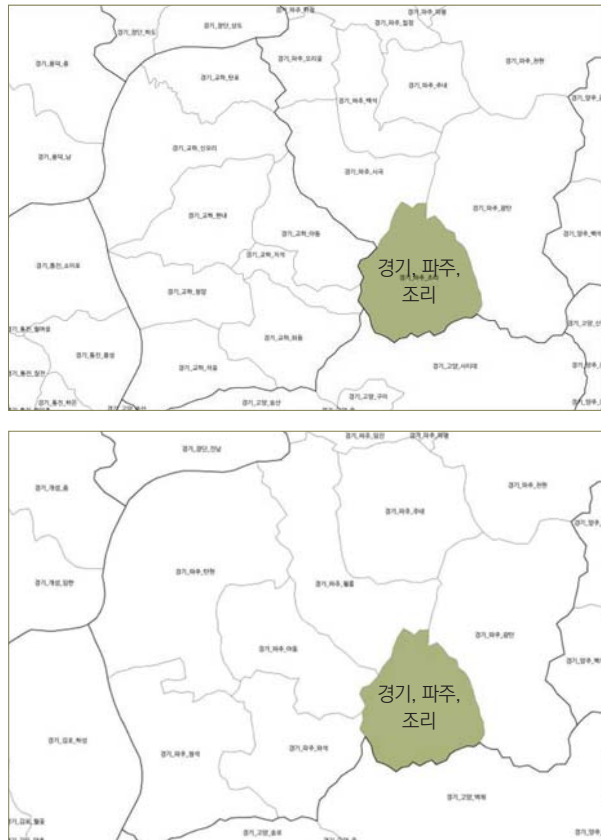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이외에 19세기에 편찬된 지리지에 수록된 파주지도에서 조리읍의 한자 표기법은 '條里'로 되어 있다. 1842년(헌종 8)에 경기도 34개 고을의 읍지를 4책으로 합철하여 편찬한 『경기지지(京畿誌)』는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 이후 보급된 읍지형식과 유사하다. 대부분 각 군현에는 [사계(四界),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성씨(姓氏), 산천(山川), 제언(堤堰), 토산(土產), 봉수(烽燧), 궁전(宮殿), 학교(學校), 서원(書院), 역원(驛院), 발참(撥站), 목장(牧場), 면리(面里), 불우(佛宇), 사묘(祠廟), 능묘(陵墓), 고적(古蹟), 명관(名官), 인물(人物), 제영(題詠), 진공(進貢), 장시(場市), 교량(橋梁), 민호(民戶), 전부(田賦), 군액(軍額), 조적(糶糴), 공해(公廩), 관방(關防), 형승(形勝)의 순서로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책 중 1책에 수록되어 있는 파주목의 면리조 항목에는 “조리동면(條里洞面)은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 위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경기지지_奎12178』의 〈파주목〉 지도(좌)와 파주목 지리지 방리조 부분(우)(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지지』 외에도 규장각에서 전국의 호수(戶數)와 인구수를 기록하여 1789년에 간행한 『호구총수(戶口總數)』, 1871년에 경기도의 35개 군현의 읍지를 합철하여 편찬한 『경기읍지(京畿邑誌)』와 1899

년 5월 전국읍지상송령에 의해 편찬된 경기도 파주군의 읍지인 『파주군읍지(坡州郡邑誌)』에도 조리읍은 '條里洞面'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조리읍은 '조리동면(助里洞面)·조리면(助里面)·조리동면(條里洞面)·조리면(條里面)'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리라는 지명은 나룻가지와 같이 후손이 번성하라는 의미에서 '가지 조(條)'자와 '마을 리(里)'자를 따서 만들어졌다는 유래¹⁾와 공릉산(恭陵山) 정상에서 사면으로 뻗은 가지(條) 모양의 산줄기를 따라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전해진다.²⁾



조선시대(상)와 일제강점기(하) 조리읍 지역 면(面) 변동 모습³⁾

1)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진한엠앤비, 2015

2) 파주문화원, 『파주의 지명유래와 전설』, 2005

3) 공간 영역의 기본도는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1910년대)를 사용하여, 이 공간 영역 위에 전국적 범위의 면 정보가 있는 『여지도서』(1757~1765), 『호구총수』(1789), 『대동지지』(1861~1866), 『민정통계표』(1910),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을 활용하여 각 시기의 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사용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교하군의 아동면 등원리·아동리, 지석면의 상지석리, 고양군의 사리대면 설문리·지영리 일부를 통폐합하여 죽원리·뇌조리·오산리·장곡리·봉일천리·등원리 등 6개 리로 개편하고 봉일천리를 면 소재지로 하여 조리면이 설치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1일 군조례 제1252호에 의거 교하면의 상지석을 능안리로 개칭하며 편입하였는데, 아래 그림에서 조리읍 왼쪽 돌출된 지역이다. 2000년 6월 12일에 조리읍 관할 죽원리가 대원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1년 대원4리와 대원5리를 신설, 수도권의 시역 확장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2년 4월 1일 조리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조리읍의 면적은 27.42km²이며, 인구는 32,615명(2016년 기준, 통계청 자료)이다. 뇌조리·능안리·대안리·등원리·봉일천리·오산리·장곡리 7개의 법정리와 이에 소속된 28개의 행정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조리읍의 모습⁴⁾

4) 본 지도는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현재의 조리읍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2. 조리읍의 하천 공릉천(恭陵川)=봉일천(奉日川)

공릉천(恭陵川)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발원하여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를 흐르는 하천으로, 조선 제8대 임금 예종(睿宗) 비 장순왕후(章順王后)의 능인 공릉이 파주시 조리읍에 들어선 후 공릉천(恭陵川)으로 불리게 되었다. 공릉천의 유로 연장은 45.7km이고 유역 면적은 253.1km²이다. 1965년 3월 1일 지방 2급 하천에 지정되었다.⁵⁾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목 산천조에는 ‘보신천(寶信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주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양주 홍복산에서 나와서 교하현 학당포(學堂浦)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공릉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양군 산천조에서는 군 동쪽 5리 지점에 양주 홍복산에서 나와 교하현 학당포로 들어가는 하천을 가둔천(街頓川)이라 하였다. 그리고 『파주군지』에는 보시천(普施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양시 지역에서는 기쁘내 또는 심천이라 하고, 파주시 지역에서는 봉일천이라고 하며, 양주시 송추계곡 아래에서는 서산천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공릉천은 예로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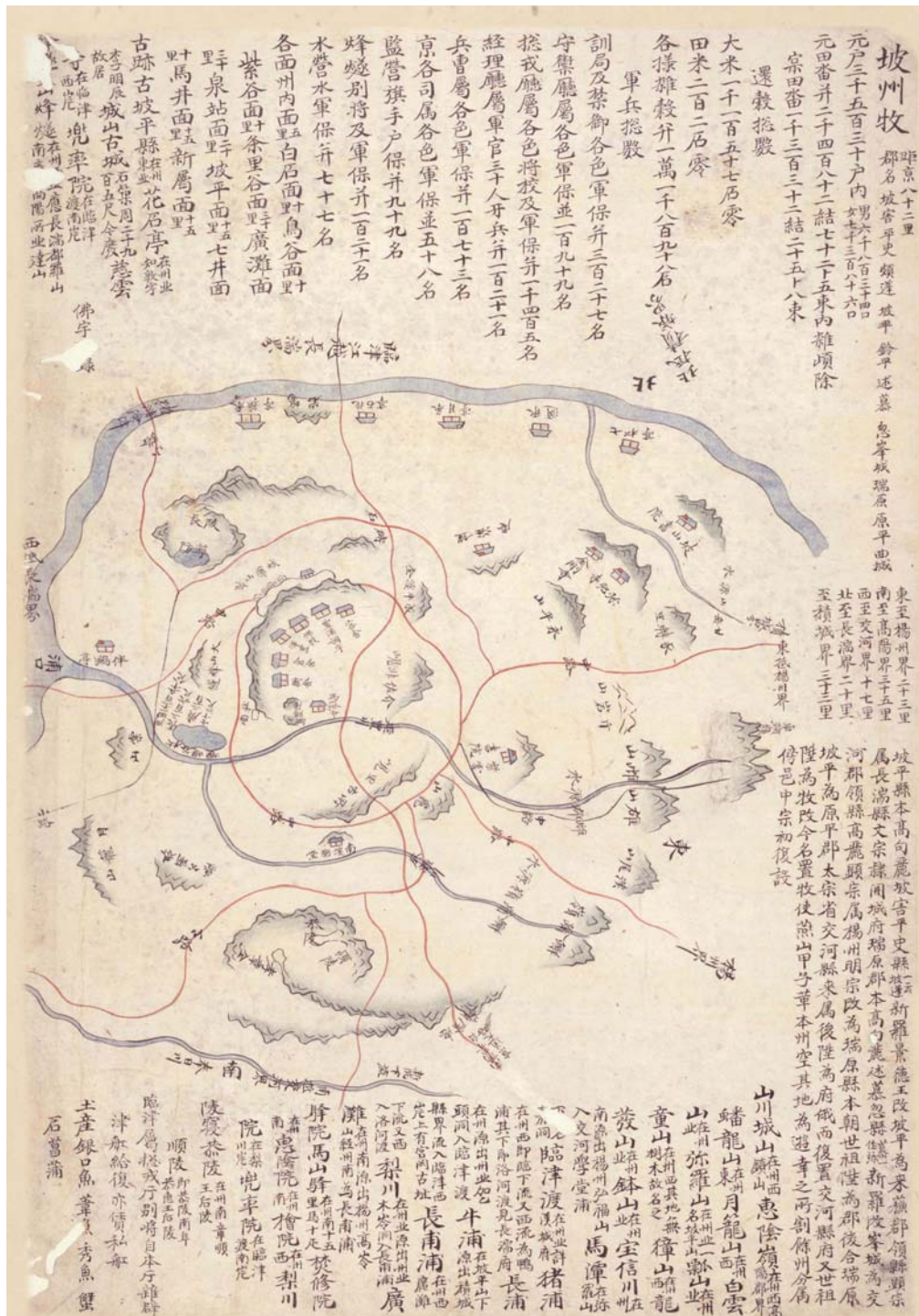
《해동지도(海東地圖)》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다. 이 지도집에는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뿐만 아니라 세계지도(〈천하도〉), 외국지도(〈중국도〉, 〈황성도〉, 〈북경궁궐도〉, 〈왜국지도〉, 〈유구지도〉), 관방지도(〈요계관방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현지도 여백에는 호구, 전결, 곡물, 군병, 진치연혁, 산천, 면명, 고적, 역원, 서원, 불우, 토산 등의 항목과, 방위를 표시하는 방면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집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관찬 지도집이다. 《해동지도》에 수록된 〈파주목〉 지도에는 공릉(恭陵) 남쪽으로 흐르는 봉일천(奉日川)이 표시되어 있으며, 지도 상단 여백에 기록된 군면(各面)에는 조리읍이 ‘조리곡면(條里谷面)’으로 표기되어 있다.

《해동지도》 외에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여지도_古4709-68》, 《광여도_古4790-58》, 《지승_奎15423》 등의 회화식 군현지도집과 방안식 군현지도집인 《조선지도_奎16030》의 파주목 지도 ‘봉일천’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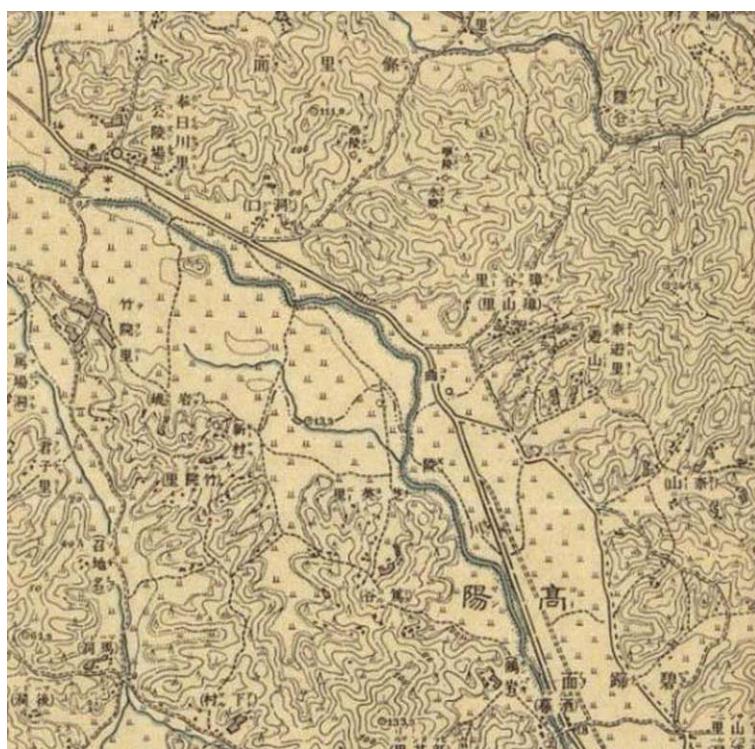
공릉천은 곡릉천(曲陵川), 곡릉천(谷陵川)으로도 불렸으며, 향토문화전자대전에 따르면 곡릉천(曲陵川)은 일제강점기의 지명 잔재이자 오류로 판명되어⁶⁾ 공식 명칭이 공릉천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곡

5) 향토문화전자대전

6)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해동지도_古大4709-41》에 수록된 《파주목》 지도(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50,000만 근대지형도 <고양> 도엽(상)과 조리면, 곡릉천 부분 확대(하)(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공룡천의 모습
(자료: 파주시, 『파주시지』 9
사진자료집, 파주시, 2009)



공룡저수지 전경(자료: 파주시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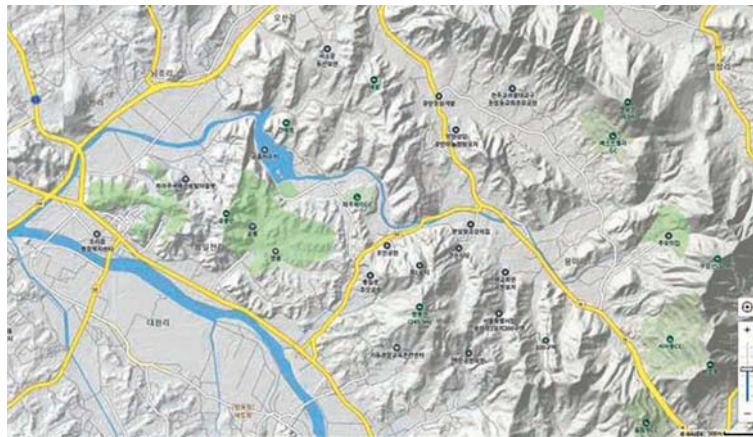
릉천(曲陵川)’이라는 한자 표기는 1919년(대정 8)에 인쇄·발행된 1:50,000만 근대지형도 <고양> 도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군 조리면과 고양군 경계를 따라 흐르는 하천에 ‘曲陵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예로부터 한강하구 삼각주가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파주시는 수도권 최대의 철새도래지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강과 임진강 주변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철새들의 낙원은 ‘실락원’이 되기 시작했으며, 가장 먼저 철새의 낙원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은 곡릉천의 오염이었다.⁷⁾ 그러나 그 이후 곡릉천의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리읍 장곡로에 1966년 준공된 만수면적 35만 7천㎡ 공룡저수지 또한 그 이후 낚시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공룡저수지를 찾았고, 이로 인해 저수지 오염이 심각했다. 1999년 1월 6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공룡저수지의 생태공원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는 공룡유원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삼릉과 같은 산책로와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7) 『한겨레』, 1997년 9월 18일자 25면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삼릉(三陵)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한 삼릉(三陵)은 조선시대의 공릉(恭陵)과 순릉(順陵) 및 영릉(永陵)을 통칭한 능호(陵號)이다. 즉, 삼릉은 조선시대 예종의 원비(元妃) 장순왕후 한씨(章順王后韓氏)의 능인 공릉,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한씨(恭惠王后韓氏)의 능인 순릉, 영조의 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眞宗으로 추존)와 비 효순왕후 조씨(孝純王后趙氏)의 능인 영릉을 뜻한다.



파주삼릉의 지리적 위치(자료: 네이버 지도)

이 가운데 장순왕후와 공혜왕후는 한명회(韓明澮)의 딸로, 혼인 전에는 자매지간이었지만 왕실에서는 숙모와 조카며느리가 되는 사이였다. 자매가 왕비에 오른 예는 조선왕조 역사에 없었던 일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시 한명회의 권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명회는 두 번이나 왕실의 장인이어서 권세를 누렸지만, 그의 딸들은 어린 나이에 모두 세상을 떠났다. 공릉에 잠든 장순왕후는 왕세자빈일 때 원손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순릉에 잠든 공혜왕후는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5년 만에 열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⁸⁾ 조선시대 사대문 안에서 조리읍 삼릉까지 오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서 구파발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었고, 그 고개의 이름은 ‘박석고개’이다. 동쪽에 높은 북한산이 위치한 데 반해, 서쪽은 낮은 구릉성 산지가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다. 그리고 박석고개를 분수령으로 남쪽은 연신내와 불광천이 낮은 저지를 만들고, 북쪽으

8)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홈페이지

로는 창릉천(昌陵川)이 흘러 평야를 이룬다. ‘박석고개’라는 지명은 이 근처에 궁실의 전답이 있어 궁전(宮田)에 나가는 사람들이 흙을 밟지 않게 하려고 돌을 깔았던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것과 이 고개가 서오릉(西五陵)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에 위치한 까닭에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맥(地脈)이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박석을 깔았던 데서 박석고개라 하게 되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두 가지 설 모두 불확실하나 돌이 박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⁹⁾ 박석고개는 서울에서 연결되는, 동시에 서울로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만큼 서울로 들어오고 나가는 행인은 물론 상인과 관료, 중국 사신들도 반드시 넘어야 했던 고개였던 동시에 파주삼릉의 장례행렬이 지나갔던 곳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 삼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여지도(輿地圖)』는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지도책으로, 1권에는 세계지도, 중국지도, 북경과 한양도성도, 전도를 포함한 6장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2권에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조선 도별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에는 중국의 지방을 행정구역 별로 나눈 16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그 구성이 일반 도별도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지도책의 제작시기는 수원에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顯陵園)이 표시되어 있고 수원부(水原府)의 치소가 옮겨진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경기도 시흥(始興)으로 바뀌기 전 지명인 금천(衿川)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1789~1795년 사이에 조선사회의 모습과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지도』의 2책에 수록되어 있는 <경기도> 지도는 산지를 청색으로, 하천을 푸른색으로 채색한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각 군현(郡縣)은 직사각형으로, 군사시설인 진보(鎭堡)는 작은 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황색의 정사각형 안에 ‘경(京)’을 표기하고 붉은색으로 이중의 테두리가 그려져 다른 군현의 표현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각 군현을 연결하는 도로가 붉은색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군현 사이에 작은 붉은 색의 작은 사각형은 역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1800년 이후 제작된 지도라면 현 구리시의 육능(六陵) 표시가 칠능(七陵)으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육능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영조가 승하하기 이전의 지도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서울로부터 북서쪽으로 연결된 붉은색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고양(高陽)을 지나 파주(坡州)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사이 서쪽 산줄기 아래로 삼릉인 ‘영릉·공릉·순릉’이 표기되어 있다.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는 경기도 38개 군현, 충청도 54개 군현, 평안도 42개 군현을 3책으로 엮은 지도책으로, 20리 방안 위에 일정한 축척을 반영하여 각 군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도의 제작시기는 지도에 표현된 지리정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선지도_圭16030》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746(영조 22)~1768년(영조 44)이다. 두 지도에는 모두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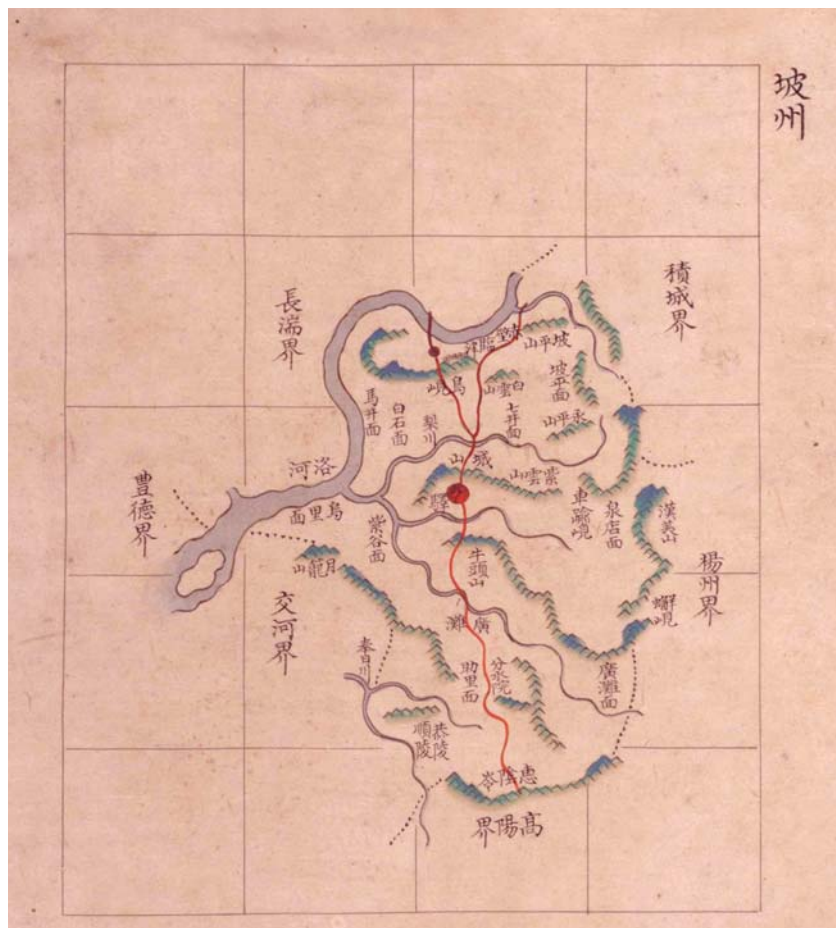
9)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여지도_古4709-78』에 수록된 〈경기도〉 지도(상)과 삼릉 부분 확대(하)(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世子)와 그의 비 효순왕후 조씨(孝純王后趙氏)의 능인 영릉(永陵)은 아직 지도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공릉과 순릉이 표기되어 있다.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목판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능(陵)’을 표시하는 붉은 색 원 안에 ‘공(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약속한 기호로 지리정보를 표시하였고, 조리읍의 삼릉은 ‘공릉’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릉을 감싸고 있는 산줄기의 모습과 그 앞을 흐르는 봉일천은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시대 풍수적 지리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팔도군현지도_古4709-111》의 〈파주〉 지도



《대동여지도》¹⁰⁾의 12층과 13층 부분 확대도(자료: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10)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목판본 《대동여지도》로, 표제명은 '해좌여도(海左輿圖)'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 예종왕비(장순왕후)의 공릉(자료: 파주삼릉관리소)



공릉 근경(자료: 파주삼릉관리소)



조선 성종왕비(공혜왕후)의 순릉(자료: 파주삼릉관리소)



순릉 근경(자료: 파주삼릉관리소)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의 영릉(자료: 파주삼릉관리소)



영릉 근경(자료: 파주삼릉관리소)

4. 조리읍의 읍 소재지 봉일천리(奉日川里)

조리읍의 중심 소재지인 봉일천리(奉日川里)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일부와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 일부를 병합하여 봉일천리라 칭하였다. 그리고 마을에는 한강 권역의 한강 수계에 속하는 공릉천이 흐르고 있어, 해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물난리를 겪게 되자 비를 멈추고 해가 뜨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의미로 ‘봉일천리’라는 지명을 붙였다 한다. 조리읍사무소 소재지인 봉일천리의 지리적 위치는 남쪽으로는 조리읍 대원리, 서쪽으로는 능안리, 북쪽으로는 뇌조리, 동쪽으로는 광탄면 용미리와 접하여 있으며 통일로가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다.

조선시대 서울에서부터 조리읍에 위치한 영릉(永陵)까지 정조(正朝)의 행행(行幸)이 있었다면, 일제강점기 때는 이곳에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파주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0일 와석면 교하리(지금의 교하동)에서 임명애(林明愛)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청석면(지금의 교하동)과 광탄면의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광탄면에서는 파주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되었다. 심상각(沈相恪)을 비롯한 김웅권(金雄權)·권중환(權重煥)·심의봉(沈宜鳳)·이근영(李根永)·이종구(李宗九)·유영(柳瑛) 등 19인 동지회는 3월 27일 공릉장(지금의 봉일천시장)의 장날을 기하여 파주군과 인접한 고양군 일부를 포함한 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날 조리·아동·월릉·광탄·교하 등지에서 모여든 5,000여 명의 군중은 조리읍사무소와 헌병 주재소를 포위하고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일제 헌병과 경찰 들의 무차별 발포에 박원선(朴元善)·노동식(魯東植) 등 6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였다.¹¹⁾ 그리고 이를 기리기 위해 1978년 3월 1일에 파주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비의 뒷면에는 파주지



파주 3·1운동 기념비(자료: 파주시청 홈페이지)



1959년 조리면사무소의 모습
(자료: 『파주시지』에 수록된 사진 인용)

11) 두산백과

역의 3.1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 옆에는 건립 취지를 새긴 비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봉일천리의 교육기관인 파주봉일천초등학교는 1920년 5월 1일 봉일천 보통학교로 설립하여, 1966년 10월 16일 뇌조 분교장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969년 3월 2일 뇌조 분교장이 덕암국민학교로 승격, 1987년 3월 1일 병설유치원 1학급이 편성되었고, 1996년 봉일천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그 이후 조리읍에는 1984년에 공립중학교로 봉일천중학교가, 2007년 봉일천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5. 문화·교통의 중심지이자 요충지인 조리읍의 미래

조리읍은 세계유네스코가 지정한 조선시대 왕릉인 삼릉이 자리 잡고 있으며, 100년 전 공릉장터에서 시작된 3.1운동은 파주시 독립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근대 이후 건설된 국도 1호선인 통일로와 국지도 56호선, 78호선, 그리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어 현재는 경기도 서북지역 교통의 중심지이다. 그리고 1953년부터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던 캠프 하우스가 2007년 반환되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조리읍의 지리적 위치와 교통, 그리고 조선시대의 역사성과 분단과 함께 한 근대 이후 이 지역의 장소성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조리읍은 우리 후손들에게 매우 소중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역사적·지리적 위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조리읍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성의 변화

고영창(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좌측에 통일로, 마을 가운데로 공릉천이 흐르고, 통일로와 공릉천 사이로 남북으로 길게 읍 소재지 봉일천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에는 대원리와 농안리 마을이 보인다. (자료: 네이버 지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탈산업화 과정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농촌지역, 특히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권의 비약적인 확대와 더불어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전통문화와 민속에 있어 이전 세대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격렬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인구이동상의 특징이다.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이 지역도 다른 농촌지역과 함께 변화를 겪었으며, 이를 자본주의적 경제주의, 상업농업, 기술농업, 개방형 공동체문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시근교 농촌은 이런 농촌이 갖는 일반적인 변화와 함께 이곳만이 갖는 또 다른 변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불과 30km 이내에 위치하며 고양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조리읍은 통일로가 남북으로, 56번 국지도가 동서로 가로지르며, 동시에 78번 국지도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통일로와 나란히 공릉천이 흐르고 이를 경계로 읍 소재지인 봉일천리를 비롯하여 장곡리, 오산리, 뇌조리, 등원리가 동북부에, 대원리와 농안리가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¹⁾는 31,151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읍 소재지 봉일천리와 이웃 마을 대원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리읍 전체의 80.93%인 25,211명이 거주하고 있어, 다른 5개 법정리들과 편차가 무척 크다. 봉일천리가 전체의 44.42% 13,840명 대원리가 전체의 36.54% 11,371명, 장곡리가 전체의 5.58% 1,729명,

1)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오산리가 전체의 4.18% 1,305명, 등원리가 전체의 4.06% 1,265명, 뇌조리가 2.68% 835명, 능안리가 2.55% 796명으로 조사되어 서울 등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근교 농촌의 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72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현재의 통일로는 비포장 2차선 도로로서 군사적인 목적 외에는 일반차량과 민간인의 왕래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문산 방면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간혹 서울로 오갔을 뿐이었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임진각에서 구파발까지 왕복 4차선 도로가 포장·개통되었다. 하지만 이런 도로 개통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변화의 징후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상황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 농업이 주를 이루고, 그 외 소규모 식료품(된장, 고추장)·제지·연탄제조업이 가동되었던 이곳에 1980년대 중반부터 섬유·화학·기계공장 등이 새마을공장 형태로 들어서면서 초기 산업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일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몰려왔다.

여기에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확대되어 서울사람들의 출입이 잦아지고 서울과의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시골사람들의 서울인들이 또한 많아져 이곳에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 지하철 3호선이 1985년에 개통, 구파발 이북지역과의 시간상의 거리가 대폭 축소되면서 서울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울 주변 도시들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택지 개발과 도로·교통체계의 대폭 개선은 이 지역의 인구 구성, 산업구조 그리고 지역경관 변화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였다. 여기에 고령화 사회의 도래, 인근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거주비용, 은퇴세대들의 유입으로 인한 외지인 가구의 증가,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구의 증가로 마을의 인적 구성도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지인과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 정주(定住)의식, 인적 네트워크 차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성격과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리읍 인구의 80% 이상이 봉일천리와 대원리에 집중되어 있기에 이곳을 중심으로 ‘변화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인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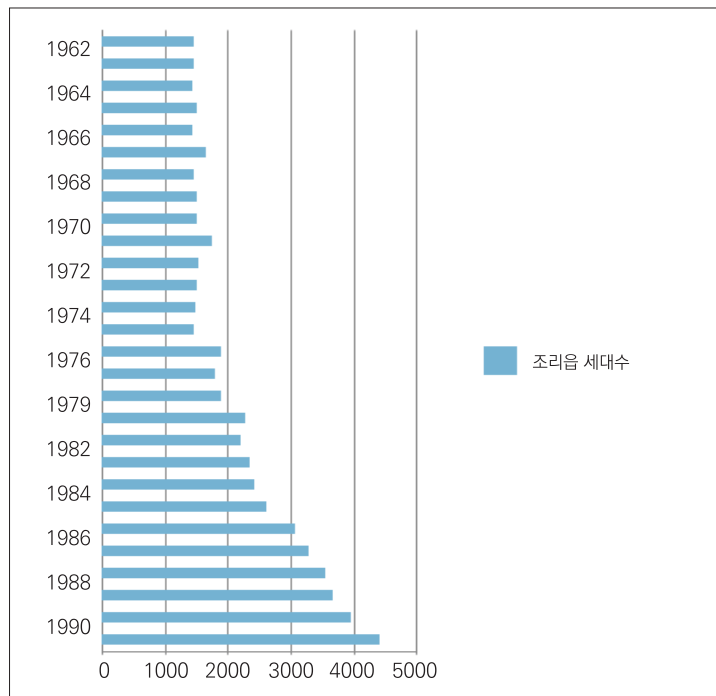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인구규모 자체의 증가와 지역 간 많은 인구가

동으로 인구현상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였다. 도시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농촌인구는 감소하였다. 농촌인구의 구조는 출산과 사망수준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도시로의 전출에 따른 인구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별 인구는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자연생리적인 요인보다도 사회적 요인인 이동(移動)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경험한 인구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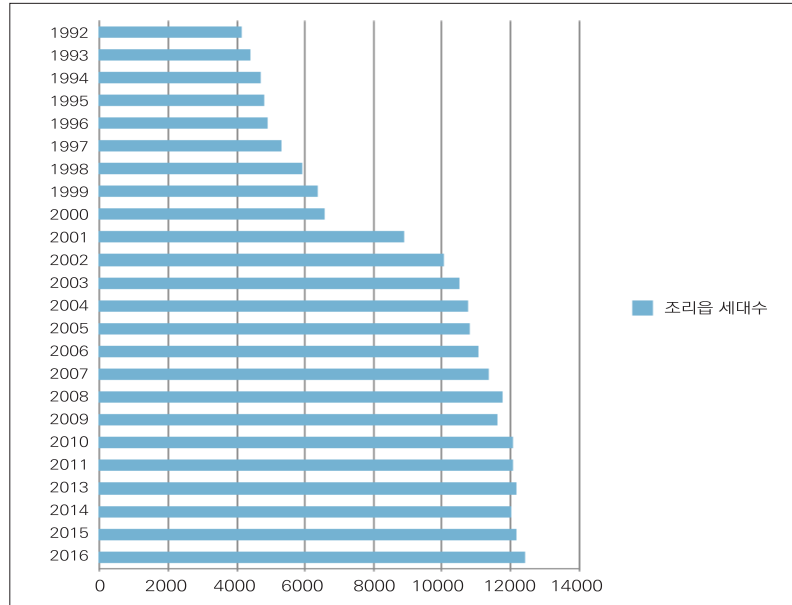
농촌사회에서는 주로 젊은 연령계층에서 이동이 많으며, 남자보다 도시에서 단순직이나 서비스직의 취업이 쉬운 여성들이 먼저 도시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농촌의 인구 구조는 20~40세 인구가 희박하고 5~19세의 청소년층과 50세 이후의 노년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20세 전후의 연령계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도시의 인구 구조는 농촌과 반대로 청장년층의 인구가 비대한 반면에 5~19세 청소년인구와 50세 이후의 노년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20세 전후에서 여성인구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당시 한국사회 일반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위와 같은 인구현상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인구이동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 그림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조리읍의 세대 및 인구 동향이다.

조리읍 세대수 변화(1962~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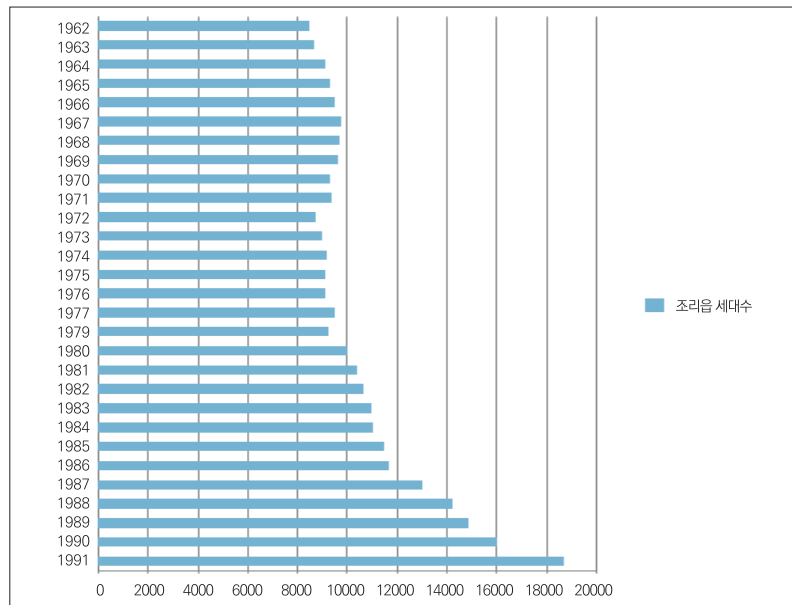


조리읍 세대수 변화(1992~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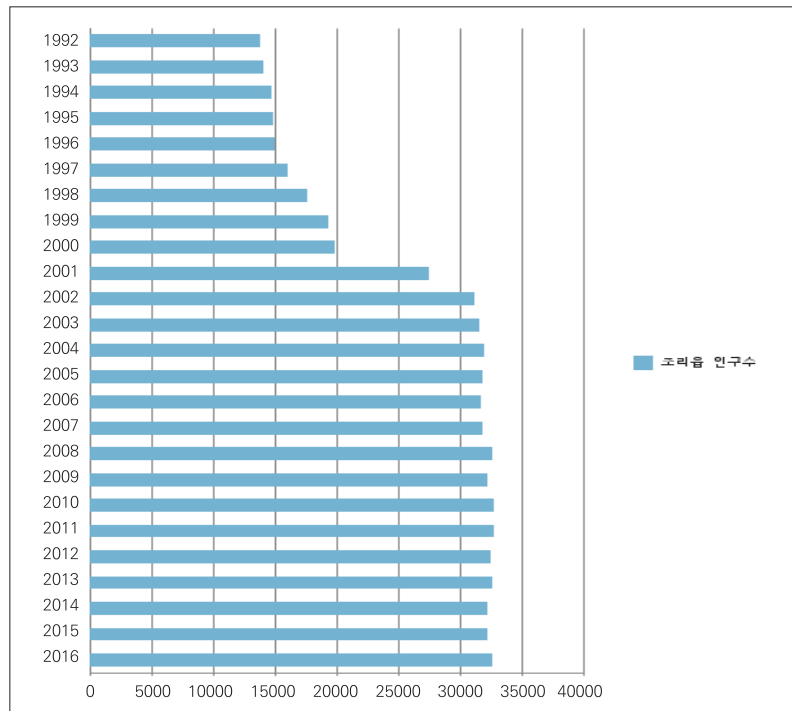
주: 1) 1962~2016년 파주시 통계연보 참고, 2) 단위: 연도/세대수

조리읍 인구변화(1962~1991년)



주: 1) 1962~2016년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2) 단위: 연도/명(名)

조리읍 인구변화(1992~2016년)



주: 1) 1962~2016년 파주시 통계연보 참고, 2) 단위: 연도/명(名)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던 1960~1970년대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세대수나 인구수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1962년 1,450세대에서 1970년 1,517세대, 1979년 1,885세대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루었다. 인구수에 있어서도 1962년 8,475명에서 1965년 9,132명, 1970년 9,322명, 1975년 9,144명, 1979년 9,291명으로 중간중간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이것 역시 세대수의 변화와 함께 완만한 증가세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출이나 전입과 같은 사회적 이동으로 증가한 것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그 이후 1975년 1,461세대에서 1991년 4,421세대로 불과 16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의 증가를 하였으며, 1992년 4,159세대에서 2016년 12,466세대로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세대수가 약 3배의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다. 인구수에 있어서도 1960년대 초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이루다가 1972년과 1973년 소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9년 9,291명에서 1980년에는 10,020명으로 최초로 10,000명대를 돌파하였고, 1986년 11,723명에서 그 이듬해인 1987년에는 13,035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0년 19,805명, 2001년 27,549명, 2002년 31,180명으로 불과 2년 사이에

11,375명이 증가하여 무려 1.6배의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다.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자연적인 인구가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으로 결국 대규모 전입이나 전출이라는 사회적인 인구가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린 시기로 전 세계 경제호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도 경제가 크게 확장하여 모든 것이 세계화·글로벌화(globalization) 되어가던 시기였다.

이처럼 조리읍은 시기별로 두 번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이전의 완만한 증가와는 전혀 다른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내외적 정치·경제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인구와 세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 농촌의 기능이 변하여,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거나 공장 전입에 따른 산업지역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보다 세대수의 증가폭이 큰 것은 농업중심이던 원주민의 경우 자녀들의 독립과 노부모의 잔류에 따른 전형적인 농촌인구의 변화와 함께 도시나 주변 지역에서 소규모 가구의 전입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198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교리면에 속해 있던 상지석3리가 조리면 능안리로 개칭과 동시에 편입된 것도 한몫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초까지 순수농촌지역이었던 이곳은 1972년 통일로가 확장·개통된 이후 1970년대 중후반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과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서울 시내에 있던 공해업소의 이전, 서울과의 도로확충, 개인 컴퓨터의 보급과 TV 및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구 수와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제 이 지역은 더는 순수농촌지역이 아닌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에 더하여 점점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이 심화·확대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다음의 표는 현재 조리읍의 연령별 인구 구성표이다. 이를 살펴보면 20~39세의 인구가 전체의 23.48%로 공업지역이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이 이 기간에 전입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구조가 청장년층이 두터운 도시형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공업단지의 조성이나 신시가지의 건설이 이루어졌을 때, 직업의 이동이나 신주거지로의 이주 등의 이유로 전입하는 인구가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40~59세 인구가 35.1%로 타 연령대에 비해 무척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는 이 지역이 순수 농촌지역에서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으로, 나아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리읍 연령(5세 계급) 및 성별 인구 구성비 및 성비

연령(세)	인구			성비
	남자(%)	여자(%)	계(%)	
0~4	493(3.1)	464(3.01)	957(3.03)	106
5~9	611(3.87)	629(4.08)	1,240(3.93)	97
10~14	688(4.36)	718(4.66)	1,406(4.46)	96
15~19	999(6.33)	953(6.19)	1,952(6.19)	105
20~24	1,197(7.59)	1,020(6.62)	2,217(7.03)	117
25~29	922(5.84)	778(5.05)	1,700(5.22)	119
30~34	801(5.08)	693(4.50)	1,494(4.74)	116
35~39	1,037(6.57)	953(6.19)	1,990(6.31)	109
40~44	1,106(7.01)	1,068(6.94)	2,174(6.89)	104
45~49	1,490(9.45)	1,473(9.57)	2,963(9.40)	101
50~54	1,578(10.00)	1,374(8.93)	2,952(9.36)	115
55~59	1,549(9.82)	1,402(9.11)	2,951(9.36)	110
60~64	1,097(6.95)	1,074(6.98)	2,171(7.84)	102
65~69	722(4.57)	783(5.08)	1,505(4.77)	92
70~74	550(3.48)	652(4.23)	1,202(3.81)	84
75~79	521(3.30)	626(4.06)	1,147(3.63)	83
80~84	264(1.67)	407(2.64)	671(2.12)	65
85~89	93(0.58)	207(1.34)	300(0.92)	45
90~94	34(0.21)	87(0.56)	121(0.38)	39
95~99	10(0.06)	17(0.11)	27(0.08)	59
100세 이상	4(0.02)	7(0.045)	11(0.03)	57
합계	15,766명(50.03%)	15,385명(48.82%)	31,511명	

주: 1)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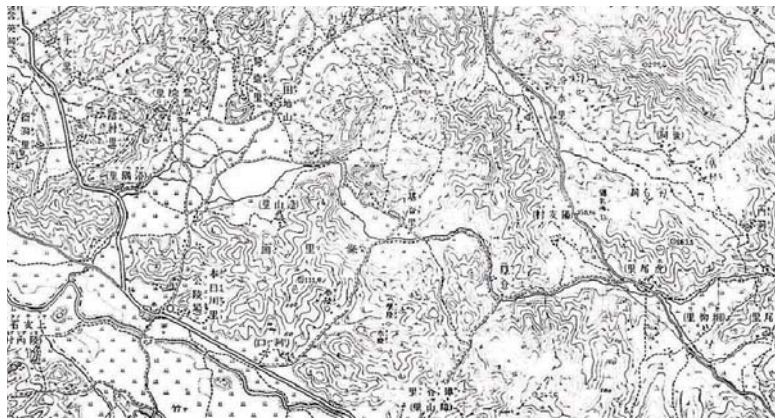
2) () 내의 숫자는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3) 2017년 12월 기준, 파주시 통계연보 참고

4) 단위: 명(名)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시절에서 농업과 다른 직업의 겸업이 늘어나고,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 농경지가 주거지역이나 공장용지로 용도 변환되는 등 농촌의 기능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거나 공장 전입에 따른 산업지역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변화의 양상과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조리를 인구의 8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봉일천리와 대원리를 중심으로 각 리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봉일천리와 장곡리



강점기 수치지형도. 공릉천과 의주로가 나란히 지나가고, 봉일천리와 그 주변 지역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1916년 제작. 1/15,000)

통일로 주변으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봉일천리는 현재 대원리, 능안리, 장곡리, 등원리, 뇌조리, 오산리와 함께 조리읍 7개의 법정리 중 한 곳이며, 10개의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조리읍의 실질적인 행정, 금융, 교육, 서비스 산업의 1차 중심지이다.

파주시의 관문으로 조선시대 사행로(使行路)였던 의주대로가, 지금은 통일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56번 지방도가 동서(東西)로 지나가 조리읍을 동서남북으로 사분(四分)시켜놓고 있다. 이러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조리읍에서 가장 용이하다는 점이 지금의 봉일천리를 형성·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전쟁 이후 최근까지 미군이 주둔하였다는 점도 이곳이 갖는 또 하나의 특수성이다.

교통의 수월함으로 예로부터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일찍부터 개장(開場)되고 번창하였다. 특히 공릉장이라고 일컫는 봉일천장은 일찍이 『만기요람』에 기록

될 정도로 번창했던 장시(場市)였다.

봉일천의 장시는 특히 영조와 관련이 깊은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가 공릉·순릉·영릉 삼릉을 행행(行幸)하면서 입구가 공허하여 동구 밖에 장시를 개설하여 능침의 공허함을 방어하게 하고, 그 장세를 취하여 장민의 민생을 지원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32년)”는 글을 통해 봉일천장 개장(開場)의 연유를 짐작하게 한다. 그 위치는 현재 봉일천리 파주삼릉 입구 주거지 부근으로 예전부터 능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봉일천장²⁾은 한강 하구로 빠져나가는 공릉천변에 입지해 교통이 특히 유리하였다.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해로(海路)는 육로운송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물자를 실은 배의 왕래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물산과 인구가 풍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유통이 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전부터 조리읍 다른 법정리들 중에서 이곳은 농가인구에 비해 비농가인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앞서 기술한 대로 198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가구와 인구 동향을 살펴보자.



1번 국도와 56번과 98번 지방도가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조리읍의 모습(자료: 네이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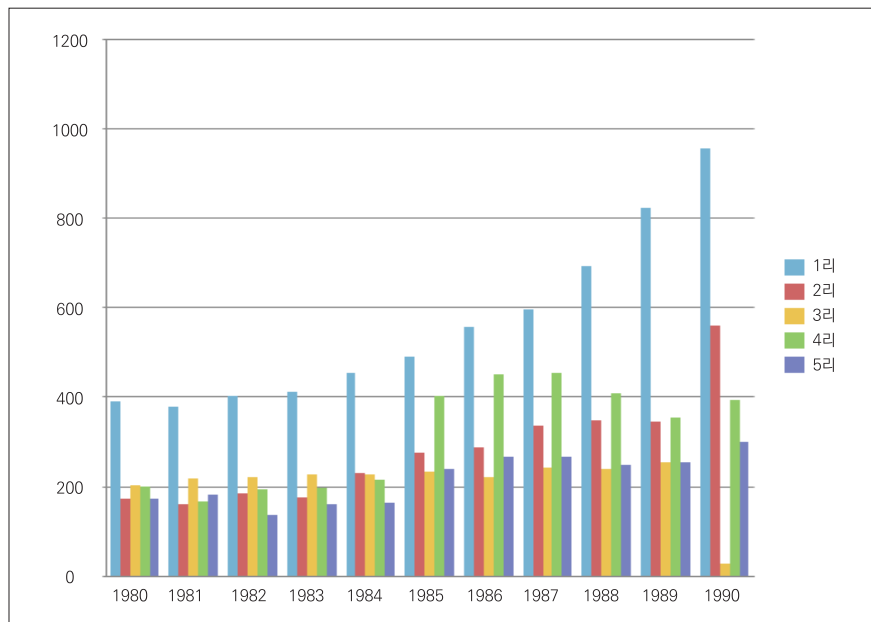
2)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원비 정순왕후 한씨의 능인 공릉이 있어서 공릉장으로 불렸으며, 조선 후기 영조 때 문헌인 『동국문헌비고』(1770)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장이다. 2일과 7일로 끝나는 날에 장이 서는 전통 5일장이다.

봉일천리 가구수 변화(1980~1990년)

연도\리별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980	389	172	202	200	171					
1981	378	160	216	166	180					
1982	400	183	219	194	134					
1983	411	176	225	197	159					
1984	453	230	226	214	163					
1985	489	274	232	401	237					
1986	554	286	221	448	264					
1987	593	334	242	452	264					
1988	690	348	239	408	248					
1989	821	345	253	353	252					
1990	953	559	26	393	299					

주: 1)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2) 단위: 연도/명(名)

봉일천리 가구수의 변화(1980~1990년)



주: 1) 단위: 명(名, 세로축)/연도(가로축),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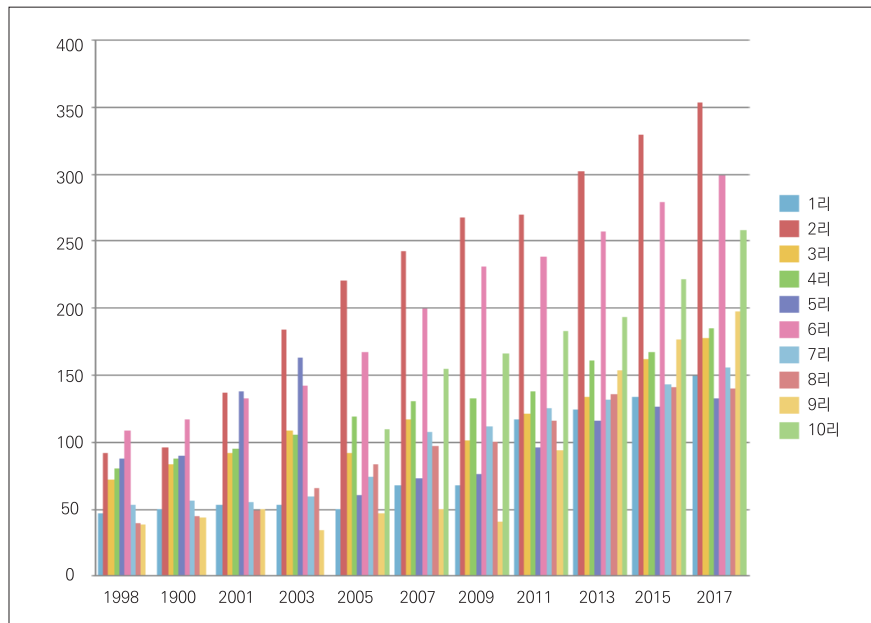


봉일천리 가구수의 변화(1998~2017년)

연도\리별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998	46	91	72	80	87	108	53	39	38	
1999	50	96	83	87	89	116	56	44	43	
2001	53	136	91	95	137	132	55	48	50	
2003	53	183	108	105	162	142	59	65	34	
2005	50	220	91	119	60	167	74	83	46	109
2007	67	242	116	130	73	199	107	97	49	154
2009	67	267	101	132	76	231	111	100	40	166
2011	117	269	121	137	96	238	125	115	93	182
2013	124	302	133	160	115	257	131	135	153	193
2015	133	329	161	167	126	279	143	141	176	221
2017	149	353	177	184	132	298	155	139	197	258

주: 1) 단위: 명(名),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봉일천리 가구수의 변화(1998~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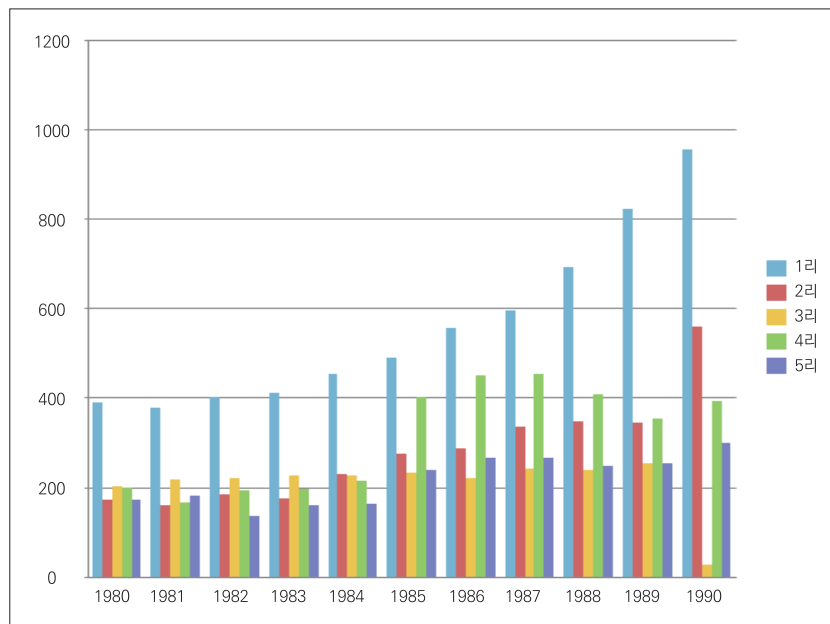
주: 1) 단위: 세대수(세로축)/연도(가로축),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봉일천리 인구수 변화(1980~1990년)

연도\리별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980	1,652	733	816	906	752					
1981	1,765	764	907	944	732					
1982	1,796	807	970	1,035	627					
1983	1,832	811	982	1,089	705					
1984	1,855	956	934	1,104	744					
1985	2,038	1,059	874	1,013	917					
1986	2,272	1,224	962	1,274	988					
1987	2,410	1,410	965	1,412	1,058					
1988	2,689	1,423	983	1,436	1,060					
1989	3,085	1,427	1,008	1,477	1,081					
1990	3,772	2,154	984	1,727	1,271					

주: 1) 단위: 명(名),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봉일천리 인구수 변화(1980~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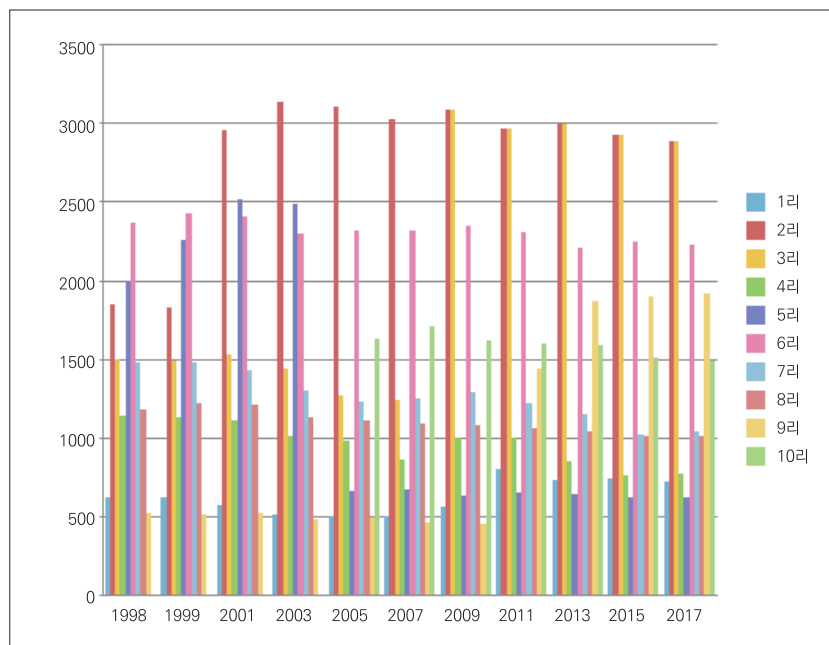
주: 1) 단위: 명(名, 세로축)/연도(가로축),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봉일천리 인구수 변화(1998~2017년)

연도\리별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1998	625	1,843	1,499	1,138	1,981	2,364	1,476	1,183	523	
1999	619	1,829	1,489	1,133	2,252	2,423	1,475	1,223	510	
2001	568	2,954	1,527	1,105	2,514	2,408	1,426	1,208	519	
2003	510	3,134	1,435	1,011	2,479	2,295	1,294	1,132	485	
2005	505	3,098	1,270	984	664	2,318	1,225	1,106	487	1,624
2007	505	3,018	1,234	862	669	2,314	1,248	1,089	464	1,708
2009	563	3,084	3,084	998	629	2,342	1,285	1,083	456	1,619
2011	802	2,965	2,965	996	646	2,305	1,218	1,055	1,437	1,602
2013	734	2,990	2,990	851	643	2,208	1,148	1,036	1,870	1,583
2015	740	2,918	2,918	760	619	2,245	1,018	1,013	1,900	1,511
2017	724	2,881	2,881	768	621	2,226	1,035	1,011	1,918	1,489

주: 1) 단위: 명(名),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봉일천리 인구수 변화(1998~2017년)



주: 1) 단위: 명(名, 세로축)/연도(가로축),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198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세대 및 인구에 있어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에 통일로 주변으로 많은 중소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서울 등 대도시의 부동산 폭등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하고, 서울 등 대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이곳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전입하여 처음 4리에서 5리 체제로, 그리고 지금의 10리 체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즉, 중소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면 새로운 ‘리(里)’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다수 외지인들이며, 연령대도 젊은 층들이다. 이들은 주로 주변 산업시설에 종사하거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다.

조리읍 내 주요 아파트(2018년 12월 현재)

아파트명	소재지	세대수	준공일자
무궁화	봉일천	130	1988.11
프린스	봉일천	80	1989.10
동원	봉일천	90	1990.11
미림	봉일천	187	1991.10
윤창	봉일천	18	1993. 9
태영미림	봉일천	142	1993.05
동문1차	봉일천	118	1996.11
성원	봉일천	347	1997.05
동문2차	봉일천	49	1998.06
성호	봉일천	282	1998.06
한라비발디	대원리	1202	2000.06
그린시티동문	대원리	1759	2000.10
대우푸르지오	봉일천	450	2010.04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봉일천	490	2018.02
송촌토파즈	봉일천	552	1998.08
태양	봉일천	39	1993.05

또 하나 이곳 봉일천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4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과 부대 정문 앞에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어 전국 각지 출신 직업여성들이 모여들었으며, 주변보다 훨씬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세를 살았다는 점이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조용한 농촌사회를 전혀 새로운 성격의 마을로 변화시켰다.

몇 가구 정도 웅기종기 모여 살았던 한적한 마을에 부대 주변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주택의 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세를 들어 살아야 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무척 비싼 집세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미군부대 주변에 살다가 미군부대가 이동해 오자 뒤따라온 경우이거나,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이주해 오는 경우 등 주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따라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부대 주변에서 주로 세탁소·이발소·옷가게·신발가게나 영문서류나 편지를 대필해주는 소위 '오피스'나 클럽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고용되었으며, 부대 내에서 잡부나 보조, 클럽종업원, PX 판매보조원, 식당종업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다. 이같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직업은 주로 외지인들이 맡았지만, 가끔 농사만 짓던 지역원주민 중에서도 마을의 변화에 따라 전업(轉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창 성황기인 1960~1970년대까지 4리의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상황에도 이곳 조리읍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직업여성의 수는 150~200명 내외였는데, 이는 4리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4리는 1980년대 중반까지 1리를 제외한 다른 행정리들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군부대 잔류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미 제2사단 공병여단이 주둔하였던 캠프 하우스(Camp Howze)는 2007년 우리 측에 완전 반환되어, 지금은 파주시에서 테마공원 및 주거·문화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³⁾

약 2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현재 체육공원만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군들이 사용하던 건물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흉물스럽고 위태롭기조차 하다. 부대 앞 옛 기지촌과 미군 전용 클럽들은 대다수 문을 닫았으며, 단지 3~4개 클럽만이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인 대상으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듯하다. 골목마다 줄지어 있던 주점이나 숙박시설들은 대부분 빈 건물로 허물어져가고 있으며, 대낮에도 오가는 이는 이곳 주민 몇 분 빼고는 거의 없다. 이곳은 주민들조차 조리읍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라고 한다. 한때 온종일 흥청거리며, 불야성을 이루었던 시절이 있거나 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듯하였다. 현대사(現代史)의 아픔은 이곳 뒷골목에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다.

3) 최근 캠프 하우스 건물을 리모델링해 파주시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조성사업'이 2018년 경기도가 진행한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2018, 경기퍼스트'의 대규모 사업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캠프 하우스 건물 6동을 예술, 문화, 교육, 숙박 활동이 가능한 평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05억원을 들여 2021년 6월까지 평화 랜드마크로 꾸밀 계획으로 있다.



옛 미군기지 캠프 하우스 내에 조성된 축구장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안내 게시판



부지 내 조성된 엄마 품 동산 안내문



엄마 품 동산 내에 설치된 조형물



미군이 떠나고 난 후 비어 있는 옛 기지 건물들. 풀과 넝쿨들만 무성히 자라고 있다.



옛 미군기지 경비 초소 건물

파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이곳에 거주하던 직업여성의 연령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연령 연도	18~19	20~24	25~29	30~34	35~39	40세 이상	총인원(명)
1963	-	53	49	51	2	-	109
1964	-	58	53	31	3	-	127
1965	-	88	60	30	4	-	182
1966	-	63	65	25	1	-	154
1967	2	86	67	8	3	-	162
1968	-	43	46	15	2	-	106
1969	-	27	42	11	2	-	82
1970	1	12	25	16	15	2	71
1971	-	67	24	7	8	3	109
1972	-	92	90	8	3	2	195
1973	-	84	42	21	35	9	191
1974	-	-	-	-	-	-	220
1975	10	26	48	43	16	-	143
1976	5	27	60	43	33	4	172
1977	10	31	17	2	6	12	78
1979	5	49	39	9	2	-	104
1980	13	36	44	20	5	4	122
1981	-	64	55	21	9	2	151

주: 1) 1963~1981년 파주시 통계자료 참고

2) 1974년도에는 총인원만 기록되어 있음

3) 1982년 이후부터는 직업여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음

이곳 봉일천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문산 선유리 기지촌의 모습을 다룬 르포 기사를 통해 당시 봉일천 4리의 모습을 그려보자

… 대개 미군이 출입하는 옆의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클럽 뒤편에 여러 개의 방을 지닌 집이 있다. 1평 내지 2평 정도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베니어판으로 칸막이한 것으로 조그마한 소리도 다 들린다. 클럽에 고용된 아가씨들이 살면서 밤에 손님을 받는 곳이다.



봉일천4리 주택 건물. 당시 극심한 주택난을 짐작하게



당시 술집과 여관은 현재 굳게 문이 닫혀 있다.(봉일천4리)



봉일전4리의 현재 모습. 3~4군데 클럽들은 지금도 동남아 근로자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보통 포주인 집주인이 하루 2끼 형편없는 식사를 아가씨들에게 제공하고 10만원을 받는다 (장사가 잘되는 지역은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방값으로 받는다).⁴⁾ 클럽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여기서 거주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포주와 직업여성 사이의 수탈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다.⁵⁾

앞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수치는 파주시 통계자료라는 공식 자료에 나타난 수치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곳에서 거주하며 미군을 상대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1969년도까지 출신 지역을 조사한 결과 북한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주 출신도 조사되어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북한지역 출신의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전쟁의 아픈 자화상을 보는 듯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1970년대 이 지역의 성비를 살펴보아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1.5:1로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지역의 특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봉일천리와 인접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광탄면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장곡리가 있다. 다음 표는 1980~1990년 그리고 1998~2017년까지의 장곡리 가구 및 인구수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장곡리는 한국전쟁 당시 휴전회담 장소가 개성에서 현재의 판문점이 있는 장단군 진서면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군당국의 소개(疎開)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면서 3리가 생겨났다. 1990년대 말까지 3개의 리들 중 가장 많은 세대와 인구가 거주하였던 3리는 1998년을 고비로 점차 세대와 인구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당 인원수도 1980년 4.15명에서, 1990년 3.81명, 1998년 2.83명, 2010년 2.04명, 2017년에는 1.6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3리에 거주하던 피난민 1세대는 거의 돌아가시고,⁶⁾ 2세대들은 타지로 전출을 많이 하였으며, 남아 있는 세대는 대부분 고령화된 부모님 세대들이었다. 이들마저 돌아가시면 많은 주택이 공가(空家) 상태로 남아 급속한 폐가의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장곡1·2리에는 많은 공장들이 마을 깊숙이 들어와 있다. 세대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모두 외지인들로서 이곳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추정된다.

4) "... 한때에는 더 이상 집 지을 공간이 없어 '방값이 서울 명동보다 비싸다' 하던 기지촌..."(『박태순의 분단기행 3: 우울한 기지촌 마을 선유리』, 『말』, 1990년 3월호, 129쪽) 조리읍도 문산 선유리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기에 선유리에 관한 르포 기사를 참고하였다.

5) 『기지촌 매매춘 여성: 소외된 삶의 여성』, 『말』, 1988, 107~112쪽 참조.

6) 이번 장곡3리 마을은 현장조사에서 김○○(1940년생)님은 "이제 이 마을에 피난 1세대는 우리 둘밖에 없어..."라고 증언할 정도로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장곡1리		장곡2리		장곡3리		소계(가구)	소계(인구)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1980	81	395	60	356	109	453	250	1,204
1981	78	210	59	150	130	269	267	1,221
1982	83	423	57	297	109	485	247	1,205
1983	85	412	60	290	114	443	259	1,145
1984	89	440	67	301	111	496	267	1,237
1985	88	370	86	361	116	475	290	1,206
1986	90	441	95	356	131	529	316	1,326
1987	90	469	97	385	147	627	334	1,491
1988	98	505	103	405	159	644	360	1,554
1989	100	529	110	451	162	657	372	1,637
1990	99	534	116	517	194	740	409	1,791
1991	.	.	.	.	.	.	.	.
1992	.	.	.	.	.	.	.	.
1993	.	.	.	.	.	.	.	.
1994	.	.	.	.	.	.	.	.
1995	.	.	.	.	.	.	.	.
1996	.	.	.	.	.	.	.	.
1997	.	.	.	.	.	.	.	.
1998	146	460	119	382	160	453	425	1,295
1999	150	462	125	380	152	444	427	1,286
2000	155	482	137	397	157	433	450	1,312
2001	167	483	140	397	145	397	452	1,277
2002	185	518	190	534	143	383	518	1,435
2003	187	516	202	558	146	382	535	1,456
2004	199	530	201	548	167	431	567	1,509
2005	209	529	204	543	174	417	587	1,489
2006	223	532	208	542	178	381	609	1,455
2007	266	578	225	539	164	389	655	1,506
2008	266	595	205	541	191	392	662	1,528
2009	271	629	206	529	181	371	658	1,529
2010	267	627	211	501	190	389	668	1,517
2011	251	596	226	533	145	280	622	1,409
2012	.	.	.	.	.	.	.	.
2013	251	587	295	712	138	261	684	1,560
2014	265	578	343	845	118	206	726	1,629
2015	278	586	405	973	125	214	808	1,773
2016	.	.	.	.	.	.	.	.
2017	317	645	407	938	97	156	821	1,789

주: 1) 단위: 연도(세로축)/세대수/인구수 명(名)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현재 장곡3리에 생존해 계시는 대표적인 피난 1세대 권○○(1939년생)님과 김○○(1940년생)님. 피난살이를 포함, 오늘날까지의 마을과 개인 삶의 역정에 대해 장곡3리 마을회관에서 설명하고 계신다.

2) 대원리와 능안리

처음에는 3리 체제였다가 2000년대 이후 중소규모 아파트 건설과 서울지역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인근 도시민의 대규모 이전과 서울, 고양 등 대도시 공장들의 이전에 따라 세대 및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진행되어, 현재의 6리 체제를 갖추었다.

전체적으로 낮은 구릉을 끼고 1~3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4~6리는 넓은 평지에 대단지 아파트 형태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마을의 앞면에는 공릉천을 사이에 두고 커다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대전들’이 완만하게 펼쳐져 있다. 이 농경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지정리가 이루어질 정도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모든 경지가 정리되어 반듯반듯한 바둑판 모양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1~3리는 예전부터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1980년대 초까지는 많은 원주민들이 거주하여,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이 남아 있어 ‘우리 마을’이라는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금도 1·2리 나이 드신 주민들은 마을 노인정을 함께 사용하며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하고 있다.



1. 옛날 산제사를 모시던 곳으로 추천되는 뒷고개. 지금은 전승의 맥이 끊어졌다.
2. 벽돌이나 도강⁷⁾을 만들던 공장 터. 한때 4~5개 공장이 성업 중이었지만 지금은 굴뚝 2기만 남아 옛날을 기억하게 한다.
3. 대원3리. 대원1·2리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마을. 1970~1980년대 참외 농사를 대단위로 지었고, 한창때는 원두막이 80여 개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4. 대원5·6리. 벽돌공장 터를 인수한 동문건설에서 2000년 초 부동산 열풍을 등에 업고 건설·분양하여 많은 도시민이 이주하여 새로운 동네가 생겼다. 이들은 원주민들과 전혀 왕래가 없는 그들만의 생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지는 아주 낮은 구릉의 사면을 따라 대부분 동쪽을 바라보며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 구릉의 정상에는 대원2리와 경계가 되는 마을 안길이 있는데, 승용차가 다닐 정도의 포장도로이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은 대원1리, 서쪽은 대원2리로 나누어진다. 마을 앞으로는 봉일천과 멀리는 고양시와 금촌 및 운정 신도시 외곽이 보일 정도로 넓은 ‘뜰’이 마을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과 뜰의 경계선을 따라 마을버스가 다닐 정도의 비교적 큰 마을 안길이 나 있다. 이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800미터 정도 내려가면 ‘승학골’로 불리는 대원3리가 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대원5·6리가 있으며 봉일천에서 고양시로 이어지는 도로를 경계로 대원1·2리 북쪽에 대원4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 4~6리는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1~3리와는 별개의 마을인 양 도시의 아파트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마치 별판에 홀로 서 있는 성채처럼 버티고 서 있다. 1~3리와 4~6리 주민들의 왕래는 거의 없으며, 아파트 입주주민들만의 마을을 형성·운영하고 있다.

7) 일본식 건설현장 은어로 ‘토관(土管)’을 일컫는 말. 주로 굴뚝, 배수관 등으로 사용



현재 농안리의 모습. 마을 전체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예전 마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단지역으로 변하였다. 지금도 계속해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공릉천변의 넓은 충적지와 나지막한 구릉의 경계에 자연마을을 형성한 대원1·2·3리의 모습⁸⁾

8) 자료: 네이버 사진 항공뷰

대원리의 도로체계는 대원1리와 2리를 연결하는 마을 뒷길과 3리와 연결되는 마을 안길이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고 이 사이에 자그마한 골목길이 연결되어 있다. 마을의 간선도로는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으로 비교적 정리가 잘되어 있으며 마을 전체의 도로체계는 그물망 형식으로 연결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특히 마을 앞길은 대원3리 방향으로 사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어 통과하는 차량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과 입주업체의 지원금으로 마을 외곽에 길을 만들어 외부 차량은 이 길로 우회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제하였다고 한다.

한편 1978년 경지정리사업 당시 농로도 대폭 확장·보수하여 대다수 모든 경지는 연결되어 있다. 당시의 농로의 상태가 비포장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포장된 4m 폭의 도로이기 때문에 농기계나 차량의 통행이 무척 자유롭다.

다음의 표는 대원리의 인구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대	인구	남자	여자	0~14	15~29	30~39	40~49	50~64	65세 이상
1리	418	984	522	462	99	181	108	149	285	162
2리	124	269	139	130	16	32	34	30	96	61
3리	153	320	169	151	39	38	52	42	96	53
4리	1,341	3,961	1,940	2,021	507	838	422	709	909	576
5리	634	1,874	925	949	294	378	218	342	410	232
6리	1,298	3,963	1,926	2,037	512	804	455	609	928	655

주: 1) 2017년 12월 31일 현재 파주시 통계연감 참고, 2) 단위: 명(名)

대원리의 인구 구성에서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는 20대와 30대의 청·장년층 비율이 다른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원리 전체 인구 11,371명 중 3,560명으로 전체의 31.3%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 지역이 서울이나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대도시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소규모 사업체가 많이 입주하고 있어 비교적 취업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원주민들의 이농(離農)이 줄어들고 젊은 외지인들이 많이 전입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도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등이 속속 건설되고, 분양되는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곳도 1970년대까지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청장년층들의 이농이 이루어져 전체 인구의 소폭 감소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근 대도시 공장들의 이전과 부동산 폭등이라는 사회적 요인으로 이곳의 인구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인구 유동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지인의 전입과 전출이 아주 심하다. 이는 첫째, 대도시의 근교지역에 위치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제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입주업체들은 대개 10~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원주민을 고용하기보다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과 같이 입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의 전입과 전출이 활발하다. 둘째, 통일로 주변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땅값이 의외로 높다. 1리 이장인 배○○씨에 따르면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평당 100만원을 훌쩍 넘어 200만~300만원 가까이 한다고 한다.⁹⁾ 따라서 외지인이 전입해서 토지를 사고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토지가 농사나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리고 옛날과 달리 주민들의 전·출입 상황을 이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에 전입 또는 전출 시에는 마을 이장에게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져 마을 입장에서 누가, 언제, 어디로 전출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셋째, 서울과 인근의 고양시의 전·월세 값이 폭등하여 비교적 집값을 포함한 주거비가 싼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단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4~6리의 아파트 거주민들 대다수는 이런 유형이거나 은퇴세대들이 한적한 자연환경을 선택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본다. 특히 5·6리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가 입주한 경우는 전체의 50%도 안 된다고 한다. 대부분 전·월세로 사는 분들이 많다. 서울 등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용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하여 출퇴근하는 세대가 많다.

또한 이들은 비록 같은 마을에 살지만 원주민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으며, 단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무척 강하다.

현 대원리의 인구 구성 및 구조는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유형에서 도시성향의 인구 구조로 급속히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앞서도 살펴본 대로 농촌인구에서는 볼 수 없는 청장년층의 비대와 이 연령층에서의 성비의 급상승은 가족의 이주보다는 근로자 개인의 일시적 또는 정착 이전의 선행적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서 살펴본 이웃마을 봉일천리와 같이 점차 산업화나 주거지로의 기능 변화에 따라 과거 농촌형의 인구 구조에서 도시형의 인구 구조로의 변화를 지금보다 더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능안리는 1989년 조리읍으로 행정구역을 이전함과 동시에 명칭을 상지석3리에서 지금의 능안리로 바꿨다.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 업무 등 행정서비스를 받기 가까운 조리읍으로 이전을 추진한 결과였다. 이전 첫해인 1989년 101세대에 39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2004년까지 380세대에

9) 논인 경우에는 평당 40~45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1,035명을 정점으로 세대와 주민수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능안리의 세대 및 인구수는 361세대 694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인구가 많았던 2004년과 비교하면 세대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주민수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 지역 원주민들은 거의 타지로 이전을 하고 공장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공장 노동자의 유입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능안리는 예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을 골목길을 따라 구석구석 가구, 문구 등 영세 소규모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한 번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3) 등원리, 오산리, 뇌조리

56번 지방도를 따라 등원리, 오산리, 뇌조리가 서로 이웃하고 있다.



1. 금촌 방향
 2. 문산 방향(56번 지방도)
 3. 뇌조리
 4. 등원리와 오산리
- (자료: 네이버 항공뷰)

1980년 이전까지 인구수에 있어 등원리, 오산리, 뇌조리 순이었다. 1982년 등원리와 뇌조리 인구는 감소를 했지만 오산리는 가파른 증가를 보인다. 이는 이때부터 오산리 일원에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개별적으로 부지를 구해 마을 안길을 따라 산 쪽으로 입주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현재 오산리 중소산업단지 형성의 시초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부터 오산리는 인구와 세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반면 등원리의 경우 1982년 잠시 주춤하는 듯하다가 1983년부터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19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그 증가폭은 점점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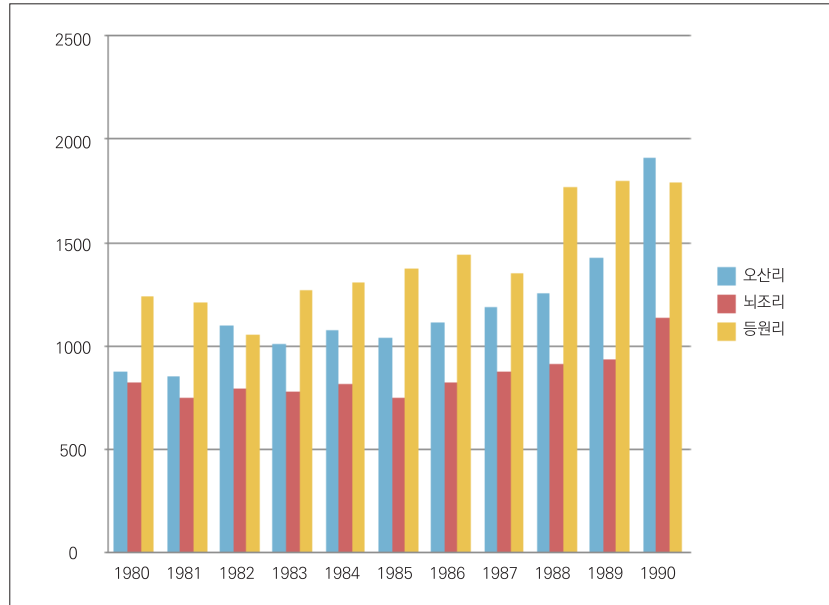


1. 뇌조1리 마을회관
2. 장곡저수지. 뇌조리와 등원리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훨씬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다.(1964년 건설)
3. 고산천
4. 화훼단지가 들어서 있다.
5. 오산리 일대

뇌조리는 1987년도까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1988년도부터 증가의 폭을 넓히다가 급기야 1989년 935명에서 1990년 1,129명으로 매우 가파른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표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등원리, 오산리, 뇌조리 인구 동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산리의 인구수 증가가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다. 오산리 마을 뒷산에 서울 모 교회¹⁰⁾의 기도원이 생기고, 이와 관련한 여러 종교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10) 여의도 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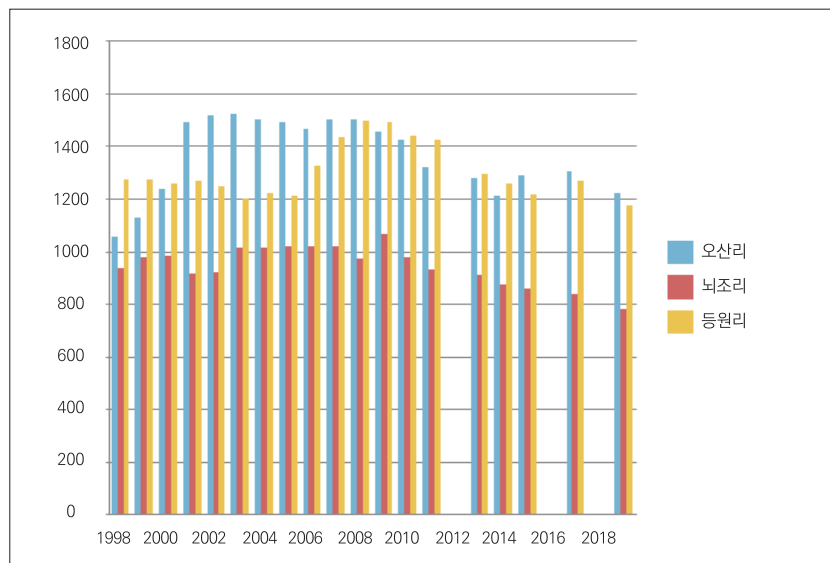


주: 1) 단위: 명(名)(세로축)/연도(가로축)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연도\마을명	오산리(명)	뇌조리(명)	등원리(명)
1980	871	821	1,235
1981	848	749	1,210
1982	1,092	789	1,051
1983	1,009	775	1,268
1984	1,071	814	1,304
1985	1,038	749	1,369
1986	1,112	818	1,435
1987	1,184	872	1,351
1988	1,252	913	1,763
1989	1,421	935	1,797
1990	1,908	1,129	1,785

주: 1) 단위: 명(名)(가로축)/연도(세로축)
2)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조용하고 한적하던 뇌조2리의 경우 1990년대부터 오산리가 겪었던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많은 공장들이 마을길을 따라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뒷산¹¹⁾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받아 대대로 농사를 짓고, 마시고 생활하였던 연안 이씨 집성촌¹²⁾은 급격히 전통마을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원주민들은 타지로 이주하거나 돌아가고, 그 빈 곳을 외지인과 공장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2000년대를 들어서 2000년 후반까지 오산리의 인구 및 세대수 성장 변화가 가장 활발한 가운데 뇌조리도 동반하여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오산리에는 출판업종을 주종으로 하는 오산산업단지가 마을 건너편에 새롭게 조성되었으며, 뇌조리에도 20여 개 규모로 여러 군데 나뉘어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도 2000년 후반을 정점으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어 2019년 6월 현재 오산리 1,219명, 등원리 1,176명, 뇌조리 781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때를 기준으로 더 이상 이 지역이 인구 유입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인근 봉일천리와 금촌, 그리고 교하 및 운정 신도시의 도시적 환경과 교통체계 및 수단의 발달로 이곳에 거주를 피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공장들과 대규모 종교시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시설들은 계속해서 들어설 것이라 예상된다.¹³⁾



주: 1) 1998-2019년 파주시 통계연보 참조, 2) 단위: 연도/명(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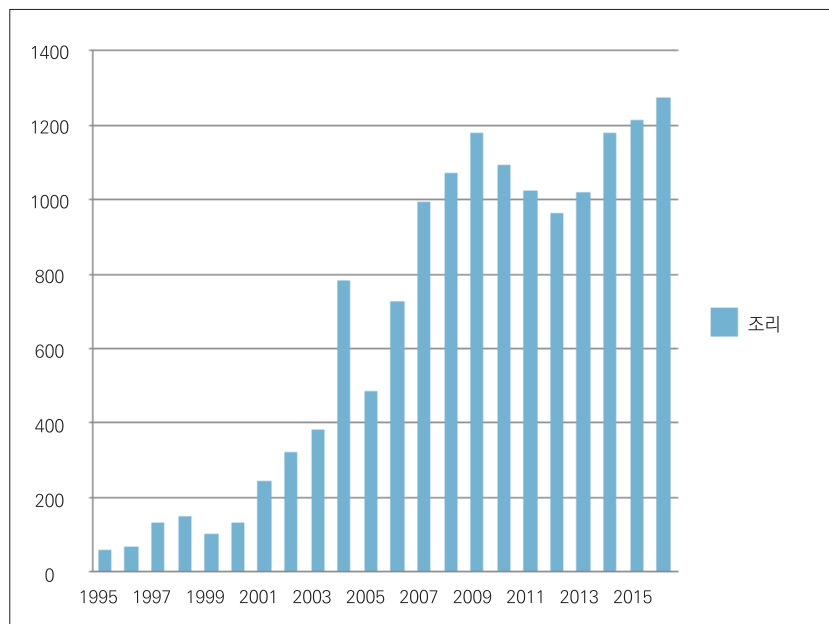
11) 원주민들은 '뫼박산'이라고 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는 이들이 없다.

12) 마을 보호수 수령이 500여 년으로 연안 이씨가 이 마을에 입향할 때 마을 경계목으로 심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마을의 역사는 500여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 특히 오산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조리읍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이곳에 금식기도원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마을 원주민들은 말한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많은 공장들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일수록 내국인 근로자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임금이 싼 외국인들로 그 빈자리를 채웠다. 초창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를 중국동포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언어와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관계로 쉽게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지금은 이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아 떠나고 대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나 네팔과 같은 서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1990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조리업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수이다.



주: 단위: 명(名)(세로축)/연도(가로축)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근로자수가 2000년대 들어 그 증가폭이 더욱 커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이 지역에 크고 작은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여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영세 소규모 업체 위주의 공장들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제 및 직업의 변화

고영창(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1945년 해방 후 지금까지 조리업 산업과 경제 그리고 직업의 변화과정은 자생적 변화의 산물이기 보다는 외생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외생적 요인으로 크게 농지개혁, 새마을운동과 농촌근대화,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와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 남한의 경제인구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종사자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다. 일제강점기(1913~1943년)의 소작농의 추세를 살펴보자.

	총호수	자작	자·소작	소작	기타	비율		
						자작	자·소작	소작
1913	2,492	586	1,092	934	-	22.8	41.7	32.4
1920	2,705	529	1,018	1,084	-	22.5	37.4	39.8
1930	2,849	504	890	1,334	145	20.5	31.0	46.5
1940	3,047	551	711	1,617	168	18.1	23.3	53.1
1943	3,046	536	846	1,481	183	17.6	27.7	48.6

주: 1)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1989) 참조

2) 단위: 천호, %

3) 기타는 화전민 및 피고용자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소작농 비율은 1913년에 전체 농가의 32.4%이었으나 1920년에는 39.8%, 1930년에는 46.5%, 1943년에는 48.6%로 증가하였다. 자작농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소작농이 감소하고 순소작농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이 되고 난 후 미군정이 실시되던 1945년에도 계속되었다. 당시 남한의 농지는 논 128만 정보, 밭 104만 정보였는데, 이들 중 소작지가 전체의 63.4%(논 89만 정보, 밭 58만 정보)였다. 자작농가는 206만 5천 농가 중 13.8%에 불과했으며 소작료는 50% 이상이었고, 전체 소작지 중 124만 정보는 조선인 지주 20

만 호가 소유하고 있었다.

1948년 4월부터 미군정은 신한공사¹⁾가 관리하던 귀속농지를 분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농지는 일제가 물리간 뒤 한국인 사원에 의해 운영되다가 1946년 2월 1일 미군정에 의해 신한공사를 창립, 직접 관리하였다. 귀속농지를 분배하기 위하여 미군정은 1948년 토지행정처를 설립한 후 각 지방의 사무소를 충동원하여 과수원, 대지, 목장 등을 제외한 농지를 ‘선량한 소작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유상분배에 의한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에 대한 보상과 상환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²⁾

농지개혁법은 제헌헌법 제86조에 의해 194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하는 데 있었다. 즉,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지 중 3 정보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에서 매수하여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능력에 비하여 적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등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해방되었을 때 순소작 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농지의 재분배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였고, 농지개혁법은 이를 위한 수단이었다.

농지개혁을 전후로 한 소작지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농지개혁사연구』에 따르면, 1945년 말 자작지의 비율은 35%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농지개혁 등에 의해 소작면적은 매년 감소한 반면 자작지의 비율은 1947년 말 39.6%, 귀속농지를 매각한 1948년 말에는 61.2%, 1949년 6월에는 67.5%로 급등하였다. 그리고 1950년 4월에 농지분배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자작지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졌으리라 추정된다.

농지개혁³⁾의 진행 과정은 농지의 매수 및 분배, 농민의 상환곡 납부, 지주에 대한 보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앞의 설명과 같이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법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보상은 시가에 못 미치는 것이었으므로 지주의 희생이 따랐다. 따라서 특정 부류의 농지를 매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지주에 대한 특별대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 취급을 받은 농지가 바로 위토(位土)와 사찰 소유의 농지였다. 지주가 중증이거나 사찰이면 그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농지분배를 받지 못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개혁에서 행해진 이런 불평등은 농지개혁의 정당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었다.

1) 신한공사(新韓公社, the New Korea Company)는 1945년 11월 10일에 설립한 미군정의 산하기관이자 공기업으로, 토지 및 재산을 관리하던 기관이다. 일제강점기 때 존재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승계기관이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구 동양척식회사의 재산 중 38선 이남의 재산만을 실질적으로 관할하였다. 초기에는 신조선회사라 했다가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로 이름을 바꾸었다.(자료: 위키백과)

2)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3) 여기서 ‘농지개혁’은 1948년 미군정의 토지개혁과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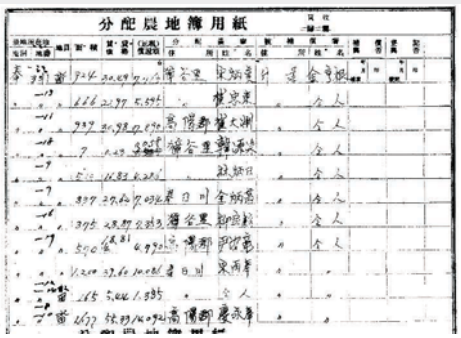
농지개혁 전후의 농지 소유형태별 농가구성비 변화(1945~1959년)

		자작농	자·소작농	소·자작농	소작농	계
호수	1945	2855	810		924	2,019
	1947	385	402	432	914	2,106
	1949	925	1,023		526	2,474
	1959	1,816	279	129	43	2,267
비율	1945	14.1	40.1		45.8	100.0
	1947	17.0	19.1	20.5	43.4	100.0
	1949	37.4	41.4		21.2	100.0
	1959	80.1	12.3	5.7	1.9	100.0

주: 1) 자료: 김성호 외, 『농지제도 및 농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1984), 2) 단위: 천호, %

하지만 해방 직후 농민들은 대부분 50% 이상의 높은 소작료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작농으로 자신의 농지를 가질 기회가 주어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농지개혁 이전과 이후 실제 이곳 원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자기 소유의 농지를 가지며 농사를 지었고, 그 이전 보다는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던 당시 조리읍 내 토지 소유 및 분배 상황 등을 엿볼 수 있는 조리면⁴⁾ 「분배농지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조리면 봉일천리 「분배농지부」 일부

4) 당시 조리면은 아직 읍으로 승격되기 이전이었다.

분배농지부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분배농가의 주소 및 성명, 임대 가격 및 정조(正租) 상환액, 피보상자(被補償者)의 주소 및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분배농지 면적으로는 죽원리,⁵⁾ 장곡리, 뇌조리, 봉일천, 등원리, 오산리 순으로 넓었다. 또한 피보상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과 고양 등에 주소를 둔 소수의 부재지주들에 의해 농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지역농민들은 높은 소작료를 부담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소수의 부재지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조중환이다. 조중환은 송암(松岩) 조병학의 차남으로 죽원리와 봉일천리, 이웃 장곡리 일대를 포함한 조리읍 일대에 엄청난 토지와 함께 대규모 농장도 소유하고 있었다. 조리읍 봉일천4리의 동네 이름이 송암동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이 농장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송암농장(松岩農場)과 관련한 조병학 일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들어서 농지개간과 개량을 넘어 농지의 구획정리, 즉 경지정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조리읍 봉일천리에 농지를 경지정리해 송암농장을 조성한 송암 조병학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후손에 의해 알려진 송암 조병학과 송암농장에 대한 이야기는 파주 지역에서 벌어진 근대 최초의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송암 조병학은 누구인가?

- 1884 전북 순창 출생
- 1920 한성정미소 대표
- 1920. 2 경성고아구제회 이사
- 1923. 10 경성교육실천회 특별회원 위촉
- 1929. 10 경성곡물협회 상담역 선임
- 1930 조리면 봉일천리 13만 평의 송암농장 설립
- 1931. 7 경성전기가스부영기성회 위원
- 1931. 10 경성하주조 이사 임명



5) 변경 전 대원리 행정구역명

- 1933. 4 조선나예방협회 상금 3,002원 기부
- 1933. 5 조선물산장려회 조사부 이사 선임
- 1933. 6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
- 1933. 8 파주군 조리면 호우로 조리면사무소에 백미 50가마니 전달
- 1935. 경성창고금융(京城倉庫金融)주식회사 감사 역임
- 1936. 6 구일회(九日會) 회원 겸 월번간사
- 1937. 영익사(永益社)주식회사 취체역 역임
- 1937. 3 조선군사령부에 애국기 '경성 제1호기'구입비 10,000원 헌납
- 1937. 9 애국기 경기도호 구입비 500원 헌납
- 1938. 4 매일신보사 주최 복지향문위문 겸 만주국 상업시찰단 참여
- 1938. 4 『매일신보』에 시찰단 참여 소감 기고
- 1938. 4 매일신보주식회사 대주주 참여
- 1938. 7 동아산업(東亞産業)주식회사 창업준비위원 참여
- 1938. 9 조선방공협회 경기도연합지부 평의원 선임
- 1938. 11 경기도 파주군농회 농사훈련소 경영자금 5,000원 기부
- 1940. 3 광덕상회(光德商會)주식회사 감사
- 1940. 7 경인기업(京仁企業)주식회사 상무취체역 역임
- 1940. 8 조선군 애국부에 고사포와 청음기 1대 헌납
- 1940. 9 중앙연료(中央燃料)주식회사 감사
- 1940. 10 경기도양곡배급조합(京畿道糧穀配給組合) 평의원 역임
- 1940. 10 국민총력조선연맹 보도부 참사 선임
- 1941. 9 조선임전보국단 경성부 발기인 참여
- 1941. 12 국방헌금 3,000원 헌납
- 1942. 4 경성부 사회사업협회 이사 선임
- 1942. 5 경기도양곡주식회사 대주주 참여
- 1942. 10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땅 60만 평 기부(아들 조중환)

송암(松岩) 조병학(曹秉學, 1884~1942)은 일제강점기 때의 사업가로 전북 순창 출신이다.

그런데 그의 호(號) 송암은 파주의 조리읍 봉일천4리 송암동⁶⁾에서 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조병학과 봉일천과의 인연은 무엇일까?

파주에서 발간된 어떤 문헌에도 송암 조병학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해적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송암 조병학은 1930년대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에 거주하면서 약 13만 평에 달하는 송암농장(松岩農場)을 설립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33년 8월 봉일천이 범람하는 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조병학은 조리면사무소에 두 번에 걸쳐 백미 50가마니를 수해 구호품으로 전달하였다.

또 1938년 11월에는 파주군농회 농사훈련소에 경영자금 5,000원을 기부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송암 조병학은 낙후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송암농장을 비롯한 파주 일대의 토지를 출연해 봉일천 송암농업학교의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송암농업학교의 설립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조병학은 파주에 근거를 두고 파주지역의 농업발전과 육영사업에 큰 관심과 노력을 했던 인물이었다.

봉일천 ‘송암동’의 유래가 된 송암농장(松岩農場)

송암 조병학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서울 서대문에서 ‘한성정미소’를 운영하며 파주와 양주 등의 땅을 사들여 비교적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병학은 1930년대 초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4리(현재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캠프 하우스 앞 농경지)의 전답 약 13만 평의 땅에 송암농장을 설립했고, 봉일천4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경지정리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때 ‘경지정리’는 혁신적인 과학영농의 시초였다.

경지정리에 따른 소출의 증가로 그의 재산은 많이 늘어났고, 이 사실이 일본에도 알려져 일본 학생들이 경지정리 기법을 배우기 위해 송암농장을 견학 오기도 했다. 지금도 봉일천4리의 자연마을 이름은 ‘송암동’으로 불리고 있다.

조병학은 낙후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송암농장을 비롯한 파주 일대의 토지를 출연해 봉일천 송암농업학교의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성명 미상)도 문산 선유리에 문산농업학교의 설립을 조선총독부에 함께 신청했고, 민족자본에 의한 학교 설립을 피하던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이 신청한 학교를 승인했다. 결국 조병학 씨의

6) 『파주군지』 중 지명유래, 송암동 또는 솔바윗골로 불렸으며 봉일천4리에 있는 마을이다. 조병학이라는 부자가 이곳에 땅을 사게 되어 그의 호 송암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주위에 있는 보시산과 능산의 바위에 송림이 우거져 있었다.

뜻은 좌절되고 말았다.

1930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각 방면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탄압정책을 구사해 우리의 문화·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온갖 간섭과 탄압을 자행하였으며, 특히 민족자본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한 간섭과 탄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37년 7월 일제가 다시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미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적 압력을 가하게 됐으며 일본은 노골적으로 반미 태도를 취했다.

미·영계의 서구인과 선교기관에 대한 박해가 표면화됐고, 따라서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세브란스도 그 박해의 대상이 됐다. 또한 일제는 민족말살의 목적으로 ‘국어사용’이라는 구호 하에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까지 일어 사용을 강요했다.⁷⁾



송암농장

7) 일본인들조차 송암농장의 농지개량 기술을 견학하고자 직접 송암농장 견학을 올 정도였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송암농장 내 한 건물로 추정되어 당시 농장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일본고등국민학교 일행이 송암농장을 시찰 후 찍은 기념사진(1921년 12월 2일)

그다음 해인 1938년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황국 신민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신사참배에 항거하는 선교사는 귀국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종교기관이나 종교계, 교육기관은 존폐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결국 1939년에서 1940년 사이 세브란스의 에비슨, 마틴, 앤더슨 등의 교수진이 모두 귀국했다.

세브란스에 토지 60만 평 기부

이 무렵부터 일제는 세브란스에 강한 재정적 간섭을 가했다.

기독교와 기독교 계통 학교에 대한 탄압, 신사참배와 일어 사용 강요, 그리고 1940년 창씨개명에 이어 1942년 들어서는 학교명마저 아사히의학전문학교로 강제로 개명하게 하는 등 악랄한 수단으로 노골적인 간섭을 하기에 이르렀다.

1939년에는 미·일의 감정이 악화돼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가혹해졌으며, 이에 미국은 재한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인의 소환을 명하는 등 미·일 간의 국교가 심상치 않게 변했다.

1941년 8월에는 미국이 미국에 있는 일본계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자금동결령을 실시하자, 일제는 미국 선교계의 학교에게 미국의 보조금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국 선교계로부터 유

입되는 학교 운영비를 차단해 재단의 부실화를 유도함으로써 기독교계 학교를 서서히 고사시키고, 나아가 재단의 부실이라는 명목 아래 이들 학교를 모두 폐교할 목적으로 일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과제였다.

따라서 세브란스뿐만이 아니라 연희전문학교, 이화전문학교 등 같은 기독교계 학교들도 이러한 일제의 노골적인 기독교계 학교들에 대한 탄압정책으로 다 같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일제의 강요로 결국 세브란스는 미국 선교계의 보조금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로부터 유입되던 학교 운영자금도 봉쇄돼 세브란스는 학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그때까지 한국에 남아 활동을 하던 그들의 적국인 미국계 선교사들이 간첩행위를 한다고 그들을 모두 본국으로 쫓아 보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국 일제는 미국 선교계의 보조금이 차단돼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그들의 각본대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 세브란스재단이 부실하다고 폐교하기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의 위기에 몰리자 당시의 교장 이영준은 학교 재단을 확충해 폐교의 위기로부터 학교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나, 일제의 적국이 되어버린 미국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를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 가해질 일제의 보복 등 후환이 두려워서 그 어느 민족 재산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때마침 서울 서대문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조병학은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파주 봉일천에 농업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는 했으나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영준 교장의 선임교장이자 초대 한국인 교장이었던 오금선과 친분이 깊었던 조 씨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정미소와 송암농장을 경영하여 재산을 모아 경기도 파주와 양주, 충남 아산 등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교장은 조병학을 찾아가 “일제의 방해로 어차피 농업학교의 설립은 어렵게 됐으니, 세브란스의과 대학에 재산을 기부해 의학발전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병학은 파주와 양주, 그리고 충남의 당진, 아산 등지의 농지와 대지 60만 평을 기부할 것은 물론, 그해 경비의 부족분을 담당해주겠다고 흔쾌히 승낙했다.

이 기부재산은 그가 소유했던 재산의 대부분으로 1년 추수 2,000석 규모이고 당시의 시가로 6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이었다. 그러나 조병학은 기부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갑자기 병환을 얻어 1942년 10월 작고하고 말았다.

부친이 작고하자, 당시 26세였던 차남 조중환 씨는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 이 기부행위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기증자의 명의로는 자신이 아니라 기증 재산을 장만하신 그의 선친 조병학으로 하기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

일제는 또다시 갖은 방법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며 기부를 방해했다. 기부를 인가해주는 조건으로 조선총독부에 10만원의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 10만원이라는 거금도 헌납하면서까지 막대한 재산을 쾌척할 재산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중환 씨는 기부를 위해 첫해에 5만원, 그리고 그다음 해에 5만원을 헌납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5만원을 조선총독부에 헌납했다. 이후 조중환 씨는 즉시 60만 평 토지의 소유권이전 절차에 들어가 1943년 봄 세브란스 앞으로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위기에 처해 있던 세브란스는 폐교를 모면할 수 있었고, 같은 폐교 위기에 몰려 있던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전문학교도 일제의 폐교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일제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수락해 기부행위를 감행한 조중환 씨를 꽤 씹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에게 악랄한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서울 상공에 미국의 B-29 폭격기가 비행했다는 이유로 서울 주민의 소개명령을 내렸고, 이를 구실로 서울 장교동에 있던 조중환을 집에서 쫓아낸 뒤 도로개설을 명목으로 그의 집을 허물어버렸다.

일제의 악랄한 보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몇 달 후 다시 조중환에게 노무자 징용영장을 발부해 끝까지 그에게 보복하려 했다. 조중환을 딱하게 여긴 지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간신히 징용을 피할 수 있었고, 다행히 바로 해방을 맞았다.

일제에 의해 그의 집이 헐리자 그는 노조모, 노모를 포함한 온 식구들을 이끌고 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4리의 송암농장으로 이사를 했고, 이곳에서 한국전쟁 직전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던 그는 환도 후 30여 년간 전세살이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 서울의 수유동에 정착해 살았다. 그리고 지난 2007년 향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⁸⁾

농지개혁의 공(功)과 실(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 농지개혁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분명 한국 농촌사회의 평등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첫째, 소작지주제를 폐지하였다는 점, 둘째,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였다는 점, 셋째, 차지농(借地農) 보호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마련된 자작농체제는 시기적으로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

8) 본 글은 이윤희(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의 기고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편집한 것이다.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많은 농가가 어렵게 마련한 농지를 팔고 도시로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이는 기존 농가의 성격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농가의 노동력과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농가의 계층분화가 본격적으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가 가구당 인구수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영농에 종사할 인구도 동반하여 감소하였다. 조사지역 조리읍의 경우 1960~1970년대 농가 가구당 인원수는 5~6명 수준이었고, 1980년대에는 4명, 1990년대 3명, 2000년대 2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⁹⁾ 이렇게 농가의 노동력이 감소한 것은 단적으로 기존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신규로 진입하는 후계자는 적기 때문이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농가수도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농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집약적인 농업경영은 축소되고, 나아가 농업경영이 어려워진 농가는 농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위탁하는 수밖에 없는 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족한 노동력의 농기계 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작업의 수·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한편 수출주도형 공업화 경제정책에 의해 1960년대 말에 농가소득은 도시생활자의 50~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시에 비해 소득이 하락하면서 농민의 사회경제적 삶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1968년을 고비로 농촌 및 농가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이농에 있었다.

이는 당시 박정희 정부에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1970년 4월 전국 지방장관회의 석상에서 박정희는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위로부터 동원한 '새마을사업'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한 무상의 '사회간접자본'을 동원해낸 획기적인 결과였다.

1970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농한기에 전국 3만 5천 마을에 300여 포대의 시멘트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2차 연도에는 1만 6천 마을에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씩 배분해주었다. 이를 통해 1972년 전국 마을의 65%에 해당하는 22,700개 마을에서 마을 주변의 도로를 직선화하고 폭을 넓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업에서 정부로부터 토지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일선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과 마을 이장들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 설득해야 했으며, 대부분 마을공동체 의식이 남아 있던 당시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

9) 1962년 5.96명, 1965년 6.23명, 1970년 5.40명, 1980년 5.1명, 1990년 4.1명, 2005년 2.9명, 2015년 2.57명(자료: 파주시 통계연보)

전국의 모든 마을을 주민의 참여도와 발전 수준에 따라 기초·자조·자립마을로 구분하여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시작단계에서는 주민의 근면·자조·협동정신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마을가꾸기 사업에 정신개발 및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가하고, 1974년 이후에는 그 영역을 농촌뿐 아니라 공장, 학교 심지어 군대까지 확대하였고, 농촌 새마을운동 중점 사업은 마을가꾸기에서 소득증대사업 및 주택개량사업으로 옮겨갔다.

대표적인 소득증대사업의 예로서 통일벼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통일벼 사업은 정부가 미국증산을 위해 강압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이었다. 도입 초창기 많은 농민들에게 배척당하는 수모를 겪기는 하였지만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통일벼가 미질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토질과 관계없이 적응을 잘하여 다수확이 가능해서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남아 있던 춘궁기의 장리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당시 몇 년 동안 정부의 고미가 정책과 통일벼 전량수매 정책에 힘입어 통일벼 생산 농가들은 부채를 많이 상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 말 무렵 통일벼의 시장성은 급격히 떨어져 더 이상 통일벼 사업은 농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¹⁰⁾

소득증대사업과 동시에 진행된 주택개량사업은 농가개량사업과 농가취락구조개선사업과 맞물려 이전의 농촌경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 사업은 1980년대 후반에 터진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대형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농민들을 위시한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 조사지역 조리읍의 경우, 예로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원주민의 입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 모두는 천직(天職)이라 여기었던 농사일에서 이제는 거의 손을 떼 상태로, 40~50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비싼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여 이들이 위탁한 농지를 대신 지어주는 위탁영농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특히 벼농사가 주인 이 지역의 경우 고령화의 추세는 더욱 심각하여 논갈이, 모내기, 방제, 벼베기, 탈곡 등 일련의 영농과정 모두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이로 인해 농가의 계층분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면 잔류농가와 이농농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잔류농가 중에는 여전히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와 부업으로 다른 일과 겸업을 하는 농가로 세분할 수 있겠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는 토지를 여러모로 이용하기 위해 자본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첨단농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영농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사를 부업으로 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다른 일과 겸업함과 동시에 자신이 직

10) 오유석,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자료, 2003. 7, 470~498쪽 참고

11) 이렇게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대가로 1마지기(약 200평)당 쌀 한 가마를 지불한다고 한다.(대원1리 이장 배○○ 님)



접할 수 있는 소규모에 한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에 비해 농사에 완전 손을 뗀 농가의 경우에는 비록 농사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마을에 남아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면서 계속 보유, 지가(地價)의 상승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거나, 아예 마을을 떠나 타지에 거주하면서도, 토지는 여전히 소유하면서 농지를 이윤획득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경우와 아예 토지와 주택 등 모든 것을 매각하고 마을을 떠난 농가도 있다.

1970년대 이후 지가(地價)의 상승으로 농지가 더 이상 생산요소로서보다는 자산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으며, 상속과 이농에 의한 비농민(非農民)의 토지 소유가 점차 확대되면서,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조리읍과 같은 서울 근교 농촌지역에서는 도시팽창의 압력으로 원주민 농가는 전업농, 겸업농, 탈농으로 분화가 되었으며, 전업농은 시설농업 등 상업적 농업을 통해 토지이용을 집약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겸업농과 탈농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농업에서 점차 이탈하였다.

이에 더하여 토지이용의 용도전환이 비교적 쉬운 밭을 중심으로 도시주민의 자본이 유입하여 외지인이 투기적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외지인 소유의 토지는 전업농민에게 재임대되어 시설농업 등 집약적인 토지이용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농업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휴경화함으로써 조방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약화와 조방화가 혼재하는 이러한 토지이용의 불안정성이 조리읍과 같은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용도전환이 비교적 쉬운 밭이 공장부지나 대지로 활발하게 전환되고 있는 반면, 용도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논에서는 벼농사만이 답습(踏襲)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논은 단순히 재산보유의 목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은 조방화(粗放化)¹²⁾된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방적 이용을 하더라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조리읍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농업 이외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나 공장이 없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 섬유, 화학, 기계종목 관련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공장 수는 22개에 종업원 수 1,33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섬유공장 4개에 종업원 511명, 화학공장 7개에 종업원 228명, 기계류 관련 공장 8개에 종업원 149명, 기타 9개에 종업원 463명이었다. 이 공장들은 소음과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해업체들이 대다수였으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전한 업체들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 사업체의 수와 종류 모두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1995년 입주업체 수는 148개, 종업원 수 4,013명으로 식료

12) 일정 면적의 농경지에 투자하는 노동력과 자본이 적고, 수확량과 그에 따른 판매량 또한 적은 현상

품,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나무, 종이·인쇄 출판, 조립금속·기계장비 등 종류도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 더욱 다양하고, 규모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제조업 334개 사업체에 종업원 수는 3,426, 건설업 43개 사업체에 1,592명, 도·소매 소비자물품수리업 246개 사업체에 종업원 873명, 숙박·음식업 209개 사업체에 종업원 459명, 운수·창고·통신업에 66개 사업체에 종업원 수 130명, 금융·보험업 5개 종업원 수 75명, 부동산 임대사업 57개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는 1,367개 사업체에 종업원 수 6,988명, 2010년에는 1,888개 사업체에 종업원 수 10,397명, 2016년 12월 기준으로 2,455개 사업체에 12,73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¹³⁾ 즉,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곳에 개별기업의 형태로 마을 곳곳에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입주하였으며, 오산리 일원에는 2006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출판·인쇄업종의 사업체들이 대거 입주하였다.

이 시기와 때맞춰 봉일천리와 대원리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인근에 입주하는 사업체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이 전입하면서 세대수와 인구수의 가파른 증가를 가져왔다. 동시에 이 지역 토지이용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주목할 사항은 1979년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던 공장부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¹⁴⁾ 1979년 526㎡(약 200평)를 시작으로 1980년 6,272㎡(약 1,900평)로 증가하였고, 1982~1988년까지 매년 평균 2,000㎡씩 증가하였다. 1988년 22,296㎡에서 그 이듬해 1989년에는 42,412㎡로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있던 사업체들의 이전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90년대에는 그 증가폭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0년 60,280㎡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546,364㎡로 무려 9배나 증가하였다. 가히 폭발적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2000년대 들어서도 증가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2010년에 1,373,287㎡, 2016년에 1,647,191㎡로 증가하였다. 1979년 처음 526㎡에서 2016년에는 12월 기준으로 3,000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창고부지는 2003년 공식집계에 8,169㎡로 처음 등장하여 2016년 12월 기준 94,129㎡로 조사되어 11.2배 증가하였다. 현재 조리읍에는 오산리에 있는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장곡리, 뇌조리, 대원리, 능안리, 등원리 마을 구석구석 크고 작은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마을길을 비집고 들어서 있다.

13) 자료: 파주시 통계연보

14) 공식적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났다고 그전에 이 지역에 공장이나 창고 건물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무단복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짓고, 가동한 경우는 그 당시 흔한 일이었다. 특히 공해업소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연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참고
1977	2,325,120	7,613,712		541,993		
1978						
1979	2,323,791	7,605,732		546,347		
1980	2,326,357	7,591,362		501,112	526	
1981	2,317,043	7,692,928		572,111	6,272	
1982	2,310,006	7,586,262		582,793	11,987	
1983	2,309,044	7,582,893		589,106	15,910	
1984	2,307,752	7,583,939		590,761		
1985	2,173,381	7,622,001		592,005	16,493	
1986	2,165,033	7,617,194		606,823	18,655	
1987	2,133,346	7,591,236		622,437	20,751	
1988	2,130,969	7,583,727		632,837	22,296	
1989	2,528,756	8,101,306		694,000	42,412	
1990	2,517,838	8,089,546		706,963	60,280	
1991	2,491,368	8,061,262		716,956	101,797	
1992	2,473,620	8,048,725		735,050	147,917	
1993	2,408,557	8,014,387		755,109	252,910	
1994	2,408,557	8,014,387		755,109	252,910	
1995	2,395,017	7,999,347		769,820	252,910	
1996	2,196,862	8,109,391		826,190	336,555	
1997	2,159,291	8,029,556		849,332	387,371	
1998	2,108,481	7,929,690		884,943	488,166	
1999	2,104,368	7,882,275		923,146	514,880	
2000	2,088,942	7,826,528		945,257	546,364	
2001	1,928,779	7,740,640		1,160,789	582,089	
2002	1,885,755	7,629,122		1,196,430	649,837	
2003	1,851,509	7,575,543		1,216,896	715,956	8,169
2004	1,822,478	7,506,734		1,245,257	795,249	18,600
2005	1,804,363	7,432,847		1,275,433	858,388	20,281
2006	1,801,803	7,384,342		1,297,060	923,375	23,055
2007	1,799,058	7,248,785		1,339,606	1,129,879	32,481
2008	1,843,893	7,017,013		1,423,880	1,274,885	53,401
2009	1,863,792	6,864,524		1,445,193	1,312,710	61,727
2010	1,861,581	6,800,573		1,496,496	1,373,287	65,785
2011	1,871,209	6,716,270		1,505,598	1,417,334	70,915
2012	1,883,450	6,621,619		1,529,389	1,453,066	67,400
2013	1,885,775	6,527,358		1,544,747	1,512,194	76,343
2014	1,869,888	6,493,353		1,544,402	1,566,110	76,343
2015	1,893,704	6,410,681		1,566,492	1,615,307	81,626
2016	1,825,047	6,347,247		1,568,432	1,647,191	94,129

주: 1) 단위: m², 2) 자료: 파주시 통계연보

이와 함께 대지 면적도 1977년 541,993㎡에서 1990년 706,963㎡, 2000년 945,257㎡, 2010년 1,496,496㎡, 2016년 12월 기준 1,568,432㎡로 3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임야는 12,163,355㎡에서 10,035,328㎡로 1977년 대비 17.7%, 논(답)의 경우는 7,613,712㎡에서 6,347,247㎡로 17.64%, 밭(전)의 경우는 2,325,120㎡에서 1,825,047㎡로 2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장과 아파트, 공동주택, 도로 등이 주로 임야와 밭, 논을 상대로 전용하여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70년대까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이곳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쌀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중심의 영세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곳은 1950년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제도 확립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물가상승, 실업, 식량부족 등 만성적 고질이 계속되었다. 이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운동과 소득증대운동 등을 통하여 마을 자체의 자립능력을 고양하고자 하였으며, 어느 정도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 없었던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울, 일산 등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민속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조리읍에는 총 2,547개 사업체에 12,879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평균 1개 업체에 5.0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업체에는 단독사업체 2,432개에 11,033명, 공장 또는 지사 82개에 1,035명, 본사·본점 33개에 81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알아보면 제조업 890개에 6,979명, 도매 및 소매업 499개 업체에 1,629명, 운수 및 창고업 289개 업체에 666명, 숙박·음식점 269개 업체에 718명 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단 정보·통신 분야나 컴퓨터 관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13개 업체에 57명만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첨단 산업 시설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정주환경과 주변경관의 변화

고영창(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예로부터 삶의 터를 정함에 있어,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장풍득수(藏風得水)를 할 수 있는 곳을 최고의 장소로 여겨왔다. 대부분의 전통마을들은 이런 요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응용하여, 마을의 배치와 가옥의 구조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산과 물이며, 이들의 형세는 위치마다 다르고, 자연적 입지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지역의 경우 특정 성씨 집단이 마을의 사회조직이나 마을 정치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간혹 몇몇 성씨 집단이 다른 성씨보다 수에 있어 우세한 경우는 있어도 이를 그 특성 성씨의 집성촌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대부분의 마을이 '각성받이'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종택이나 사당, 정자 등 반촌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없었으며, 몇몇 성씨들의 재실과 묘역이 남아 있는 곳¹⁾은 있었지만, 이들 성씨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대대로 살아온 흔적은 찾지를 못했다. 이른바 대다수가 민촌(民村)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조사지역 내 마을과 주택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에 큰 변화를 경험한 이후 현재에도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개발과 인근 대도시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주택은 물론 마을의 경관까지 변하고 있다. 농촌적 건축물이 간혹 남아 있지만 공가(空家)상태로 허물어져가고 있거나 도시적 건축물이 혼재하고 있으며, 국도변은 다용도 건물들이 즐비하다. 면소재지인 봉일천리는 아파트와 공동주택과 같은 고밀도 주거공간들과 상업시설들이, 여타 행정리들은 전원주택, 각종 산업시설 등이 야산이나 농경지에 들어서 있어 기존 농촌주택들과 혼재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도시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 마을의 주택들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변화의 동인(動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주민들의 인적 구성의 변화를 들 수 있겠다. 산업화의 과정에 일시적으로 여느 농촌마을과 같이 청장년층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갔으나 도로와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자동차의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 시외지역 및 도시지역에서 새롭게 유입되

1) 장곡리와 뇌조리에 양천 허씨, 전주 이씨 그리고 연안 이씨 묘역과 재실이 있음



능안리 소재 농가주택. 뒤편 새로 건축된 건물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이 지역 전통주택인 '튼 ㅁ자형' 주택, 뒤로 최신식 공장 건물이 위압적으로 다가온다. 옛날식 지붕을 걷어내고, 새로 개량형 기와를 얹은 모양이 어색함을 느끼게 한다. (소재지: 능안리)



세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봉일천 소재 주택의 모습



마을길을 따라 최근에 새롭게 조성된 공동주택. 새로 유입되어 오는 외지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농가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토지 전용을 통해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래된 주택을 등지고 서 계시는 촌부의 모습을 통해 내일의 모습을 상상해본다.(소재지: 등원1리)



능안리 현재 모습

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원주민과 이주민, 농가와 비농가 등 다양한 유형의 주민들이 한 마을에서 혼재하고 있다.

둘째, 직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근대화 이전 마을 주민 전체가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 가운데는 전업농과 겸업농, 그리고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농사 이외의 직업을 가지거나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도로와 교통수단의 발달, 특히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의하여 도시로의 출퇴근이 용이해지고, 소득이나 생활면에서 유리한 도시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외부적으로는 도시외곽지역에서 농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찾아 농촌으로 이주해오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地價)와 주거비, 그리고 양호한 자연환경의 근교 농촌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사례가 다양한 직업이 혼재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셋째, 가치관의 변화이다.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인적 구성과 직업의 변화 그리고 도시와의 교류로 인하여 마을공동체의식의 약화와 개인주의적 경제 관념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각 구성원들은 통합된 존재가 아닌 개별적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넷째, 건축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주택이 항구적인 삶의 근거지라는 개념보다 시장가치를 갖는 경제자산으로 인식하여 농촌 생활의 삶이 반영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로 보고 주택을 개량, 증축 또는 신축할 때 재료, 구조, 설비, 형태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전통적 풍수지리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오직 기능적인 측면을 더욱 중시하고 건축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주택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폐가의 증가와 기존 주택의 전용이며, 여기에 더해 부속건물의 변용을 들 수 있다. 도시 내 영세산업시설들이 지가 부담이 적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주택을 공장이나 창고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도시영세민과 도시외곽지역 이농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셋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동안 창고, 헛간, 축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부속건물이 개축을 통하여 주거시설로 임대되거나 임대용의 부속건물이 지어진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주택의 형태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원주민들의 경우 고령화로 인하여 농사를 포기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농사일과 관련하여 마당이 가지고 있던 농작업과 보관기능과 같은 작업공간으로서의 마당의 기능은 사라지고, 이제는 정원으로 가꾸어 휴식기능으로 사용·전환된 사례가 많았다.

둘째, 마루의 기능 변화를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집에서 가장 개방된 공간이었던 마루를 통유리 창틀로 시공하여 폐쇄형의 거실공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주택의 신축이나 부속건물의 임대용 주거시설 전환과정에서 수납공간이 부족하게 되면서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 처마 부분에 창틀이나 벽을 쌓아 까대기 공간을 만들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사



옛날의 마당의 모습과 지금의 마당의 모습. 마당의 기능이 변한 현재의 농가 모습(사진 제공: 박태근, 대원2리)



마루를 통유리로 거실화하였으며, 마당을 정원으로 꾸민 한 농가주택(소재지: 등원리)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가 한창인 모습(참고자료: 『파주시지』 9 사진자료집, 파주시, 2009)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대신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한 옛집(소재지: 등원1리)



례가 많았다. 냇재, 난방과 취사의 분리로 인한 부엌의 입식화와 부엌과 식사공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마당보다 낮은 부엌으로 들어가 난방과 취사를 함께 했던 옛날 부엌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폐가로 허물어진 집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샤워실과 화장실의 기능을 공유하는 화장실이 주택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 작업할 때나 외부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외부에 여분의 화장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현관이 등장하고 주택 내부 출입 동선이 매우 단순화되었다. 주택 외부 형태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조적식 구조와 평슬라브 구조가 일반화되었다. 여기에 조립식 건축물 또한 흔하게 마주치는 광경이 되었다. 이동과 재사용 그리고 시공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건축방법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농촌근대화운동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 당시 기존의 초가지붕 대신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체한 모양의 집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지역민속의 변화

- 가치관의 변화 및 마을사회조직의 분화

고영창(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지역사회란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삶의 터전이다. 생활의 대부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를 통한 협동,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전통과 권위가 생성되고 축적되며, 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규범에 따라 구성원들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의 일차적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도 사회의 변화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사회는 농촌근대화화 산업화에 따라 농업노동형태와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화되기 이전에 농민들은 자신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하였다. 쌀, 보리, 조, 수수, 콩, 메밀, 녹두 등과 같은 식량 작물을 비롯하여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참외,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의 채소류와 고추, 마늘, 생강, 파, 등의 양념류,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목화, 대마 등을 재배하였다. 자신들이 생산한 농작물은 가족원들이 먹기 위한 것, 그리고 의복 제작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농업은 자급자족적 생계농업이었고, 농민들은 자급자족적 생계농민들이었다.

농촌 산업화 이전의 농업기술은 대대로 윗세대에서 전승되어 오는 것들로서 윗세대는 아랫세대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쳐줄 의무가 있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로부터 배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이 과정은 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승이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시간에 농사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데, 서로 협력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동질의 노동을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협업은 노동적기라는 제한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이었다. 협업은 일꾼들의 노동력이 일대일 증가성과 동질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민속 행위가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노동으로 해결이 불충분한 농사일의 경우 품앗이를 통해 해결하였다. 1960년대까지 품앗이는 모내기, 논매기, 거름내기, 벼베기, 탈곡, 지붕이기 작업 등에서 널리 행해졌다. 특히 모내기, 논매기, 거름내기는 거촌적으로 품앗이가 이루어졌다.

농촌이 산업화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첫 번째 변화는 환금작물을 재배한 것이다. 가족원들이 먹고 쓰기 위한 것보다 시장이나 공식 구매기관을 거쳐 돈을 벌기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환금작물 재배가 일반화되면서 이제 농업은 상품생산농업으로 전환되었다.



자정을 넘기면 바로 산신제를 지낸다. 제를 지내기 직전 매봉대에서 직접 끓인 탕을 뜨고 있는 모습. 탕은 세 그릇 준비한다.(장곡1리 터골 산신제 모습)



산신제가 시작되면 먼저 토지신에게 제를 지낸다. 탕, 편, 조라술, 소금, 배, 밤, 감을 간소하게 차려 올린다. 제관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올린 술은 토지신이 드시라고 땅에 붓는다.



왼쪽에 산할아버지, 오른쪽에 산할머니를 위한 제상을 한 상에 차린다. 제관이 절을 하고 있다. 제관은 이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



초헌을 한 후 제관이 축문을 읽고 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농 체제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주력하는 작물만을 재배하였다.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질, 기후환경, 자신의 노동력, 영농기술, 자본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작물만을 재배한다. 그러므로 전체 농업구조에서 분업화, 전문화,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전문화와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점차 개별화되게 마련이다. 종래 여러 사람이 협업으로 하던 노동형태는 줄어들고, 복잡한 일은 분업으로 처리한다. 자연히 개개인이 하는 일에서 동질성이 적어지고 일하는 시간에도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동종의 일을 함께하지도 않고, 같은 시간에 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산업화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화는 공동체성의 약화와 붕괴를 가져왔다. 민속에는 개별적으로, 가족 단위로 전승되는 민속도 있고, 문중이나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공동체민속도 있다. 개별적으로 전승되는 민속은 차치하더라도 가족 단위 민속도 전승의 힘이 급격히 약화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일차적인 가족활동이 함께 끼니음식을 먹는 것이다. 조사지역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횡수의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거의 모든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최소한 하루 한 끼 이상을 해결하고 있었다. 심지어 같은 집에 함께 살더라도 그들의 생활이 개별화되어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 민속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제사나 마을고사, 세시명절 때 다 함께 모여 한바탕 흥겹게 놀던 행사들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 기억 속에서조차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으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흥과 흥미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지역 내 대원리의 경우 사라진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미 1960~1970년대 마을 뒷산에서 지내오던 산제사는 완전히 그 전승의 맥이 끊어졌고, 비교적 최근까지 전승되어오던 오산리나 장곡리 터골(基谷)마을 산제사도 몇 년 전부터 지내지 않고 있었다.

다음은 『파주시지』에 소개된 조리읍 마을제사 관련 내용이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당시에는 매년 지내왔기에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장곡리에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기곡동(基谷洞)이라 불렀다. 그래서 지금은 터골이라고도 하며, 마을에서는 매년 터골 산신제를 지낸다. 주변에는 돌봉, 갈매봉, 매봉이 있는데, 터골 산신제는 매봉에서 지낸다. 해발 50여 미터 산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한 평지가 나오는데, 이곳을 매봉대라 하고 여기서 산신제를 지낸다. 당집이나 다른 시설은 특별히 없고 매년 차양을 치고 지낸다.

산신제 날짜는 음력 9월 15일로 자정을 넘기고 바로 시작된다. 준비는 9월 11일부터 하고, 제상에 올라갈 조라술도 이때부터 빙는다. 산신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제관과 임사(任事)로 제관은 음력 9월 11일부터, 임사는 9월 9일부터 몸관리를 한다. 물고기, 육류, 심지어 새우젓도 먹지 않고 부부생활도 따로 한

다. 제관은 현재 이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 임사는 음력 9월 초이레에 두 명을 선정한다. 예전에 임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마당잡이’라고 하였다. 임사들이 매봉대의 풀을 깎곤 했으나 풀을 깎다가 피를 보면 부정을 탄다고 하여 마당잡이가 이를 맡아서 하였다. 산신제 경비는 예전에는 장작 하나라도 공출을 하였는데, 지금은 마을회비로 충당한다.

장곡리는 전쟁 중에는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난리 때도 산신제를 지냈다. 옛날에는 소를 잡아서 걸어두었고, 제를 지내고 나면 ‘국 타러 오셔’라고 외쳐 이를 듣고 올라온 주민들이 함께 제를 지낸 자리에서 국을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일제 말엽에는 형편이 어려워져 그때부터 돼지머리를 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돼지머리를 올렸다가 호랑이가 나타난 뒤로는 다시 소머리를 썼다고 한다. 예전에는 도당굿을 3년마다 한 번씩 했다. 만신과 재인을 합쳐 대여섯 명이 마을에 와서 이틀에 걸쳐 굿을 했다.

올해 산신제에는 제관 등 모두 5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오후 3~4시부터 산신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제물은 소머리, 탕, 편, 조리술, 삼색과실, 소금을 올린다. 소머리는 하얗게 다듬어 올린다. 탕은 연육질 소고기 닷 근을 구입하여, 당일 사람이 쓰지 않은 물을 떠서 매봉대에서 직접 끓인다. 일체 간을 하지 않고 물만 부어 산신제 직전까지 끓인다. 떡은 방앗간에서 찌다가 손으로 주물러서 고물이 없이 편으로 만들어 총 11개를 올린다. 조라는 11일 저녁에 누룩으로 산에서 담가 주저리를 해서 썩어놓는다. 삼색과실로는 배, 밥, 감을 쓴다. 터골 산신제에서는 특이하게 소금을 올린다. 탕에 일체 간을 하지 않는 대신에 산신을 위해 따로 끓은 소금을 사기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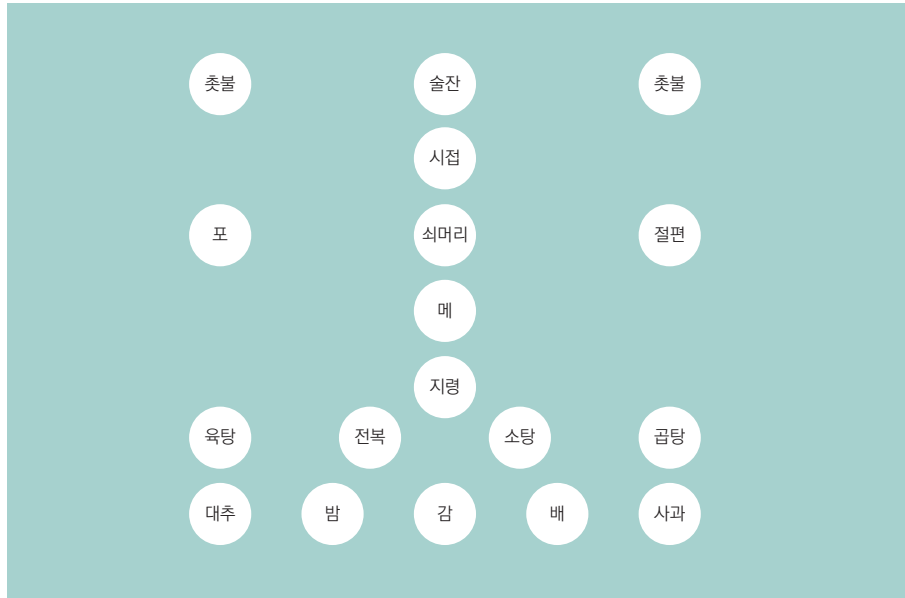
산신제를 지낼 때는 산할아버지와 산할머니, 토지신 등 세 분의 신을 모신다. 제상의 왼쪽에 산할아버지, 오른쪽에 산할머니를 위한 제물을 진설한다. 산신 제상의 왼쪽에 조금 떨어진 소나무 앞에 토지신을 위한 제상을 간소하게 차린다. 우선 토지신에게 술 한 잔을 올려 높은 쪽을 보고 지낸다. 그런 다음 산할아버지와 산할머니에게 제를 지낸다. 모두 삼배를 한다. 장곡리는 영감님, 오산리는 마나님으로 한날 산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오산리는 지내지 않고 장곡리만 지내고 있다.

오산리 오릿골 산치성은 제액과 풍농을 목적으로 유교식으로 지낸다. 당제봉의 제일 높은 봉인 고들봉 나무 밑에 지낸다. 제물로는 소를 쓴다. 젓날은 매년 음력 9월 14일 자정에 지낸다. 9월 3일에 회의를 하여 책임자인 당주 1인, 축관 1인, 돈을 걷고 심부름을 할 주비 4인 등 모두 7인을 선정한다.

각 마을에 한 명의 주비가 집집이 돈을 추렴하며 보통 2,000원 내지 3,000원씩을 걷는다. 부정이 있는 집은 지난해 냈다 하고 내지 않는다. 제물로 잘생긴 붉은 빛의 소를 사되 흥정하지 않는다. 소는 산 밑 우물 앞에서 잡았다. 14일 아침나절에 소를 잡아 저녁에 당제봉으로 가져가 삶는다. 쇠머리를 따로 제상에 올리고 나머지는 끓여 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후 나누어 먹는다. 20여 년 전부터는 통소 대신 쇠머리만 삶



아 제상에 올리고 있다. 제상 차림은 다음과 같다.



산치성 담당자가 결정되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당주 집에 금줄을 매고 황토를 대문턱 두 군데에 놓는다. 생선 같은 비린 것을 먹지 않았고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여 자고 갔다. 저녁에 제관 7인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고들봉에 올라가서 자정에 제사를 지낸다. 익일 주비들이 집집이 재물을 나누어주고 낮에 당주 집으로 모여 결산을 한다. 이때까지 동네에서는 농악을 하다가 산치성 드릴 때 그친다.¹⁾

산업화 이전의 민속은 주로 농경사회의 생활관습들이었는데, 산업화로 말미암아 농업의 분업화, 전문화,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조리읍 지역 내 마을공동체 민속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승주체는 마을 주민이 아닌 공연단체나 외부인 위주의 동호회 등의 활동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농경생활을 하면서 농경사회의 조건과 속성에 맞추어서 누적적으로 형성한 생활관습이던 민속이 본래의 사회적 기반과 조건이 달라지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²⁾

1) 파주시, 『파주시지』 3 파주생활, 2009, 372~375쪽

2) 배영동, 「산업화에 따른 마을공동체 민속의 변화와 탈맥락화」, 『비교민속학』, No. 62, 비교민속학회, 2017 참고



산신제를 지내던 곳으로 가는 도중에 서 있는 현재의 이정표



산신제를 지내던 곳에서 산신제 관련 마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신○○ 회장(장곡1리 현 노인회장)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업노동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마을 사회조직의 변화도 크게 눈에 띄었다. 농촌마을의 사회조직이란 대다수 구성원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동료의식, 사회적 상호작용, 목적지향적 결사체 형태를 갖추고,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이 조직들은 조직의 동기, 기능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혈연적 사회조직, 지연적 사회조직, 이익집단적 사회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혈연적 사회조직은 가족, 혈족과 같은 혈연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자생적 조직을 말한다. 농촌마을의 대표적 혈연사회조직으로 문중계를 들 수 있다. 문중계는 동일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공동으로 집전하기 위한 자생적 사회조직이다.

보통 문중계의 구성은 어떤 동족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한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중계의 공간적 분포는 대부분 한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2~3개 마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중계는 특정한 공동조상의 후손이면 누구나 문중계원이 될 수 있지만 문중계에 관심을 두고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계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다. 모임은 시제(時祭)를 전후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음력 10월 15일에 열리며 시제가 완료되면 곧 종회를 개최한다. 문중계의 의사결정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때로는 합의보다는 종법에 따른 위계질서가 우선이 된다. 문중계는 문중의 공동재산을 조성·관리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계의 활동과 제사 활동 경비로 충당한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등으로 문중계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접어들면서 각 문중에서는 제실 또는 사당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문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묘사(墓祀)를 비롯한 문중 관련 행사가 옛날의 격식을 되찾는 경향이 나타났다.

1970년대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일어나는 시절로서 대표적인 ‘이촌향도’가 일어나던 시절이었다. 문중계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종손과 같은 문중의 핵심적 인물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중의 의사결정이 종손 중심에서 선출된 문중 대표들 중심으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났고, 문중별 족보 편찬사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문중계와 같은 혈연적 사회조직은 제사의 기능은 약화하는 반면에 문중재산의 관리와 유지의 기능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묘제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문중의 묘제일을 공휴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묘제에 사용하는 제수(祭需)의 종류와 수량이 줄어들고 절차도 크게 간소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계원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문중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문중계의 재산이나 기금을 통해 계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각(祭

關)과 관리사를 신축하거나 개·증축하여 문중의 위세와 단합을 과시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예도 있다. 동족원의 수가 많거나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때, 또는 동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 저명인사를 많이 배출했거나 문중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적(地緣的) 사회조직은 자연적인 지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것이 대동계(大同契)이다.

대동계는 상부상조, 마을 공동행사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마을제사와 같은 마을 공동신앙의 집전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연적 사회조직이다. 대동계는 자생적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첫째, 관혼상제 용구의 이용과 관리 둘째, 동제(洞祭)의 거행 셋째, 마을길, 다리, 제방, 보의 수리 등을 들 수 있다. 대동계는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그 구성원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대동계에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가 정하는 일정한 입계미(入契米)를 내고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마을 주민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일종의 입계 절차를 거쳐야 정식 계원이 되었다. 신규 계원에게 입계미를 부과하는 것은 계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의 소유권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권이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게 되므로 기존 계원이 가진 기득권에 상응하는 만큼의 경비를 계에 수납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그 계원의 가계를 승계하는 자손에게 계원 자격이 자동 승계된다. 대동계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부분 음력 동짓달이나 선달 중에 이루어진다. 대동계의 의사결정은 투표보다는 합의제에 의하며 운영에서는 계원의 경비 부담과 이익의 분배는 평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재산과 시설, 기구, 비품 등을 조성하고 관리한다. 대동계는 사회조직으로서 응집성과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동약(洞約), 동규(洞規), 또는 계첩(契帖)을 보유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규제되었던 읍·면·리 및 동 자치가 해방 이후 부활되면서 대동계는 1960년대 말까지 활기를 되찾았다. 197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72년부터 군 조례(條例)로 마을마다 개발위원회를 조직화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개발위원회는 비자생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개발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 또는 동대장 등 3명의 당연직과 읍·면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장이 추천하고 읍·면장이 개발위원들을 위촉하였다. 개발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항 둘째, 마을주민들의 이해와 관련된 요청 또는 민원에 관한 사항 셋째, 마을 주민 복지와 후생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읍, 면장, 이장의 전달사항 등이다. 특히, 마을개발위원회는 새마을추진과정에서 마을 내 각 사회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 내지는 운영이 형식화되기 시작하였다. 대동계가



이 시기에 쇠퇴하게 되는 이유로는 첫째, 부동산인 농지나 임야를 부락이 공유하며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둘째, 마을 단위의 행정력의 강화 따라 이장이 전통적인 마을의 업무까지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었다. 셋째, 장례도구, 혼례용품, 제사용구 등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며, 산신제나 동제 등과 같은 마을제사가 쇠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화의 추진으로 품앗이 등 공동작업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 또한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터진 정치적 비리사건으로 새마을운동이 정치적으로 왜곡됨으로 인하여 마을 개발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부터 대동계는 대부분 마을에서 크게 쇠퇴하고 대신 마을총회(마을회의)에서 대동계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마을총회는 1년에 한두 번 밖에는 열리지 않지만 마을 운영의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중요한 안건들이 마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승인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을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볼 이장을 선출한다. 이장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마을의 대표이지만 행정조직에서 보면 리 직원이다.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³⁾와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는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마을의 경우 이장으로 임후보할 경우나 이장을 선출할 투표권에 여러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텃세'라는 것이 있다. 최근에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장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나 여성이 이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마을총회의 임원으로는 이장과 부녀회장, 총무, 감사 등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농촌마다 노인회가 결성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회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또는 노인회관)의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회는 안정된 물적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주된 활동으로는 경로당의 관리·운영, 친목, 여가생활, 관광 등이다. 때로는 부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 노인회 운영은 관련 복지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계가 미약하고 노인 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노인회의 활동은 단순히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노인회와 더불어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눈여겨볼 조직으로 전문화된 이익집단적 사회조직으로 각종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공동체적 사회질서가 약화됨으로 인해 정을 바탕으로 하는 공생적 협동체계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개별 이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목적으로 타인과 협동을 유지하는 계약적 협동관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

3) 조리음의 경우 매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나, 최근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다. 이러한 전문화된 이익집단적 사회조직은 마을 내에서 단독으로 조직되기도 하지만 몇 개 마을이 연합하거나 면 또는 군 단위로 조직되기도 한다. 이들 전문화된 이익집단적 사회조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으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영농회 등과 같은 농촌지역 비자생적 조직들은 대부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식량증산과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확대를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었거나, 기존 집단을 통·폐합을 통해 조직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직의 자율성이 경시되고, 중앙조직은 비대한 반면 말단 마을조직은 수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마을들이 대부분이다.

조리읍의 문화재와 보호수

고영창(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 조리읍의 지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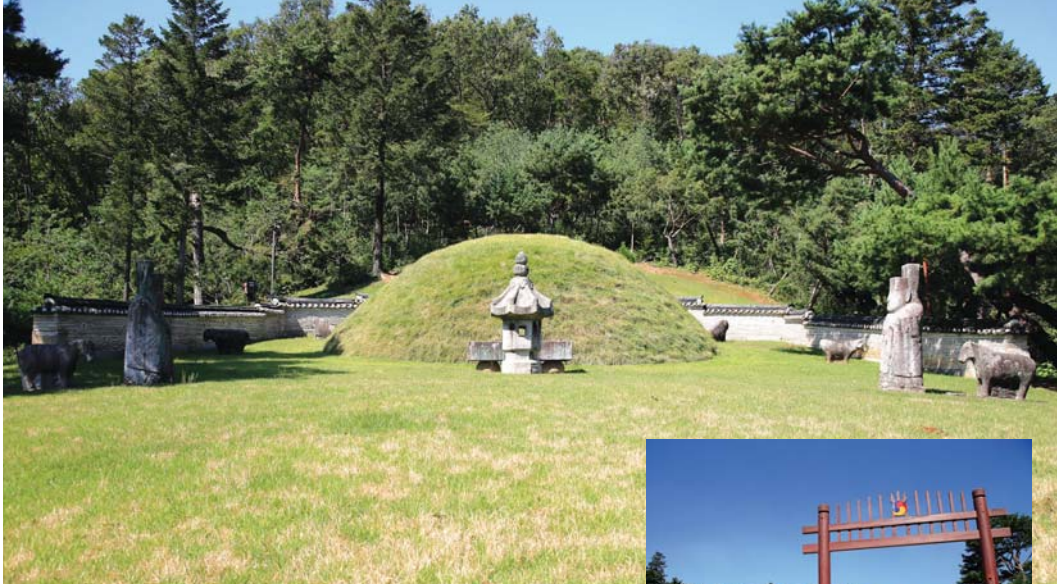
1)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공·순·영릉)

- 소재지: 조리읍 삼릉로 89

공릉(恭陵)은 조선 제8대 예종(睿宗)의 원비(元妃) 장순왕후(章順王后) 한씨의 능이다. 장순왕후는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딸로 1460년(세조 6) 16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책봉되어 인성대군(人城大君)을 낳고 이듬해 1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가 1472년(성종 3)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공릉은 당초 왕후릉이 아닌 세자빈 묘로 조성되어 초석, 병풍석과 난간 등이 생략되고 양석과 돌레들을 둘러 무덤을 보호하게 하였다. 봉분 앞에 상석(床石)과 8각의 장명등을 세우고 좌우 양쪽에 문인석 2기를 세웠고 봉분주위로 석마(石馬), 석양(石羊), 석호(石虎) 각각 2필씩을 두어 능 주변을 호위하고 있다. 능 아래에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다. 비(碑)에는 조선국장순왕후공릉(朝鮮國章順王后恭陵)이라 새겨져 있다.

순릉(順陵)은 조선 제9대 성종(成宗)의 원비(元妃)인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의 능이다. 공혜왕후 역시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딸로 공릉의 장순왕후와 서로 자매지간이다. 1467년(세조 13) 11세에 가례를 올렸고 성종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으나 1474년(성종 5) 4월 슬하에 자식 없이 19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순릉은 무덤 밑 돌레에는 12칸의 난간석이 둘러져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작은 기둥은 건원릉과 태종의 헌릉을 본받은 것으로 조선 초기 무덤에 쓰인 석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봉분 앞에 상석과 8각의 장명등을 배치하고 양쪽으로 문인석과 망주석 2기를 두었다. 또 석양(石羊), 석호(石虎) 각각 2필씩을 두어 능 주위를 호위케 하고 있다. 능 아래에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다. 비에는 조선국공혜왕후순릉(朝鮮國恭惠王后順陵)이라 새겨져 있다.



공릉



공릉의 홍살문



순릉

영릉(永陵)은 조선 제21대 영조(英祖)의 맏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 진종(眞宗·추존)과 그 비(妃) 효순왕후(孝純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진종은 1719년(숙종 45)에 태어나 1724년 영조 즉위와 더불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728년 춘추 10세의 나이로 돌아가 시호를 효장이라 하였다. 1762년 영조는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를 폐위한 뒤 사도세자의 아들인 왕세손[훗날 정조(正祖)]을 효장의 아들로 입적시켰다. 효장은 정조 즉위 후 영조의 유언에 따라 진종으로 추존되었고 능호도 올려 영릉(永陵)이라 하였다. 효순왕후 조씨는 풍릉부원군(豐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딸로 1727년 13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다음 해에 세자의 죽음으로 홀로 되었다가 1751년 춘추 37세로 돌아가 효장세자와 함께 왕후로 추존되었다. 영릉은 왕릉과 왕비 릉을 쌍릉으로 하여 2기의 상석을 앞에 놓았으며 그 중간에 사각옥형의 장명등을 배치하고 문인석 2기와 석양(石羊)·석호(石虎)를 각각 2필씩 배치해 능 주위를 호위케 하였다. 능 아래에는 영조의 명에 의해 옛날 방식으로 세운 정자각(丁字閣)이 있고 비각(碑閣)과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다.



영릉

2) 경기도 유형문화재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이회신도비

- 제작연대: 조선시대
- 지정일자: 1984년 9월12일
- 소재지: 조리읍 장곡리 산20-1번지

1984년 9월 1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신도비 비문은 좌의정 김귀영(金貴榮)이 짓고, 주부 한호가 글씨를 썼으며, 도승지 김응남(金應南)이 전액(篆額)을 썼다.

이회는 1488년 조선시대 성종의 여덟째 왕자로 숙의 홍씨에게서 태어나 9세에 익양군(益陽君)이 되었다. 지용(智勇)이 뛰어나 오위부도총관(五衛府都總管) 등을 지낸 원종공신이었다.¹⁾



익양군 이회선생 신도비각



이회선생 신도비



익양군 이회선생 묘(앞면)



익양군 이회선생 묘(뒷면)

1)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3) 파주시 지정문화재

◎ 향토유적 제12호 이주·이광정 묘 및 신도비

- 제작연대: 조선시대
- 지정일자: 2001년 12월21일
- 소재지: 조리읍 정문로 77-25

이주(李澍, 1534~1584)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언립(彦霖), 호는 분봉(盆峯),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1558년(명종 13)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1573년(선조 6) 권지정자에 보임되고 곧이어 경성판관에 특배되었으며 1583년 사간원정언에 이르렀다. 1584년 형조정랑으로 있다가 그해 겨울 가산군수로 나아가 백성들을 널리 아껴 그 덕을 칭송하는 이가 많았다 한다. 강직한 성품으로 예법에 따라 처신하여 평소 생활에도 반드시 갓을 쓰고 띠를 하고 있었고, 아무리 더운 날에도 옷매무새가 느슨하지 않을 정도였다. 사후 아들 광정이 재상에 올라 영의정에 추증되고 연녕부원군(延寧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정목(靖穆)이다. 이광정(李光庭, 1552~1627)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덕휘(德輝), 호는 해고(海皐),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이주의 아들이다. 1573년(선조 6) 진사시에 합격하고 1590년 동몽교관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선조를 호종하였고 1599년 호조·공조판서를 거쳐 한성부윤이 되었으며 1601년에는 지중추부사로서 청백리에 녹훈되었다. 1604년에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어 연원군(延原君) 그 뒤 보국숭록대부에 올라 연원부원군에 가봉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공조·형조의 판서를 거쳐 1626년(인조 4) 개성유수가 되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수토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이주·이광정 묘는 약 10여 미터 간격을 두고 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주 묘역에는 원형봉분 1기, 묘비 2기, 문인석 2기, 망주석 2기, 상석, 향로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 묘의 바로 아래 조성된 이광정 묘역에는 원형봉분 2기와 묘비, 동자석 2기, 문인석 2기, 망주석 2기, 상석, 향로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역 아래 별도의 비각을 건립해 신도비를 안치하였는데 이주·이광정 신도비 모두 이수부에 반룡 두 마리가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형상을 정교하게 조각하였다. 이주 신도비의 비문은 정경세(鄭經世)가 짓고 이현(李紘)이 썼으며, 1636년(인조 14)에 세운 이광정 신도비는 이기징(李箕徵)이 짓고 이한(李潸)이 썼다.²⁾

2) 자료: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m.paju.go.kr>)



이주 신도비(왼쪽), 이광정 신도비(오른쪽)



이창정 신도비(왼쪽), 이형 묘갈(오른쪽)



신도비각



연안이씨 재실 송모재



연녕부원군 분봉 이주 묘역



최상단에 이주 묘, 아래 계단에 이광정 묘가 있다.



이주·이광정 묘 및 신도비 안내문

4) 전적지/전적기념물

(1) 파주 3.1운동기념비

- 현충시설지정번호: 15-1-11
- 형태: 비
- 건립연도: 1978
- 규모: 경역면적 26.4㎡
비 기단면적 0.5㎡
비 높이 2m
- 소재지: 조리읍 봉일천리 127-1



(2) 대한민국 무공수훈공적비

- 현충시설지정번호: 15-20-42
- 형태: 비
- 건립연도: 1998
- 규모: 경역면적 33㎡
비 기단높이 0.5m
비 높이 2.5m
- 소재지: 조리읍 장곡리 457-1 체육공원 내



(3) 학도의용군 파주지대 6.25동란참전 기념비

- 현충시설지정번호: 15-2-71
- 형태: 비
- 건립연도: 1992
- 규모: 경역면적 33㎡
비 기단높이 0.5m
비 높이 2.5m
- 소재지: 조리읍 장곡리 457-1 체육공원 내

학도의용군 파주지대는 한국전쟁 당시 보병 제1사단 45명이 배속되어 전투를 벌이다 2명이 전사하였다. 매년 생존 회원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모임을 하고 있다.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조국애와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기념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4) 월남 참전 기념탑**

- 현충시설지정번호: 15-2-66
- 형태: 비
- 건립연도: 1998
- 규모: 경역면적 49.5㎡
비 기단높이 1m
비 높이 7m
- 소재지: 조리읍 장곡리 457-1 체육공원 내



(5) 파주시 징집 제1차 6.25 참전비

- 현충시설지정번호: 15-2-62
- 형태: 비
- 건립연도: 1998
- 규모: 경역면적 33㎡
비 기단높이 0/5m
비 높이 2.5m
- 소재지: 조리읍 장곡리 457-1 체육공원 내



(6) 한미해병대 참전비

- 현충시설지정번호: 15-2-61
- 형태: 비
- 건립연도: 1964
- 규모: 경역면적 495㎡
비 기단높이 1.2m
비 높이 10m
- 소재지: 조리읍 장곡리 산 75-1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해병과 한국해병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옛 격전지인 봉일천리에 건립되었다.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작은 돌에 새겨진 글은 6.25 동안 중 한·미 양국 해병대가 목숨을 같이하여 싸운 역전의 기록이다. 이들 싸움터의 고지와 능선에 빗발치듯 수많은 포탄으로 암석이 가루가 되고 지면이 낮아지며 산형이 바뀌는 피아공방, 그 싸움의 참상은 이른바 죽음의 산터미로서 피의 바다를 이루었으니 아! 장하도다 조국 수호의 명령으로 산화한... 젊은 넋으로 산화한 한·미 해병들의 험격한 충혼은 산천과 더불어 자유조국의 수호신으로 영원히 이 땅을 지키리니 고이 잠든 이들 영현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 겨레로 하여금 그 공훈을 길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전승기록을 옛 싸움터에 비를 세워 남기노라.



(7) 해병 제1상륙사단 전공 선양비

- 현충시설지정번호: 15-2-24
- 형태: 비
- 건립연도: 1986
- 규모: 경역면적 217.8㎡
기단높이 1.05m
비 높이 7.9m
- 소재지: 조리읍 능안리 1559 일대



한국전쟁 기간 해병 제1상륙사단이 서부전선에서 세운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하였다.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2년 3월 중동부 전선 월산령 지구에서 서부전선 장단 사천강 지구로 이동한 해병대는 1953년 휴전 직전까지 해병 특유의 감투정신과 용맹성으로 거듭되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격퇴하고 수도 서울의 관문을 지켰다. 그 후 만 6년간 이곳 서부전선을 수호한 해병 제1상륙사단의 빛나는 공적을 길이 보존하고자 여기에 비를 세운다. 이 싸움터에서 자유조국의 수호신이 된 젊은 해병영령들이여! 그대들의 투혼과 공훈은 겨레와 더불어 영원무궁하리라.



5) 마을과 대표 성씨(姓氏)

조리읍 관내에 있었던 대표적인 성씨들과 마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명	성씨	호수	파	파 시조	입향조	입향조 묘소	시제 (음력)
대원리	흥해 배씨 (興海 裴氏)	50	지평공파 참봉공파 배태보파	전(銓)	옹택(龍澤)	고양시 사리현동 산51번지	10월 15일
등원리	전주 이씨 (全州 李氏)	30	해안군파	이환	윤조 (11대조)	뇌조리 산5번지	양력 11월 마지막 일요일
등원리	경주 김씨 (慶州 金氏)	20	계림군파	계림군	수근 (13대조)	등원리 웅록골	10월 10일
뇌조리 선여울	연안 이씨 (延安 李氏)	30	삼척공파	말(沫)	말(沫) (17대조, 1400년대)	뇌조리	10월 15일
뇌조1리 조산	백천 조씨 (白川 趙氏)	10	숙의공파		조완벽 (7대조)	뇌조리 산42	10월 10일
뇌조3리 고창말	함열 남궁씨 (咸悅 南宮氏)	8	모현파	원청 (991)			10월 14 ~15일
능안1리	남평 문씨 (南平 文氏)	15	강성군파	문다성 (文多省)	5대조	능안리 산186	
장곡2리 놀뫼마을	여산 송씨 (廬山 宋氏)	37	충정공파	거신(居信)	익저(翼寧) (21대 조)	광탐년 산산리 산19	양력 11월 첫째 일요일
장곡3리	청주 한씨 (淸州 韓氏)	14	문열공파			장단군 진서면 금능리	10월 초하루

주: 1) 호수는 마을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함. 현재는 그 수가 극소수이다.
2) 파주시지 제3권 참고

2. 조리읍의 보호수

(1) 경기-파주-17

- 수종명: 은행나무
- 지정연월일: 1982-10-15
- 유형: 정자목
- 수령: 약 520년
- 소재지: 조리읍 뇌조리 산 1-20

연안이씨 조상이 이 마을에 들어와 개척할 당시 그 경계를 삼고자 산자락에 심은 나무로 처음에는 여러 그루가 있었으나,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 나무만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수령이 오래되고 거대해지면서부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문과 동네의 번영을 기원했으며, 지금도 이 나무가 마을과 후손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나무 높이는 25m 정도이고 나무 둘레는 1.2m 정도 된다.





2019년 9월 태풍 '링링'에 의해 나뭇가지가 찢겨나가는 피해를 입은 모습

(2) 경기-파주-18

- 수종명: 은행나무
- 지정연월일: 1982-10-15
- 유형: 정자목
- 수령: 약 500년
- 소재지: 조리읍 오산리 산 52번지

옛날부터 마을 뒷산에 오동나무가 많아 오리골이라 불렀는데, 송장산 자락에 울창한 숲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 황새들이 날아와 살았다고 하여 황새리라고도 불리었다. 특히 이 나무는 신통력이 있어 마을의 재앙을 물리쳐주기도 하여 주민들은 지금도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3) 경기-파주-19

- 수종명: 은행나무
- 지정연월일: 1982-10-15
- 유형: 정자목
- 수령: 약 500년
- 소재지: 조리읍 뇌조리 448번지



마을의 유래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그 이전부터 있던 나무의 연혁은 알 수 없으나 나뭇잎이 질 무렵, 한꺼번에 떨어지면 이듬해 풍년이 들고 7~8일의 간격을 두고 떨어지면 그다음 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나무 높이는 20m 정도이고, 나무의 둘레는 약 4m 정도이다.

(4) 경기-파주-20

- 수종명: 느티나무
- 지정연월일: 1982-10-15
- 유형: 정자목
- 수령: 약 400년
- 소재지: 조리읍 뇌조리 162번지



이 마을은 옛날부터 무기를 만들어 보관하는 군납창고가 있던 지역이라 고창말이라 불렸으며, 이 나무는 조선 중종 때 경기관찰사를 지낸 남촌공 이원이 낙향한 후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들을 가르칠 때 정자목으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 나무의 높이는 약 10m 정도이며, 나무 둘레는 약 3.5m 정도가 된다.



사진으로 담은 조리읍의 풍경

고영창(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1. 봉일천리



옛 조리읍의 모습(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수치지형도)



지금의 조리읍 봉일천리 모습. 어느 대도시 외곽의 모습처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봉일천교에서 바라 본 봉일천리 모습. 중소규모의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



조리읍 봉일천리에 소재하는 동문1·2차 아파트. 199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아파트들이 세워졌다.



조리읍 봉일천리에서 대원리와 고양시로 넘어가는 길목에 봉일천교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건설되었다가 훗날 다시 새롭게 가설되었다.



공릉천변을 따라 건축된 봉일천리 아파트들. 제방을 쌓아서 새롭게 생긴 땅에다 건축을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천변을 따라 수변공원 시설도 갖추고 있다.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앞 4거리 모습



조리읍 봉일천 우체국



1970~1980년대와 2000년대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조리읍 봉일천리 한 골목의 모습



1920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봉일초등학교의 현재 모습



조리읍 봉일천리 모습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 서 있는 민영달¹⁾ 영세불망비

1)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우당(藕堂). 군수 민관호(閔觀鎬)의 아들이다.(자료: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한창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파주삼릉의 모습 (자료: 네이버 지도 항공뷰)



파주삼릉 역사문화관

2. 대원리·능안리



대원1리 마을회관. 옛 마을 공동부지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대원리 마을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올해 99세이신 송주현 어르신과 대원리 주민. 왼쪽부터 김수경(84세, 전임 이장), 송주현(99세, 마을 최고령), 배명기(75세, 전임 이장), 송재흥(80세)(대원1,2리 경로당)



대원3리에는 예전에 기와, 벽돌, 노깁²⁾ 등을 만들던 공장들이 4~5개가 있었다고 한다. 모 건설회사에서 이들 공장 부지를 매입, 이곳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분양하여 지금의 대원5·6리가 생겨났다. 현재 굴뚝 2기만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대원리 소재)



대원리 마을 앞 들판. 공릉천과 한강, 그리고 임진강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총적평야 지대였던 이곳은 인근 고양시가 개발되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이곳에 농지를 마련 화훼, 채소류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근교 농촌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 '도깁'으로도 불리는 일본식 건설현장 은어(隱語). 정식명칭은 '토관(土管)'으로 시멘트나 흙을 구워 만든 둥글고 큰 관으로 한 때 우물이나 굴뚝 또는 배수로로 많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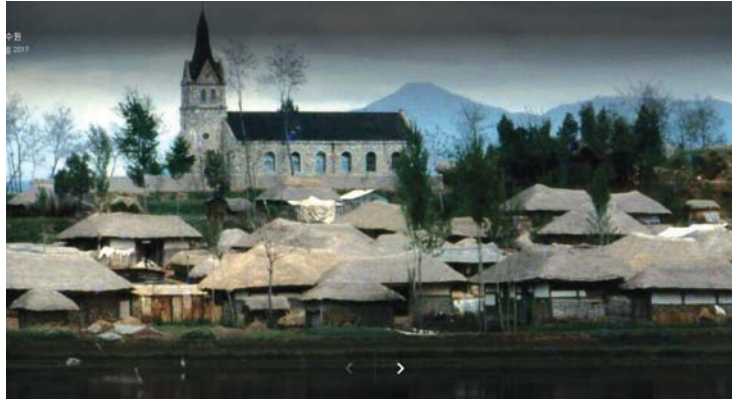
대원리 마을 앞 들판. 시설재배 농사는 주로 외지인이, 논농사는 농업용 기계화 장비를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간다.



1949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사건으로 퇴학 처분의 징계를 당한 당시 주일학교 학생 36명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십계명 신앙비



파주시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파주 대원 장로교회. 1901년 당시 마을 주민 6명이 서울 구파발로 장사를 하던 중 복음을 접하고 이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1905년에 20여명 규모의 목조초가 형태의 예배당이 건립되었다.



대원2리 앞 벌판에서 찍은 대원교회 이전의 모습. 마을 최고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 주민 대다수가 교회를 다닐 정도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건물 1층은 돌로, 2층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던 건물을 1953년 미군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1층을 돌로 지었으며, 2층은 이후 개축 과정에서 붉은 벽돌로 건립하였다. 지금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다.(자료: 네이버 지식인 화면캡처)



지금의 대원교회 모습. 위의 예전 교회 주변 경관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튼 ㅁ자 모양'의 대원2리 농가주택. 대원교회 마당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현재 대원1리 모습. 도시주택 외관의 개량 주택과 빈집 그리고 마을 안 깊숙이 들어선 공장건물들. 저 멀리 봉일천리 일대의 아파트들과 대원4리 한라비발디아파트의 모습이 보인다.



대원2리 마을길과 농가주택



2층 구조로 되어있는 대원1·2리 카네이션 하우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함께 점심식사와 친목을 다진다.



대원4리 한라비발디아파트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시는 대원4리 주민들. 30~40명 내외가 매일 모여 식사와 오락을 즐기신다.



능안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는 전 이장 문○○님과 현 이장 김○○님





능안마을 북쪽 상공에서 바라본 능안리 모습. 마을 전체가 크고 작은 공장과 창고로 메워져 급속히 공단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원주민은 거의 떠나고, 그 자리를 공장근로자와 외지인들이 채우고 있다. 심지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찾는 사람이 없어 평일에도 문이 닫혀 있을 정도로 원주민은 거의 없다.(자료: 네이버 지도 항공뷰)



누군가를 기다리며 집 앞 의자에 앉아 계시는 능안리 마을 어르신(2019. 7 촬영)

3. 장곡리



장곡저수지와 고산천, 장곡1리(옛 지명 터골) 마을의 모습. 1960년대 저수지 조성으로 수몰된 주민들은 대부분 외지로 이주하였으며, 저수지 조성으로 이웃마을 뇌조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 정작 장곡리는 손해만 받았다고 한다. 많은 반대를 하였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우측 하단에는 골프장과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자료 네이버 지도 항공뷰)



장곡2리와 3리 마을 모습. 1리와 2리 사이에 한국전쟁 당시 휴전회담이 한창이던 때, 장단군 진서면 나리동 주민들이 집단으로 피난을 내려와 거주하면서 3리 마을(속칭: 수용소 마을)이 생겨났다. 산에다 움집을 파고, 산에서 구한 나무로 벽을 세워 만든 임시거주지에서 살았다. 또한 산에서 구한 나무로 땔감을 만들어 금촌장에 내다 팔았으며, 모내기철에는 인근 논에 나가 낱품을 파는 등 매우 지난(至難)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장곡2리는 대부분이 공장들로 실제 놀외공단으로 불릴 정도로 공장들이 마을 가득 입주해 있다.



장곡1리 마을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설명하시는 노인회장 신○○님과 마을 이장 박○○님



장곡1리 마을회관 앞 창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마을경비로 사용한다.



현재의 장곡1리 마을회관



장곡2리(놀외마을) 전경(사진 제공: 이윤희)



고향인 장단군 진서면 나리동에서 한국전쟁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주신 권○○(1939년생) 님



장곡3리 주민들은 매일 점심 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신다.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재배한 채소로 부식을 해결한다고 한다.



아직도 움집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곡3리 주택. 방 1칸, 부엌 1칸의 3~4평 규모의 주택. 집주인은 병환으로 요양소에 입원하고 계시고 집은 비어진 상태



측면의 모습



단칸방 내부 모습 1



단칸방 내부 모습 2



부엌 내부 모습 1



부엌 내부 모습 2



옛날 변소. 옆에는 돼지나 닭을 키우던 우리가 있었다. 문 밑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다.(장곡3리 소재)



시멘트와 모래 등을 주원료로 틀에 찍어 만들어 낸 조립식 담벼락(장곡3리 소재)



그동안의 삶의 과정을 말해주는 장곡3리 김○○(1940년생) 남의 쭉고, 굽어진 손가락. 비록 지나온 삶이 힘들었지만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셨다.



돈을 받고 수거해온 온갖 건축폐기물 등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한 현장. 한때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었다.(장곡리 소재)



4. 뇌조리 · 오산리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에서 바라본 뇌조1리 마을 모습. 마을길을 따라 중소규모 공장들과 화훼단지(특히 장미) 비닐하우스가 눈에 띈다.



뇌조1리 마을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뇌조1리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고산교 옆에 서 있는 느티나무



뇌조1리 마을 전경. 옛 가옥과 공장시설 그리고 마을 뒷산을 깎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가 보인다.



뇌조1리 마을회관과 마을버스 정류장. 뒤편으로 빼곡이 들어서 있는 공장 건물들이 보인다.



형질변경이 어려운 논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 공간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뇌조리의 현재 모습



농지 전용이 가능한 일부 토지의 경우 시설재배(특히 장미)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다.



뇌조1리 마을회관과 주변 모습



뇌조1리 소공단 안내판. 이 역시 뇌조1·3리 마을 안에 입주해 있다.



뇌조1·3리 마을 초입에 있는 공장 안내판. 20여 개 공장들이 입주해 있다.



뇌조1·3리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또 다른 입주 공장 안내판



오산삼거리. 한적한 도로였던 이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선 이후 차량통행이 매우 빈번하다.



오산중소산업단지를 가리키는 교통표지판. 오산리 마을과 산속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오산리에 들어서 있는 공장들과 공동주택의 모습.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산리에 들어서 있는 공장들과 공동주택의 모습



마을 안 깊숙이 공장들과 전원주택들이 들어서고, 심지어 경사가 급한 산 밑까지 택지와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주변경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오산리



마을 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소규모 공장들. 점점 산 밑으로 개발이 진행, 진입도로가 매우 가파르다.(오산중소산업단지)



오산1리 경로당을 겸하고 있는 마을회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식사를 함께한다.



오산리 마을 유래와 변천에 관해 설명하시는 마을 주민. 앞쪽부터 신○○(1940년생), 김○○(1934년생), 박○○(1938년생), 이○○(1941년생), 이장 유○○ 님



가파른 경사지에 옹벽을 세우고 주택지를 조성한 오산리 단독주택 모습. 산 쪽으로 점점 확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산제사를 거행하였던 오산리 오랏골 고들봉(사진 제공: 이윤희)



오산리 일원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기도원과 수련원, 묘원 등 서울에 있는 종교단체들의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5. 등원리



1966년 말레이시아에서 5,000불, 경기도 보조금 300만원, 파주군비 200만원을 들여 길이 60m, 폭 7.5m로 준공한 말레이시아교의 현재 모습 (조리읍 등원리 소재)



말레이시아교 준공식 장면 1



말레이시아교 준공식 장면 2(자료: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등원1리에 있는 옛 우물터. 예전에는 이곳에서 우물제사도 지냈다고 한다. 농촌근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70년대 이후 마을의 주요 식수원이자 생활 용수원이던 우물은 점차 그 실용적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마을 공동체제로 진행되던 우물제사 역시 전승력이 점차 쇠퇴하여 이제는 우물고사를 지내는 마을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등원1리 농가주택. 젊은이는 마을을 떠나고 늙으신 부모님만 집을 지키고 계신다. 지붕을 떠받고 있는 기둥이 몹시 힘들어 보인다.



등원리 마을 유래와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이○○(노인회장, 81세)와 정○○(90세) 님 등 마을 주민과 마을 이장 이○○ 님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된 등원리 소재 농가주택 1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된 등원리 소재 농가주택 2



등원1리 마을 모습. 마을 감속이 창고시설이 들어서 있다.



현재 농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가주택의 경관 및 기능변화 모습. 지붕은 초가에서 개량형 기와 또는 양철지붕으로, 벽체와 창호는 현대식으로, 지붕처마 옆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았다.(등원리 소재)



등원1리 마을 안길. 마을길을 따라 공장이 들어서 있다.



등원1리 마을 안길. 공개(空家)이거나 개량형 기와로 보수한 주택 그리고 뒤쪽으로 최근에 신축한 공동주택 건물들이 각각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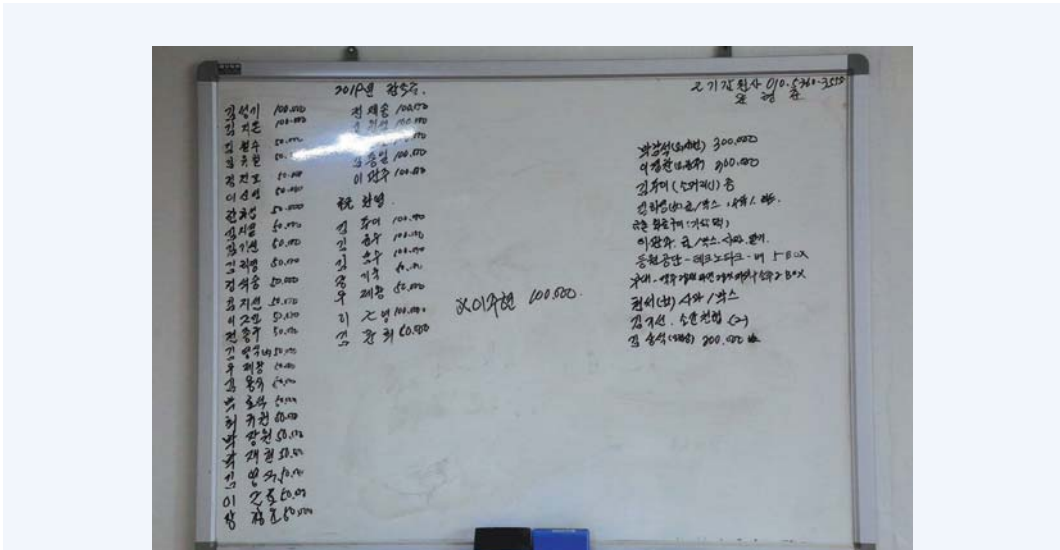
사람과 집, 그리고 처마 밑 꽃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등원1리 한가주택 앞)



지나가는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과 집 지붕 너머 새롭게 건축된 공동주택(등원1리)



1970년대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모습의 옛 농가주택(등원1리)



등원1리 마을회관 내에 게시되어 있는 찬조금 명단. 마을 부근 군부대와 공장에서 마을행사 때마다 약간의 금품을 기부하여 주민들을 위로한다고 한다.



등원2리(옛 지명: 낙머리, 낙모랭이) 현재 모습. 옛 마을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새로 신축된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등원2리 마을회관과 주변의 모습



등원2리의 옛 지명을 알려주는 표지석



등원2리의 현재 모습 1



등원2리의 현재 모습 2



단독주택 뒤로 최근에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주택들(등원2리)



참고문헌(03 인구구성의 변화-08 사진으로 담은 조리읍의 풍경까지의 참고문헌)

- 김기혁, 「촌락과 농경지」, 『대한지리학회보』, 제33호, 대한지리학회, 1991
- 김문식, 「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Vol.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 김성호 외 3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김원, 「60~70년대 기지촌 계도화의 변곡점」, 『역사비평』, No. 112, 역사비평사, 2015
- 김정호, 「농지개혁 후 자작농의 성격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김준, 「농촌마을의 조직과 공간구조의 변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1
- 김태현, 「농촌인구의 특성과 그 변화, 1960~1995」, 『한국인구학』, Vol. 19 No. 2, 한국인구학회, 1996
- 김태현,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한국인구학』, Vol. 24 No. 1, 한국인구학회, 2001
- 문국표 외 4인, 『근교 농촌의 해체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박대식, 「해방 후 농촌 사회조직의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배영동,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와 연구의 방향」, 『민속학연구』, No. 41, 국립민속박물관, 2017
- 배영동, 「산업화에 따른 마을사회의 농업노동형태 변화」, 『민속연구』, Vol. 1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9
- 서태홍·진정,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 13 No. 3, 대한건축학회, 1997
- 손인애, 「경기 서북부지역의 모심는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Vol. 14, 한국민요학회, 2004
- 양기용 외 9인, 「파주지역연구 경기개발연구원 편」, 『지역연구』, No. 1, 경기개발연구원, 1997
- 오유석,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오창현, 「농지개혁과 마을 공동체의 변형」, 『비교문화연구』, Vol. 14 No. 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8
- 이영기, 「농지개혁 이후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 『지역사회연구』, Vol. 10 No. 1, 한국지역사회학회, 2002
- 이은혜, 「농지개혁의 의미와 한계」, 『법학연구』, Vol. 21 No. 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이재덕,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사회과학연구』, Vol. 16, 서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임근해, 「근대화 이후 우물제사의 전승 원동력」,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 20, No. 2, 역사문화학회, 2017
- 장성준, 「농촌지역의 마을과 주택의 유형과 진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 26 No. 7, 대한건축학회, 2010
- 전호상·이상해, 「농촌 근대화 과정에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농촌 표준 주택 설계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Vol. 21 No. 1, 대한건축학회, 2001
- 정기환, 「농촌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최재석,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1988
- 파주군, 『파주군지』 상·중·하, 1995
- 파주시 통계연보
- 파주시, 『파주시지』 1~9, 2009
- 파주시청 홈페이지
- 홍승표, 「태극기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640호, 대한기독교서회, 2012

평생 '조리'를 지키며 살아온 삶

김윤재 (파주시 조리읍)

| 글 | 오순희



어린 시절에서 청년이 되기까지

김윤재 파주시노인회 회장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4월 1일에 봉일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 오고 있다. 자녀는 1남 3녀로 모두들 분가하였고, 현재는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던 부인 김정희 여사와 두 분만 봉일천에서 살고 있다. 교육은 6.25때 봉일천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청운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였다. 연세대 재학 중인 1958년에 해군에 입대하여 1년 6개월을 마치고 학보제대를 하였다. 두 분 부모님 중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졸업과 군 복무를 마치는 동안, 어머니가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 김윤재 회장은 어머니가 고생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불효로 남아 있다고 한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25세에, 봉일천에 사설 우체국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 때는 전국에 정부에서 설립한 우체국이 많지 않았던 때라 사설 우체국 설립이 가능했다. 우체국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파주에서 농사짓는 젊은 청년들과 농촌지도자과정을 공부했다. 무엇이던지 배우려는 의욕과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농촌지도자과정에서는, 올바르게 농사짓는 법과 비료와 농약 사용법 등을 배웠고, 공동작물재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배우기만 하고 직접 농사는 짓지 않았고, 제방 옆에 있던 논은 다른 사람이 맡아서 농사를 지었다.

정당생활 15년

우체국은 3~4년 정도 운영하다가 동생에게 맡기고, 민주공화당 고양, 파주 비례대표국회의원인 신윤창 의원 사무실의 조직부장을 맡게 되어, 그때부터 정당에 몸담게 되었다. 1967년 당시 선거구 사무실은 의정부(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에 있었고, 파주에는 연락사무소가 있었다. 그 당시 일찍 정당

일을 맡게 된 김윤재 회장은, 전국 국회의원 사무국장 중에서 최연소였다. 그 후 박명근 의원 때에 또 다시 박명근 의원 사무실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경기도당 조직부장으로 전임했고, 다시 중앙당 조직부 제2실장과 직능조직부차장으로 민주공화당이 해산될 때까지 있었다. 이용호 의원 지역구 이사를 지내는 등, 정당생활을 15년간 하고, 그 후에 협진양행 임원으로 들어가 뒤늦게 직장생활을 8년 동안 했다. 그러는 동안 새 출발하는 수많은 신랑신부의 주례를 서주며 축복해 주기도 하였다

초대 시의원

김윤재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소 어떤 사안에 대해 때때로 아쉬웠던 적도 있었고, 나라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있던 터에 마침 대한민국에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직접 정치에 나서서 그동안 생각해 왔던 바를 실천해 보고 싶었다. 그 결과 1991년 초대 시의원에 당선 되어 시의원으로서 파주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 파주는 그때 막 개발이 시작되던 시기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더불어 교하 쪽에 레미콘 공장이 많이 세워졌다. 그 당시 봉일천에 한라아파트와 동문그린시티가 들어서던 시기로, 통일로에서 서울로 오가는 차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 자연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통일로는 봉일천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는 길로, 봉일천 초등학교가 바로 통일로 변에 있어서 어린이들은 늘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건너 다녀야 했다. 어린이들이 위험한 길을 건너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려면 육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당시는 건축물을 세우려면 군(軍)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렵사리 군 동의를 얻어내고, 시 예산을 배정받아 바로 봉일천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하였다. 그때부터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오갈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다닐 수 있었다.

시의원은 초대만 하고 끝내고 더 이상 선거에 나가지 않고 물러났다. 시의원이 되면 자동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시의원을 그만두고도 계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하여 총 10년을 봉사한 공로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2005년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았다.

1997년 조리읍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취임 했는데, 그해에 IMF가 터졌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리고 파주에도 홍수가 나, 농협 건물 지하에 물이 들어차는 일이 생겼다. 그 두 사건을 당한 일은 아찔했던 경험이기도 하지만, 큰일 없이 무사히 수습하고 농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조합장 4년을 마친 후,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재임하지 않고 1회 임기를 끝으로 물러났다.



대한노인회 파주시회장

김윤재 회장은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일을 인생의 마지막 봉사로 선택하였다. 대한노인회 파주시 조리읍분회장을 2010년부터 8년간 역임하고, 2018년부터 대한노인회 파주시회장으로 취임하여 바쁘게 보내고 있다. 현재 파주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외에 각 동과 면에 1개소씩 16개의 분회가 있고, 아파트와 마을 단위로 419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회원수는 17,000여 명이다. 파주시 노인회와 각 분회 그리고 경로당의 역할은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 뒷전에 내몰린 듯한 상실감에, 허무하고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밝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삶을 살아 온 노인들은 아무 할 일도 없는 현재의 상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통계는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사회와의 단절, 자녀나 가족 간의 갈등과 외로움은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끈을 놓아 버리게 한다. 그런 처지의 노인들에게 노인회와 경로당이 작으나마 그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경로당에 나가면 외로운 노인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점심을 먹고, 복지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을 마련해 준다. 평생학습은 체육활동과 컴퓨터를 배우기도하고 댄스와 외국어 노래교실 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에 십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재 회장은 노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듯 복지관에 나와,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조리읍 삼거리에는 3.1운동 기념비가 서 있다. 1919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대한독립을 외치는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고, 파주에도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 교하에서 처음 시작되어, 광탄 장날을 거쳐 봉일천 장날 구름처럼 모여든 장꾼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개성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봉일천 시장은 장날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이어서 만세운동을 하기에 제격인 곳이었다. 조리읍에서 태어나 자라고 평생을 지키며 살아온 김윤재 회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사건이 기념비로 서 있는 고향 조리읍을 자랑스러워하며, 여생을 조리읍과 파주를 위해 봉사하며 살 것을 늘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고향 마을과 농촌사랑의 일꾼

남궁섭 (파주시 조리읍 뇌조로)

| 글 | 표석정



남궁섭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조리읍 농협 푸드코트 전시장을 찾았다. 이른 새벽에 출하 되는 농산물을 일일이 살피며 마을 농부들을 환한 미소로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도농 마을의 첨병 남궁섭 조리농협 조합장이었다. 이른 새벽 농산물 출하와 입고를 살피기에도 바쁜 조합장과의 인터뷰는 틈새의 시간으로 조각조각 이어 나갔다. 잠깐의 인터뷰를 마치고 남궁섭 조합장은 아침 회의를 위해서 바쁜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농사를 천업으로 여기고 사는 남궁섭 조합장은 농민들의 수익과 발전을 위해 부지런한 삶의 행보를 하고 있는 그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내면서 행복을 느꼈다.

가족사항

6남매 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남궁섭 조리원장은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아내 서용란 여사와 자녀로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등화관제와 호기심

남궁섭 조리읍 농협조합장은 자경농과 장사를 천업으로 여기던 부모님의 슬하에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난 이래로 고향마을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며 고향을 지키고 있다.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던 시절 우리 사회에는 등화관제라는 제약이 있었다. 파주는 지리적으로 군사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남궁섭 농협조합장의 어린 시절 역시 등화관제 통제가 엄격했던 시절이었고 환한 낮이 아니면 책을 읽는 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햇빛으로 책을 읽고 새벽의 찬 기운을 맞으며 소여물을 끓여 먹어야 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



이 있었다. 옛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먼 곳의 산을 바라보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했다.

마을에 집들은 초가집이었다. 당연히 이렇다하게 잘사는 집안은 찾아보기 힘든 소박한 동네였다. 친구들과 어울려 초가지붕에 숨어 있던 참새를 잡아먹기도 했고 신나게 뛰어 놀던 산과 들은 그들의 놀이터였다. 자치기, 팽이 돌리기, 여자아이들의 고무줄 끊어먹기, 썰매타기 등으로 하루해를 보내던 시절의 이야기는 지금도 신바람이 난다. 앞집 옆집 뒷집이 서로 집안처럼 지내던 그 시절 친구들과 신나게 놀던 뒤 끝에 배가 고프면 콩서리, 참외 서리, 등을 하면서 장난질을 쳤어도 어른들의 푸근한 인심덕에 못 본 척 외면해주는 너그러움이 그림자. 여름날에는 시원한 아이스케키가 먹고 싶었지만 돈을 내고 사 먹는 호사는 누릴 수 없어 용감하게 아이스케키 통을 울려 메고 장사를 해 본적도 있었다.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또 하나 있으니 천막영화상영, 마을 콩클대회, 천막 서커스단 공연 등이다. 그 당시엔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에 지금도 그 감동들이 마음에 남아 있다.

자전거와 TV

조리읍 봉일천에서 문산중과 문산종합고(현재 제일고)를 버스로 다니던 시절이었다. 교통수단이 빈약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서둘러 버스를 타러 나가야 했다.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으나 더 이상 사람들이 탈 자리가 없는 버스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했다. 지각생들은 원산폭격, 제자리 뛰기, 팔굽혀펴기 등 벌을 받아야 하는 터라 지나가는 버스가 야속하여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이를 아신 아버지께서 가난한 살림에도 자전거를 하나 장만해 주시었다. 자전거를 타고 논둑길을 달릴 때의 쾌감은 아버님의 따스한 사랑이 떠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심이 커져만 갔다. 버스에 승객이 가득하여 창문에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들을 보면 자유롭게 자전거로 가는 기분은 지금도 상쾌하게 떠오른다. 생각해 보면 그 덕에 지금도 튼튼한 체력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다. 학창시절 아버님의 가르침은 훗날까지 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욕을 먹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들과 의 사이에서 융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무엇이든 순리에 어긋나지 말고 이치를 깨우치며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는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다.

당시 식량부족으로 지력을 높이기 위한 퇴비증산운동을 했던 시절이라 마을에서는 합심하여 퇴비를 만들었던 일들과 마을에 한 대밖에 없는 TV를 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같이 지냈던 그 시절은 사람냄새가 나고 따스했으며 지금의 핵가족 시대보다는 인정어린 그때가 훨씬 좋았다고 한다.

군대 시절

그 당시는 현역병과 방위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현역병으로 나가는 입영 통지서를 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1989년 기관총사수로 31개월 동안 복무했던 군대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하였다.

농촌마을 지키기

6남매의 장남이었기에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서둘러야 했다. 어려운 살림에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의 아내가 선풍 결혼을 해주었고 그 많은 집안의 대소사를 소리 없이 해준 참 묵묵하고 따뜻한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하였다.

마을 이장이었을 때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공동 쓰레기수거, 소각을 통해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여 마을 주민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장애인자립위원장으로서 4년 동안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였다. 이 일을 통해 더욱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고향 마을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 농협감사 6년 등을 역임했으며. 학문에 대한 열의가 높아 자신과 마을 발전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농협대학을 졸업하였고 2019년 3월 조리읍 농협장에 당선하여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해 더 큰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마음속으로 ‘온고지신(溫故之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좌우명을 지니고 고향농촌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온 마을을 지켜온 성황당 나무를 연상하게 하였다.

지금도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조합장을 맡아 일하는 그는 직원들에게도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다. 농촌마을을 지키고 자녀들이 이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손자들을 농촌에서 키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과 숲에서 주는 공익적 가치 등을 가르쳐 도시로 보내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고향마을과 농촌사랑이 깊게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파주 산림계의 산증인

이인희 (파주시 조리읍)

| 글 | 오순희



조선시대 명문가 연안이씨 가문의 후손

전 도의원 이인희 선생은 봉일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으며, 부인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봉일천초등학교와 문산중·고등학교를 나왔으며, 1990년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50기로 졸업하였다. 이인희 선생의 본은 연안이씨로 조선시대 벼슬을 한 분이 유난히 많은 명문가 집안이다. 특히 파주에 높은 벼슬을 했던 조상들의 묘가 많이 있다. 이번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 무덤인 의마총(義馬塚)은, 선조인 이유길의 애마 무덤이다. 선조들 중, 이후백과 이광정은 청백리에 녹선되어 가문을 빛낸 분들이다. 파주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율곡 이이와도 인연이 있다. 바로 이숙함이 율곡 가문의 정자에 화석정(花石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증건기를 써준 분이다.

연안이씨의 시조는 1333년 전인 660년, 신라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연합한 나당연합군의 일원으로 소정방과 함께 온 당나라 중랑장(中郎將) 이무로, 백제를 평정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신라에서 벼슬을 하였다. 태종무열왕으로부터 백제평정의 공로로 연안백(延安伯) 작위를 받고 연안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연안이씨 시조 '이무'의 묘소는 대전 국군묘지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고아가 될 뻔했던 사연

6.25가 터지고 1.4 후퇴를 할 때, 이인희 선생은 부모님과 피난길에 나서, 서울까지 갔다가 그만 부모님 손을 놓쳐 헤어지게 되었다. 그때가 열한 살이었는데, 혼자된 어린 이인희는 살기 위해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아침밥은 이집 저집에서 얻어먹었다. 이인희 선생은 어릴 때부터 이미 머리가 영리했었으니, 아침에 굴뚝을 보고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데, 굴뚝의 연기가 검게 나오면 아직도 밥을

하는 중이고, 연기가 하얗게 나올 즈음이 되면 밥이 다 되어 뜸을 들이는 중이니, 그때쯤 가면 밥이 다 되어서 쉽사리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집을 찾으려고 증공군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 가, 수원의 발안까지 갔다가 다시 김포까지 가게 되었다. 김포에서 배를 얻어 타고 난지도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기차길을 보게 되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니 경의선이라고 했다. 경의선은 파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경의선 따라 북쪽으로 가다보면 집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 걷고 또 걸어서 3월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열한살 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로만 알고 슬픔에 젖어 있던 부모님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열한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 잃고 온갖 고생을 경험하였던 이인희 선생은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논 가는 것도 배우고, 벼짚으로 지붕 잇는 것까지 배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공무원 시절

군대에 다녀와서 파주군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1975년도부터 산림과 보호계장으로 근무했는데, 그때 우광선 군수로부터 파주시 공무원 1호로 청백리상을 받았다. 선조들이 받은 청백리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근무에 충실하고 청렴하게 처신하였다고 주는 상이니 충분히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청백리 상금으로 그 당시에 매월 5,000원씩 1년간을 받았다.

그 후 1980년도에 조리면장으로 나가 3년 8개월 동안 근무하고 1984년도에 퇴직했다. 조리면 면장 시절인 1980년도에 봉일천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신이 먼저 300만원을 내고 마을주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학교 부지 1만 4,500평을 사서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경기도 예산 10억을 받아 1983년도에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면장 시절에 조리면에 상수도를 설치하였고, 파주군 예산으로 땅 2,000평을 사서 조리면사무소를 새로 건립하기도 하였다.

도의원과 산림조합장

이인희 선생은 파주 산림계의 산증인이다. 공무원일 때는 산림과에 있었고, 1987년도 산림조합장 당선을 시작으로 4번 당선하여 15년 동안 근무하였다. 산림조합장으로 있으면서 1998년도에 도의원에 당선하여 산림조합장과 겸직하였다. 산림조합장으로서 해낸 큰일 중에는 당시 군청 앞에 있던 40평 규모의 작은 산림조합 건물을, 금촌역 앞 360평 부지에 지하 320평을 파고 1,000평 건물로 지어 1993년도에 이전하고, 파주에서 최초로 산림조합에서 은행을 설치한 일이다.



도의원 시절에는 봉일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도지사에게서 예산 80억원을 받아 우선 학교 진입로를 만들고, 도교육위원회에서 350억원을 받아 와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50억원을 추가로 받아 기숙사까지 세웠다. 현재 봉일천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로 인가되어 명실상부 명문고등학교가 되었다. 그때는 학교를 설립하는 데 남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온 정열을 다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부모들과 교직원들 발의로 봉일천고등학교 교정에 공덕비가 세워졌다. 이인희 선생은 극구 사양하고 말렸으나, 결국 공덕비가 세워졌다면 축스러워하였다.

1980년도에는 공릉유원지를 파주시 국민 관광지로 지정받았고, 임진각에 평화의 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도에 종각과 범종을 설치할 수 있었다.

산림조합장으로 있을 때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내, 전국최우수 조합으로 3회나 선정되었다. 그 덕에 파주시 산림조합이 전국에서 1등가는 최고의 조합으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공무원 경험을 발판으로, 시청 발주 사업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무심기에 열심을 다하는 한편, 마을의 당산나무나 정자나무 등을 베지 못하게 조례를 만들어 보호수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엄격하게 산림을 보호하고 지켜내다 보니 '진돗개', '독일병정'이라는 병명을 얻기도 했다.

뻗속까지 파주 사람, 조리 사람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고, 장관상만도 5번이나 받았다. 그 외에도 평생 노력하고 봉사해 왔던 것만큼이나 수많은 상패와 상장을 받았다.

이인희 선생은 뻗속까지 파주 사람이다. 파주를 위해, 특히 조리업을 위해 평생을 일해 왔고, 지금도 파주가 잘되기를 염원한다. 임진각의 '평화의 종' 건립을 추진해서 성사시키기도 했지만 지금도 임진각에 가보면 아쉬운 일이 있다고 한다. 임진각 건물만 덩그러니 있던 시기, 임창렬 지사로부터 임진각 일대의 20만평을 경기도보조금 150억 대신 받았는데, 파주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 일부는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일과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을 하거나 개인적인 여행으로 50여 개 나라를 다녀왔다.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은 가끔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아침 칠간다리에 서 교하다리까지 걷는 운동을 하며 보내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파주가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일 뿐이다.

소인으로 재능을 나누다

이형우 (파주시 조리읍)

| 글 | 김선희



속이 가득 차기 시작한 김장배추가 벌써 한 아름 자라 햇볕에 푸르다. 옆에는 쪽파, 대파, 무, 고수, 상추, 가지, 들깨 등 가족을 위해 심어 가꾼 채소들이 화단인 듯 예쁘게 자라고 있다. 주인을 닮은 밭은 가지런하고, 이랑을 옮겨가며 분주한 부부를 비추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

이형우(83세)씨는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서 나고 자랐다. 3남매는 잘 자라서 손주가 여섯 명이 되었다. 봉일천 공립보통학교(현 봉일천초등학교)를 다녔고 1965년부터 근무한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서 2000년, 35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금은 내외가 논과 밭을 오가며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지낸다. 어려서 본 것과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신다.

되찾은 마을 이름 대원리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현재 조리읍) '죽원리'는 '죽었니'로 들려, 좋지 않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주민 청원이 있었다. 마을 이름 하나가 바뀌면 행정적으로 일도 많아지고, 호적도 고쳐야 하고, 지도도 바뀌어야 하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 안 된다며 계속 보류가 되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져 2000년 '대원리'로 지명이 바뀌었다. 원래 마을 이름을 되찾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대원' 또는 '대원리'라 불렸으나 흥선대원군의 군호(君號)와 같다고 해 '대(大)'자를 대나무를 뜻하는 '죽(竹)'으로 고쳤다. 마을에 대나무가 많았던 것은 아니고, 대원군 행차에 연도 나간 백성들을 보고 대나무처럼 청정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런 것 같다고 이형우씨는 말한다.

함께 살기 좋은 마을

예전에는 씨족이 모여 마을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현대의 대원리는 그렇지 않았다. 어른들께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김해김씨네와 조선 정종 임금님의 아들 임언군 후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 500여 년 전이다. 그 후 은진 송씨네와 흥해 배씨네가 300~400여 년 전부터 살았다. 그러나 1903년 교회가 터를 잡을 만큼 개화된 마을이어서 그런지 양반, 상놈 구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타 성씨들이 들어와 정착하기 수월해서 다양한 성씨들이 모여 살았다. 동네 평안을 위해 1년에 한 번 산신령한테 치성을 드리던 일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치성은 음력 시월상달 초사흘날 새벽에 드리는데, 마을에서 집안이 평안하고 건강하면서 홀수 나이인 사람 7~8명을 뽑아 고사를 지냈다. 뽑힌 이들은 활터 뒤 산치성터에 초하룻날부터 미리 올라가 준비를 했다. 고사가 끝나면 손바닥만 한 소고기를 세 쪽씩 가는 나무에 끼워 집집이 나누어 주었다.

40여 년 전 경지정리 전에는 동네마다 농수로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정말 중요한데, 조리읍은 공릉천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좀 나았다. 그러나 농사라는 것이 물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입장이라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고양시 내유리 위쪽에 보를 쌓고 물을 막아, 논 사이사이로 흐를 수 있게 물길을 냈다. 장정들의 수고는 가을걷이 후 수세를 걷어 마을 경비로 사용했는데, 대원리는 지영리와 설문리까지 수세를 받아 부유했다. 마을에선 그렇게 모인 돈으로 '보명고등공민학교'를 세웠다.

당시 문교부 인가를 받은 중등과정의 교육 시설이었다. 허름했던 건물은 6.25전쟁이 끝나고 미군의 원조를 받아 네 칸으로 확장해 지어 운영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몇 년 지나 없어졌다.

내 땅에 농사짓기

밥은 굶어도 '상환'은 했다. 그래야 내 땅이 되니까 죽기 살기로 갚았다. 농지개혁이 있기 전, 대원리 별판 대부분은 두 사람이 지주였고 일반인들은 거의 소작농이었다. 내 땅을 갖게 된다는 소망 하나로 버틴 세월이다.

당시 전국 농토의 65% 이상이 소작지였는데, 가혹한 소작료로 인해 빈곤이 악순환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불합리하게 일본인 소유가 된 땅 등을 환수해 민주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게 하고,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넘겨 경작인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덕분에 지금은 내 명의로 된 땅에다 맘 편히 씨 뿌리고 거둔다.

소리로 나눔 봉사

어려서부터 소리를 잘했다. 어르신들이 술 한잔하시면 불러보라고 했는데 곧잘 불러서 여기저기 불러 다녔다. 정식으로 배운 적 없어도 어려서부터 들어서인지 상엿소리와 달구질 소리 등을 할 줄 알아

서,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마을 일이니까 당연한 마음으로 다녔다. 지난번에 소리 하는 걸 들었다며 두건(頭巾)을 쓰고 달려와 상엿소리를 맡아달라는 이들도 있었다. 사람을 가려서 가는 건 아닌데, 직장에 빠질 수가 없어 못 간 일을 아직도 서운타 하는 이도 있다.

요즘은 요양원 몇 곳과 경로당으로 소리 봉사를 다닌다. 술이홀예술봉사단과 함께하거나 으름나무봉사단과 가는데 유행가들 속에 양념처럼 경북궁타령, 창부타령, 달 타령 등 노랫가락을 들려드리면 좋아한다. 바빠서 몇 번 빠졌더니 “왜 안 오냐고” 하신다기에 또 길을 나선다.

함께한 지 50년이 넘는 아내는 말이 별로 없다. 흔히 말하는 바가지도 없었고, 남 나쁘다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랬다. 수더분한 성격이어서 주변 사람들과 별 탈 없이 지냈고 지금도 늘 함께여서 고맙다.

고수가 이쁘게 자란다고 했더니, 100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뽑아주신다. 아직도 남아 있는 넉넉한 시골 인심이다.

능안로 10대 토박이

강돈희 (파주시 조리읍)

| 글 | 김선희



강돈희(87세)씨는 조리읍 능안로에 10대째 살고 있다. 젊어서는 건설 계통에서 일하다가 파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교하향교 전교, 진주강씨 종친회장을 지냈다. 강돈희씨가 거주하고 있는 2층으로 오르는 길은, 계단 말고도 간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다리 아픈 한 아내를 위해 마련한 건데, 아내는 얼마 전 8월에 먼저 떠났다. 아직도 방에서 금방 나올 것 같고, 부르는 것 같아 돌아보게 된다. 집 뒤에는 꽃을 좋아하는 아내 대신 국화가 웃고 있다.

스물셋에 스무 살 아내와 얼굴 한 번 못 보고 결혼했다. 당시 헌병으로 군 복무 중이었는데, ‘김창용 저격 사건’이 있었을 때라 전국적으로 외출 금지였다. 그래서 잠깐 나와서 결혼을 하고 복귀했다. 4년 100일을 복무한 후 제대했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아내 혼자 부모님 모시고 애들을 키웠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무척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 하고 사느라 바빴다. 좋은지 나쁜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인연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보니 정이 깊어가고 젊었을 적엔 몰랐던 배려심도 생겼다. 돌아보니 80이 넘도록 아내가 차려 준 밥상을 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다. 이제 그런 걸 알 만한데 가고 없다며 애잔한 눈빛으로 국화를 바라본다.

진주강씨 종중

고려시대 때부터 파주에 살기 시작한 진주강씨는 교하, 문산 당동리, 적성 등에 집성촌이 있었지만, 6.25전쟁 이후에는 남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진주강씨 시조는 고구려 때 병마원수(兵馬元帥)를 지낸 강이식(姜以式)이다.

‘진주강씨’ 하면 부지런하고 치밀하며 공정한 정치를 했고 박학다식하다는 평을 받는 강희맹과 천지 만물의 이치를 화폭에 담아 사대부 문인의 풍류를 독창적이고 색다른 화풍으로 개척한 강희안이 떠

오른다.

파주에 진주강씨 종친회가 생긴 것은 1980년대 말이다. 당시 파주에 진주강씨 300여 가구가 있었는데, 종친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파주경찰서 보안과장의 제안이 있었다. 초대 사무장을 맡아 운영하였는데, 지금도 매월 둘째 일요일이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2005년 고양시가 재개발되면서 종종 땅 보상받은 것으로 건물을 사들여 종친회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였는데도 집안일이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는 것 또한 조상님들의 위도 덕분이니 감사할 따름이다.

인의예지

교하향교 전교 시절, 향교 형편에 따라 지내는 제향을 춘계 석전과 추계 석전 두 번 지냈다. 전교는 관련된 행사를 전체 총괄하는데 공부자와 5현 그리고 동국18현을 봉사한다.

향교에는 유도회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읍면별로 지부가 있어 자치교육을 한다. 전교를 맡고 있을 당시에는 요청한 각 학교에 파견을 나가서 유교에 대한 ‘인성교육’을 했었다. 인의예지는 유학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의 성품 곧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말한다. 지산중학교, 탄현초등학교 등에 가보면 관심을 두고 톨망톨망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렵고 지루지 않게 현 사회와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전했다.

인(仁), 공자님이 주로 주장한 ‘인’은 어질다는 뜻이다. 사람이 본래 ‘선’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회 변동에 따라 선하고 어질게 살기도 하고, 주변 여건에 따라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선한 것을 자주 보면 선하게 자라는데 요즘은 조부모와 사는 가정이 드물어 그런 가정교육을 자연스럽게 받고 자라기 어렵다. 일제강점기 때는 『수신』 그 후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인성교육’을 접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의(義),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는 ‘이기주의’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을 ‘나’ 대하듯 하면 문제가 생겨날 일이 없을 텐데 안타까울 때가 많다.

예(禮), 부모님을 봉양할 때, 우리나라서 해야 하고 즐겁게 해야 한다. 자기 마음이 안정되고 즐겁지 않으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없다. 부모님이 아프면 자기 몸이 아플 때처럼 돌봐드려야지 “얼른 병원 다녀오세요” 하는 것과 직접 모시고 다녀오는 건 다른 거다. 아무리 많은 연세에 돌아가셨어도 “사실 만큼 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더 효도하지 못하게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제사도 남이 본다고 해서 가식적으로 지내려면 안 지내느니만 못하다. 엄숙한 마



음으로 은덕을 기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지(智), 지식보다는 지혜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지식을 오용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다.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안다고 자만하거나 거만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아는 걸 내보이고 싶어 독단적으로 떠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지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활용해야 완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하향교 전교 시절, 신축한 향교 사무실 건물에 주차장이 적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건물 주변을 정리하고 주차장을 확보했다. 대부분은 협의하여 이사를 했는데 두 집이 이사를 가지 않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한참 애를 먹었다. 4층을 향교 사무실로 사용하고 도서관 시설도 만들었다. 옆에는 당시 송은 선생의 요청으로 서예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대신 칸막이 시공은 직접 하게 했다.

아흔 가까이 살아보니 안분지족(安分知足)이 중요하다고 했다. 행복이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편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화근은 욕심에서 생긴다. 욕심이 있어서 과욕을 부리다 사기도 당하고 집착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이다. 앞으로 바라는 건 손주들까지 탈 없이 건강하고 자기 일 잘하는 것뿐이다.

파주의 동맥, 조리마을지

발행처 | 파주시(1039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경기문화재단(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기 획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
편 집 | 파주문화원
연락처 | 031-941-2425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ISBN | 979-11-968530-5-1

